ISBN 979-11-964529-0-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ISBN 979-11-964529-0-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2018년 1월 계약 체결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의
최종 보고서용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5월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 구 진

〈책임연구원〉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전 태 일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실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민 정 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주 명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장 혜 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최 언 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유 지 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연구자문〉

심 규 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목 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 방법 ····· 4
3. 연구 수행 체계 및 일정 ····· 6
1) 연구 수행 체계 ····· 6
2) 추진 일정계획 ····· 7

Ⅱ.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현황 및 범주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 11
1) 국내 현황 및 쟁점 ····· 11
2) 해외 현황 및 쟁점 ····· 20
3) 시사점 ····· 32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 및 정의 ····· 37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기준 ····· 37
2)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범주 ····· 39
3) 장애 예술인의 정의 ····· 46

Ⅲ. 장애 예술 연구에 따른 장애 예술인 개념 및 정의

1. 장애 예술 연구의 흐름 ····· 53
1) 장애에 대한 학문적 연구 모델 ····· 53
2) 미학적 전략으로서 장애인의 신체(disabled body) ····· 54
3)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 ····· 57
2. 영국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 60
1)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60
2) 문화다양성 구도에 따른 장애 예술 ····· 61
3) 포용적 예술의 개념 ····· 65
4) 포용적 예술계(Inclusive Arts Field)에 대한 정의 ····· 70
3. 포용적 예술의 세계적 동향 ····· 74
1) 영국 ····· 74
2) 미국 ····· 80

3) 호주 ····· 83
4) 홍콩 ····· 87
4. 장애 예술인의 개념 정의(안) ····· 90
1) 장애 예술의 이해 ····· 90
2) 장애 예술인의 정의(안) ····· 93
3) 포용적 예술 연구에 따른 실태조사에의 적용 ····· 95

Ⅳ.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지표 및 설문문항 개발

1.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방향성 ····· 101
1) 장애 및 비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01
2) 실태조사의 방향성 및 내용 ····· 106
2.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지표 설정 ····· 109
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 및 범주 ····· 109
2) 장애 예술인 조사 지표 설정 및 예시 ····· 111
3) 장애 유형 및 예술장르별 설문 문항 ····· 113
3.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모집단 파악 및 통계 타당성 ····· 117
1) 모집단 파악을 위한 방법론 ····· 117
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통계 타당성 ····· 119

Ⅴ. 장애인 대상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구성 방향

1.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 123
1) 조사 목적 및 내용 ····· 123
2) 쟁점 ····· 123
2.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 124
1) 현황 및 내용 ····· 124
2) 쟁점 ····· 124
3.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제안 ····· 126
1) 기본 방향 ····· 126
2) 포용적 예술 개념에 따른 추가사항 제안 ····· 126

Ⅵ. 참고문헌 ····· 131

Ⅶ. 부록

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안) ····· 139
2. 장애인 예술단 및 장애 예술인 전문그룹 ····· 161
3.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인 문화예술 법인 ····· 165
4. 장애인 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 182
5. 장애 예술 관련 축제 ····· 185

표목차

〈표 1〉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 15
〈표 2〉 2012 2015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비교 ····· 101
〈표 3〉 2012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비교 ····· 102
〈표 4〉 2005년 이후 주요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 103
〈표 5〉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 104
〈표 6〉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장애 예술인 조사항목 부합도 ····· 107
〈표 7〉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영역 및 범주 ····· 110
〈표 8〉 문화예술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 111
〈표 9〉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안) ····· 113
〈표 10〉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장애유형 분류 ····· 115
〈표 1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장르 유형 및 세부구분 ····· 116
〈표 12〉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 123
〈표 13〉 기존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조사 주요 조사항목 ····· 125
〈표 14〉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안 ····· 127

그림목차

〈그림 1〉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전경 ····· 29
〈그림 2〉 아틀리에 포레포레 ····· 32
〈그림 3〉 에이블 아트 샵, 자동차 콜라보, 웹사이트 ····· 35
〈그림 4〉 작품 판매 샵 전경, 웹사이트 ····· 35
〈그림 5〉 굿모닝 에브리바디 ····· 44
〈그림 6〉 공·空·Zero ····· 44
〈그림 7〉 Restless Dance Theatre ····· 56
〈그림 8〉 Arts Project Australia와 연계한 '아웃사이더 아트 컨퍼런스'와 스튜디오 장면 ····· 59
〈그림 9〉 로켓 아티스트 그룹의 창작 활동 ····· 68
〈그림 10〉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얼룩 그리기 ····· 69
〈그림 11〉 테이트 모던 미술관 퍼포먼스 ····· 69
〈그림 12〉 쇼니바레, 〈How to Blow Up Two Heads at Once〉(2006) ····· 71
〈그림 13〉 쇼니바레의 아틀리에 전경 ····· 71
〈그림 14〉 처크 클로즈 〈Self-Portrait〉(2017) ····· 72
〈그림 15〉 전시장의 처크 클로즈 ····· 72
〈그림 16〉 제인 트렌고브〈E/Sensual Fragments series〉(1993) ····· 72
〈그림 17〉 전시장의 제인 트렌고브 ····· 72
〈그림 18〉 데이비드 툴르의 2012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 75
〈그림 19〉 〈휠체어에서 본 영국〉 ····· 75
〈그림 20〉 마크 브루 컴퍼니 현대 무용 워크숍(출처. 서울문화재단 BLOG) ····· 76
〈그림 21〉 에픽 아츠 캄보디아 ····· 77
〈그림 22〉 오스틴의 〈수중 휠체어 인스톨레이션〉 ····· 78
〈그림 23〉 커민스의 〈피가 흡쓴 땅과 붉은 바다〉 설치 ····· 78
〈그림 24〉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 ····· 79
〈그림 25〉 2013 리오데자네이루 문화올림픽 포럼 ····· 79
〈그림 26〉 Axis의 통합적 무용 ····· 81
〈그림 27〉 풀 레디우스 무용단의 작품 활동 ····· 81

〈그림 28〉 ON DISPLAY YOUTH ····· 82
〈그림 29〉 UN에서 공연된 ON DISPLAY ····· 82
〈그림 30〉 Arts Access Victoria ····· 84
〈그림 31〉 레스트리스의 〈친근한 장소〉를 위한 힐튼 호텔 공연 ····· 85
〈그림 32〉 백투백 극단의 〈민주주의 세트〉 한 장면 ····· 86
〈그림 33〉 〈당신의 침대를 치우고 걸어가라〉의 장면과 배우들 ····· 87
〈그림 34〉 ADAHK 전시회 및 로고 ····· 88
〈그림 35〉 홍콩의 포용적 예술 축제 ····· 88
〈그림 36〉 홍콩의 장애 예술인이 디자인한 우표 ····· 89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수행 체계 및 일정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장애 예술인의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으나,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파악은 부족한 상황임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누구이며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예술 혹은 장애 예술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장애 예술의 장애 정체성 문제에 대한 규명이나, 전문 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기준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이에 해당됨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창작과 향유 개념을 명확히 분리하고,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등과 관련한 용어들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이론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에 따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향성 및 설문항목 개발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게 됨

2) 연구의 목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예술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의 개념과 정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실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개발 등의 작업을 목표로 함

-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활동의 현황 분석 및 개념과 범주 등을 정의하기 위한 기초연구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개발, 모집단 파악 및 통계 타당성 검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며, 하나는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개념 도출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추후 진행될 실태조사를 위한 방향 설정 및 설문문항 개발과 관련한 부분임. 단,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장애인 대상 향유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도록 함

-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개념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연구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 장애 예술인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예술 활동 범주 검토
  - 영국의 포용적 예술 이론 연구에 따른 시사점 도출과 한국적 적용 검토
  -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정의(안) 제시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와의 비교
  -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방향조사
  -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
  -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모집단 파악 및 통계타당성 검토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자료 및 연구 보고서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사례조사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조사 및 비교분석
- 비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와의 비교 분석에 따른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방향성 도출

●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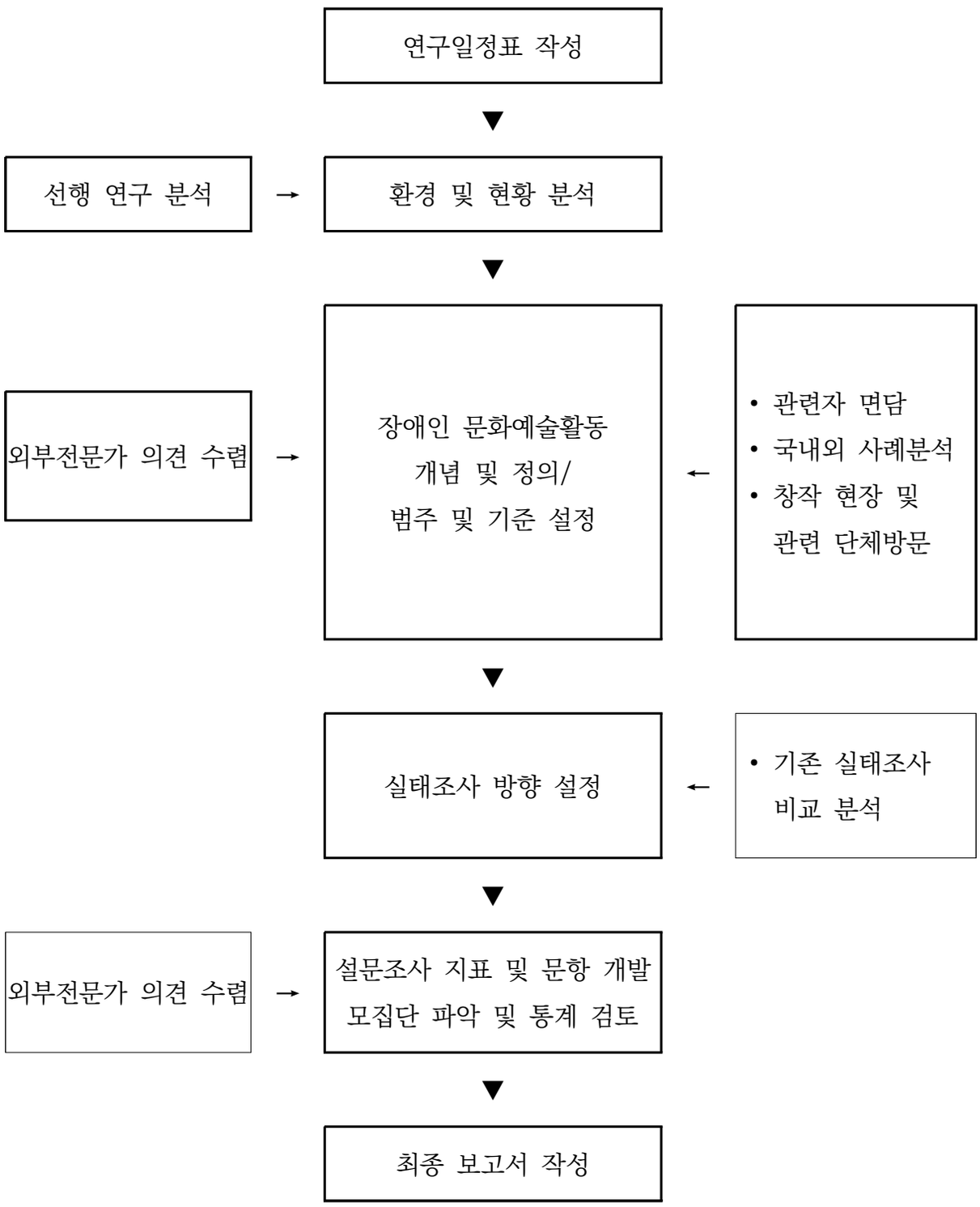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실행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실행

● 전문가 자문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

3. 연구 수행 체계 및 일정

1) 연구 수행 체계



2) 추진 일정계획

월 / 항 목	1	2		3		4		5	
	16~31	1~15	16~28	1~15	16~31	1~15	16~30	1~15	16~31
착수보고	계약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 및 기준									
장애 예술 및 포용적 예술 연구									
자문회의									
중간보고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방향성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지표 및 설문 문항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모집단 파악									
실태조사 통계 타당성 검토									
장애인 문화향수실태조사 기본방향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수정 및 편집									
최종성과물 납품									

Ⅱ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범주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 및 정의

Ⅱ.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범주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현황 및 쟁점

(1) 장애인 지원정책

● 2017년 현재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인 267만명[1)]

- 고령화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우울감 경험률이나 자살 생각율 등이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장애노인은 더 높은 상황임
- 장애인의 주된 요구 사항은 소득보장(41%),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 1995년 5년「삶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추진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
-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및 고용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장애인복지법에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 1차(1998년 ~ 2003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목표로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 고용지원 추진

1) 2017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차(2003년 ~ 2007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등 추진
- 3차(2008년 ~ 2012년): 장애인의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 4차(2013년 ~ 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과제(2013~2017)

출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부합동보고서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 경제활동, 권익증진의 6대 분야별 중점과제 설정
  - 세부 서비스와 건강지원제도 확충,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보장 확대, 교육, 문화, 체육 등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

(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음

- 헌법
  -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은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4조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와 "장애인은 국가 · 사회 구

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함
- 장애인복지법 제 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절(문화·예술) 제16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 1998년 10월 제정, 선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 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3)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 동향

●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실행 주체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보건복지부 등이 담당
-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총괄

● '함께누리 지원사업'

-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기

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추진

- 예산은 2013년 42억원, 2014년 113억원, 2015년 221억원, 2016년 213억원, 2017년 7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2014~16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건립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부터'함께누리 지원사업'의 하나인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을 위탁 받아 국고로 지원

〈표 1〉 2013-2017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함께누리 지원사업 총계		4,200	11,300	22,100	21,300	7,000
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	1,750	2,950	2,950	2,950	3,150
2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950	900	900	900	900
3	한빛예술단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300	400	400	500	450
4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 대전	100	150	150	150	150
5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400	400	400	400	500
6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200	200	200	200	200
7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500	500	500	-	-
8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립	-	5,300	15,800	14,800	-
9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	300	300	300	300
10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	200	500	400	400
11	장애인 클래식 공연 지원	-	-	-	400	400
12	장애인 무용전문인력양성	-	-	-	-	250
13	장애인 국제무용대회	-	-	-	300	300

출처. 전병태, 2017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 및 역할

-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고와 복권기금을 통해 장애인 향수 문화지원 사업이 구체화된 뒤, 2017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사업이 이관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음센터(2015. 5월 건립) 운영을 위해 설립

- 이음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장애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
- 이음센터 운영과 장애인문화향수지원을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 마련

● 지자체의 장애 예술인 지원 현황과 조례 제정 등의 노력

- 2007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경우, 구족화가 이윤정 작가가 창작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돼 장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음. 현재 작가로 인정받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외에 지자체 주도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지자체 별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지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7개 가운데 조례가 있는 곳은 13개 단체(76%의 제정률)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26개 가운데 17개 단체(7.52%의 제정률)가 조례를 마련,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는 아직 조례가 없음
- 2012년도 경상남도 거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2015년 1월 7일 공포번호 제1212호로 일부 개정하여 내용을 보완함. 2013년 3개, 2014년 2개, 2015년 2개, 2016년 7개, 2017년 13개, 2018년 상반기에 2개의 조례가 제정됨
- 조례는 보통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제1조 목적을“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두고 있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대표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2016년도 초 이후 제정된 조례들은 대부분 위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사업을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말 이후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표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함

- 가장 최근에 제정된 충청북도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조례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구입·구매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 제안

- 2018년 3월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에 걸쳐 시행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하고, 센터 내 장애인체육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 기회 제공과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예술 전용극장 마련을 제시

(4)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의 흐름

●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문화관광부, 2007)

- 연구책임 : 정갑영
-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해 창작 공간 제공, 멘토링 운영, 장애 예술인 등록제도 시행,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장애 예술인 센터 건립 등 제시
-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장려 및 육성을 위해 장애인 창작집단 육성 및 장애인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청소년 예술 전시 지원 등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연구책임: 전병태
-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재정 확보, 접근권 보장 및 공간 확보, 사회 참여 통로 마련 제안
- 미시적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문예지 발간, 동인 활동, 도서 및 정보 제공, 작업공간, 재료비 지원 등 제시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연구책임 : 전병태
-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 정비, 재정 확보, 창작 활동 위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관 할당제 및 창작 공간 마련, 장애인 아트센터 건립,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체계 개선, 교류 협력방안, 테스크 포스 설립, 단체 사회적 기업 지정 등 지원
- 장르별 문인, 미술가, 공연예술가 별 창작 지원방안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연구(한국사회사학회, 2011)

- 연구책임 : 주윤정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관람 시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 제공 요구 및 이를 의무조항으로 두도록 주장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으로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 장애인문화예술생활지원센터 조직, 장애인 공공문화기반시설 설립, 접근권 강화, 법제정, 장애인 아트센터 건립,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쿼터제도 도입, 연금제도 등 제시
- 장애인 문화예술을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 창작, 문화예술 고용,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전달체계 구축 제시
- 특별히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지원으로는 창작공간 건립 및 기존 시설의 장애인 쿼터 신설, 장애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천, 장애인 문화예술 장르화 특화, 장애인의 비장애인 예술 영역과의 네트워킹 필요를 강조

●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연구책임: 전병태
- 장애인 문화권, 장애인 예술 및 장애 예술인의 개념 정립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예술활동 기본 지원 방안 및 장애인 예술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방안 제시
- 치료, 재활적 단계에서 사회적 단계 및 자립적 단계에 따른 장애 예술인 장르별 지원 방안 등 제안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흐름

- 2005년,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 조사〉,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조사규모는 79명으로 문학(11), 미술(39), 사진(2), 국악(1), 연극(7), 무용(2), 영화(3), 기타(7)

- 2007년, 〈장애문화예술인 활동 실태 조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조사규모는 문학과 미술 장르에 한하여 361명으로 문학(189), 미술(172)

  : 모집단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

- 2010년,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규모는 123명으로 문학(24), 미술(52), 음악(18), 공연(24), 다원예술(5)

  : 모집단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음악협회, 장애인문학단체 솟대문학 등의 회원

- 2011년,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사)몸짓과 소리

  : 조사규모는 57명으로 문학(18), 미술(27), 기타(사진1. 음악3, 연극2, 영화1, 대중 예술5)

- 2012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규모는 591명으로 국악(29), 대중예술(31), 무용(26), 문학(60), 미술(176), 사진(9), 연극(62), 영화(32), 음악(166)

  : 모집단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단체 회원이면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창작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자로 규정)만이 아니라, 향유장애인(409명)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4년,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규모는 170명으로 미술(112명), 문학(21), 연극(10), 기타(22명)

  : 모집단은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 활동을 3년 이상 한 장애 예술인이며, 예술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2) 해외 현황 및 쟁점

(1) 영국

● 영국의 장애인 관련 법안 수립 현황

-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의 2005년 개정, 그리고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 개정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평등법에 기반하여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 체계적인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수립하여 시행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공공기관 병원, 대학 등은 장애인 평등을 적극적으로 진흥해야 하며, 장애인 평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당 성과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함(이혜경, 2010)

■ BBC의 장애인 정책
- BBC는 2005년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자체적인 〈장애인평등계획〉을 수립, 고용 정책 및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 2008년 기준으로 BBC채널(1~4, 어린이 채널, BBC 뉴스)의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처리
- 인종적 소수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인턴 채용 비용으로 연간 300만 파운드 투자
- 〈See Hear〉(1981년부터) 등 우수한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 어린이 방송의 일부로 말, 수화 배우기가 결합된 내용이 포함됨
-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인 Outch! 개설. 장애인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는 콘텐츠(뉴스, 블로그, 게시판,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 수립과 시행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둠
-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주관하며 부처 내 장애인 예술전문 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에서 매년 장애 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2007년 수립된 1차 계획(2007-2010)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피고용인·참여자·청중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예술적 성장을 위한 투자나 기금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2010년 수립된 2차 계획(2010-2013)은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활동과 주요 부문에서 핵심적 역할 및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예술인의 명성 높이기, 장애인 인지

도 제고, 공무(公務) 참여 촉진, 장애인 서비스의 질과 통합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모든 장애인이 예술가, 참여자, 직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예술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접근성

- 정부 및 문화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음(이혜경, 2010)
-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건강'과 '관심부족'으로 드러나, 비장애인의 '시간부족'과 차이가 남
- 아마추어 예술활동 참여자 590만명 중 총 15만 4천명이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밝혔는데, 공예 7%, 문학/미술/미디어 6%, 축제 참여자 1%가 장애인으로 나타나 장애인 예술활동 참여가 관람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중앙정부나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단일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의 일환으로 접근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구도에서의 장애 예술정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실천〉(Creative Case for Diversity)을 통해 평등법을 실천하고 있음
-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실천〉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으로, 다양성 실천이 영국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전제됨
- '모두를 위한 예술'을 위해 '모든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예술을 지원하며, 이는 다양성과 평등을 핵심개념으로 함
- 이 때 다양성은 Creative diversity(예술 영역에서의 다양성), Workforce diversity(일터에서의 다양성), Audience or market diversity(문화향유 및 시장에서의 다양성)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인종과 민족, 신념, 장애, 연령, 성, 성적정체성,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제도적 장애 등 문화예술 참여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넘어서려는 실천적 의지로 제시됨
- 또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기금 수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양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고용의 다양성(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고용 정도), 고객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2) 미국

●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기조 및 기관 현황

-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만든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공공·민간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함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NEA(국가문화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VSA(Very Special Arts)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됨
- 미국 문화예술정책은 평등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역시 이를 기조로 함.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윤자혜, 2010)
- 장애인 예술가들의 경력을 지원하는 정보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및 재정을 제공하는데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둠

● NEA의 장애인을 위한 역할

- NEA는 Office of Accessibility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건강 및 인권 서비스, 사회보장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시행함(윤자혜, 2010)
-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행정가 및 예술가를 후원하는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통계청과 1982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선택의 문제인가? 미국 장애인의 예술참여 형태(A Matter of Choice? Arts Participation Pattern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발간
- 교육부와 건강 및 인권 서비스(Health&Human Services), 사회보장 행정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과 협력하여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 미국 미술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와 미술관 서비스 기관(Institute of Museum Services)과 함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는 〈The Accessible Museum〉을 출간하고, 예술기관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사항 리스트 등 공유

● NADC의 역할

- NADC는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상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UCLA의 발달장애 연구센터인 타잔센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연방정부 및 개인 후원 등으로 운영됨
- 문화예술 관련 기관, TV 방송국, 대학, 국가 등이 장애인 예술가, 예술교육담당자, 예술행정가 및 정책 연구가들을 위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
-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관련 문화예술기관, 공연장, 미술관, 축제 등의 정보나 예술관련 취업자료, 예술 교육 및 펀딩, 마케팅 등 자료 제공, 전문적인 작가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함

● 장애인을 위한 예술직종에 관한 전국 포럼(Statewide Forums on Careers in the A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NADC가 주관하고 NEA와 VSA, 26개 주 예술기관 및 이들의 협력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
- 1998년 '예술 직종에 관한 국가포럼(National Forum on Careersin the Arts)'가 모태가 되어 2002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
- 장애 예술인들이 다른 예술가들 및 문화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

● VSA의 역할[2)]

- 1974년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워싱턴 D.C.의 케네디 공연예술센터(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37개 주 지부와 52개 국가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예술과 장애에 관한 국제적 기관
-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습능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수업과 커뮤니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미국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미국과 전 세계 51개국에 있는 VSA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문학 등의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함
- 1974년 설립 시 기관 명칭은 'Arts for the Handicapped'이었으나, 1985년에 Very Special Arts로 바뀌었으며, 2010년에는 VSA라는 약칭으로 사용하게 됨.

2) http://education.kennedy-center.org/education/vsa/

- VSA of Kentucky 의 경우 기관 비전을 Vision of an inclusive society, Strength in shared resources, Artistic expression that unites all로 제시함으로써 Very Special Arts라는 기관명과 일치시키고 있음
- 2000년에 장애 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모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LEAD(Leadership Exchange in Arts and Disability)라는 단체를 결성함. 매년 회원 기관들이 모여 컨퍼런스와 자원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피고 있으며, VSA가 이를 지원하고 있음

■ VSA 프로그램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갖는다.
-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받는다.
- 모든 예술가와 예술교육자들은 그들의 교육대상으로 장애를 갖는 학생을 포함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은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에 완벽한 접근권을 갖는다.
- 예술에 대한 경력을 쌓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 미국예술치료연합(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의식과 예술 활동으로부터 얻는 성취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보고서 발표

● 주정부 사례

- 뉴욕 주의 '극장 접근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열리는 공연 중 약 6,000석을 장애인 좌석으로 확보하여 편리하게 예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연관람 환경개선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서비스 제작'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지원
- 오하이오 주는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정신적 건강과 사회경제 활동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주정부 지원 확대

(3) 호주

● 호주 장애인 예술운동 성장과 정책 수립

- 호주 장애인 예술운동은 1980년대 크게 성장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고 「장애인 복지 제도 시행령」(Disability Services Act, 1986) 통과를 가능케 하였음
- 관련 정책의 재정립은 크게 장애인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와 사회적 통합에 참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둠(Murakami, 2012)
- 2009년 문화장관회의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의 문화장관은 '국가 예술과 장애 전략'(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NADS)을 발표함
- 이 전략에서 장애인들의 예술에 대한 열망과 능력은 호주 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좀 더 통합된 사회를 장려하고 최고의 실천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호주예술위원회의 장애 예술 지원정책

- 호주예술위원회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 개입 프레임워크〉(Cultural Engagement Framework, 2007)의 주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고, 2008-2010년, 2011-2013년 간 두 차례에 걸쳐 3개년 〈예술과 장애 실천계획〉(Arts and Disability Action Plan)에 포함시킴
- 2014-2016년 장애인 실천계획(Disability Action Plan)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과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2014년 217명 지원자 중 2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2015-2017년까지 지속함
- 호주예술위원회는 영국의 예술과 장애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 공로를 인정하여 Arts Access Australia의 CEO인 엠마 베닌슨(Emma Bennison)에 수상
- 빅토리아 주 예술기관의 리더들에 대한 재교육 등 실시

●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Arts Access Victoria, 이하 AAV)[3]

- 1974년 설립된 AAV는 '예술과 장애'(arts and disabilit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주정부 기관
- AAV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 예술인, 예술관계자, 예술기관을 위한 실행계획과 예술적 실천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례 연구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3) https://www.artsaccess.com.au/

등, 문화예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부딪히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예술계가 실천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에 비해 장애 예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

- 2012년 AAV에 의한 국가 문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예술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연구 부족이 호주 장애인 예술가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함
- 영국의 경우 장애인 예술사에 대한 강의가 여러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호주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나 연구가 없음

● 빅토리아 주정부의 〈픽쳐 디스〉(Picture This) 연구

- 주정부 예술기관인 아츠 빅토리아(Arts Victoria)는 주정부 장애인 기관인 빅토리아 장애사무소(Victorian Office for Disability)와 협업하여 예술과 장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지원함(Creative Victoria, 2008)
- 2008년 〈픽쳐 디스〉라는 연구를 통해 장애인을 관객으로서, 예술가로서 문화예술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사함
- 이 연구는 장애인의 예술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경제적, 태도의 장애물이 정부와 예술분야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집중 연구
-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에는 시간표 조정과 이에 대한 예산 배려가 매우 중요함을 파악함. 예컨대, 장애인 예술 단체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리허설 시간이 필요하며, 예술가들을 도와줄 보조 인력이나 수화 통역 등이 더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예술과 장애 액션 플랜 트레이닝」(Arts and Disability Action Plan Training, ADAPT)이 시행됨
- 장애인 예술가들을 비장애인 예술가들과 어떻게 다르게 대할 것인지가 아니라, 각 예술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포용적 예술에 접근

(4) 프랑스

● 법제도의 정비

- 프랑스는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을 확립하였고, 특히 정부기관 및 단체 간 협정 체결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및 향유 기회 제고에 힘씀
- 모든 분야에 모든 이가 교육, 고용, 건축물, 교통수단 등 사회생활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 도립 장애인의 집을 창설하고 공무관의 장애인 고용지원기금을 제도화 함
- 문화-관광협약 및 문화-장애협약에 의해 문화재 및 유산 관람을 장려하고, 건축물 관련 장애인 접근성 교육 강화, TV 방송 자막 작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예외조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함

● '문화의 민주화'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 문화정책

- 프랑스는 문화란 최대 다수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문화의 민주화'원칙에 입각하여 장애인 문화정책을 시행함(박지은, 2010)
- 문화란 가능한 최대의 프랑스인들이 인류의 주요 작품들, 특히 프랑스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작품의 창조와 이를 풍요롭게 하는 정신을 옹호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
- 이에 장애인들이 문화 및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른 특별한 시각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을 지원
- 문화통신부를 중심으로, 건강부, 관광부, 가족부, 노인부, 사회보장부 등 정부 부처가 협조하며, 장애인 관련협회 및 단체, 문화예술기관 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문화-장애 국가위원회' 설치

- 문화통신부 장관과 가족아동장애인 차관에 의한 '문화-장애 국가위원회' 설치
- 문화관련 부처와 장애인, 장애인 관련 협회, 문화예술 관련 분야 사이의 대화 및 상담, 정보 공유 창구의 기능을 함. 더불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기준, 필요한 기구 및 시설, 예술행위, 문화 분야의 교육 민 전문 직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

● ‘문화와 장애: 접근에 대한 실제 가이드’ 발간

-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가이드 자료를 발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접근에 필요한 실제적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
- 시설접근 뿐 아니라 비상시 안전(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경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각도에서 접근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에 맞는 장애인 문화복지 환경을 구성하도록 함

● 문화-관광 협약

- 문화-관광 협약을 통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질을 개선
- 관광과 장애협회가 주도하여 ‘관광과 장애’ 표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서비스, 접근환경을 제공하는 인증표지 제도 시행
- 국가문화유적센터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협약을 통해 문화재 관람 등 장애인들의 문화재 향유기회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정 체결

● 장애인 대상 휴가 권리

- 장애인을 위한 휴가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지원하고, 국립휴가수표사무소(ANCV : 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Vacances)가 주도하여 장애인의 휴가 권리 향유를 지원

(5) 독일

● 연방정부 장애인복지위원회((Das Amt des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서 엘리사, 2010)

- 2002년 발효된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등조건을 규정,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1998년도에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도 5월1일부터 장애인평등법에 기관의 존재와 역할이 규정되어 법 효력화 되었음
- 독일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노동복지부 산하기관인 연방정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주관, 장애인 평등법 15조에 의거하여 본 정부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평등한 조건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

의 책임 하에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인 삶을 충족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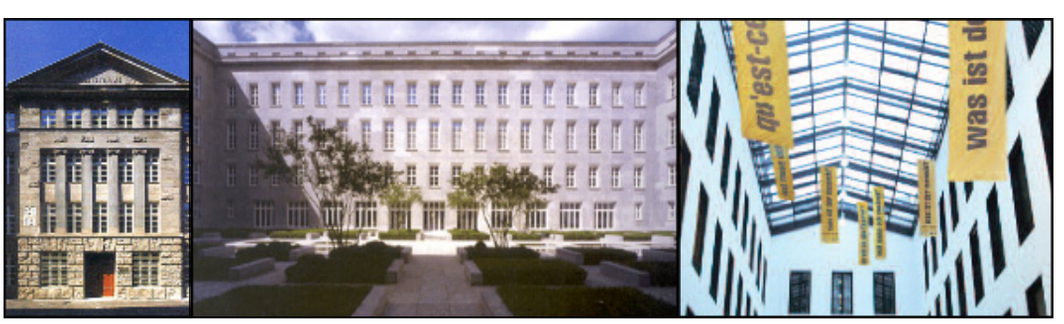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으로서 장애인에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논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 전달 및 홍보, 문화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함

● 연방정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클라이스트하우스

- 장애인들은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일원이라는 개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 '클라이스트하우스' 운영
-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장애인 혹은 장애인 예술가만을 위한 기획은 도리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한다는 인식아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양
- 따라서 문화적인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삶을 위한 문화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Das Kleisthaus Berlin)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은 주제나 내용에 있어 '장애'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 장애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비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
- 듣는 영화, 점자 번역물, 영화나 강연, 문학작품 등의 수화번역, 성우를 통한 작품 및 스토리 텔링 제공,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희망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할 수 있음
- "문화와 사회의 융화력은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능력"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인간답고 민주적인 인성을 기르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에 주력



〈그림 1〉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전경

(6) 일본

● 2010년 이후의 제도 정비

- 일본은 2010년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자 제도 개혁 본부'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장애인이란 장애자 기본법에서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함
- 신체장애자 복지법, 정신 장애자 복지법 등 장애의 종류에 따라 관련 복지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장애자 자립 지원법이나 장애자 고용 촉진법 등을 운영
- 장애인을 시각·청각, 팔·다리 및 간장이나 심장의 장애, HIV등의 범위에서 사회참가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장함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가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중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도록 함

●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상의 장애인 예술 지원

- 제22조는 "국가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충실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전병태, 2017)
- 공연, 전시 등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 중인 보호자 등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쉽도록 시설의 베리어프리(barrier-free), 자막이나 음성안내 서비스, 탁아서비스, 이용료나 입장료 등 지원

●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

- 예술로서의 장애인 예술을 위해 작품을 수집, 소장 상황을 조사
- 장애인 예술의 보급 및 감상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예술 전시 지원, 국민문화제 및 장애인예술문화제 활용, 심포지움 등 개최
- 복지현장에서 예술창작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환경 조성, 유니버설 뮤지엄 추진 등 지원

● 민간과의 협치를 통한 정부 지원 방식

-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와 창작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김미림, 2010)
- 대표적 예술활동지원단체로서 '에이블 아트 재팬'(Able Art Japan)이 1995년부터 에이블 아트 무브먼트 전개, 2007년에는 '에이블 아트 컴퍼니' 설립
- 일본은 장애인 예술을 '에이블 아트(Able art)'로 부르는데 이는 장애인 예술을 가능성의 예술로 인식하여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예술과 사회와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민예술운동을 가리킴
- 장애인 예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로 '보더리스 아트(Borderless art)'도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복지와 예술, 예술과 지역사회 등 여러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말함

● 민간 주축의 에이블아트 재팬(구.일반 장애자 예술 문화협회)

- 이 단체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표현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고 자신을 표현할 방법과 풍성한 삶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회 전체가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를 위해 에이블 아트 컴퍼니를 통해 장애인들의 작품을 상품화하고 이들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판매, 광고, 영업활동 등을 하며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대행,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강연과 연구 활동 추진

■ 하나아트센터 www.popo.or.jp
- 일본 나라시에 소재, 에이블 아트 운동의 거점으로 1973년 장애인과 가족, 시민이 주도하여 민들레의 집 모임을 결성한 후 1980년 건립
- 이후 2004년에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이 운영하는 아트센터로 전환
- 장애 예술인의 자립을 강조하며, 장애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제공함
- 작가들을 유명 갤러리에 소개하거나, 국제 교류를 지원, 온라인 상에 작가 및 작품을 공개함으로써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판매, 계약 등 지원
- 2009년 경기문화재단은 하나아트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한국 예술가와 매개자 지원

■ 아틀리에 포레포레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자유롭고 풍부한 표현의 장을 공유하는 실험적인 공간
- 1996년부터 매월 2회 도쿄 공과 전문학교의 교실을 빌려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창작 및 전시회 개최, 합숙 등을 통한 참여자들 간의 교류활동을 전개

〈그림 2〉 아틀리에 포레포레

3) 시사점

(1)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시사점

● 장애인이면서 전문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장애 예술인의 기준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

-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은 2005년 문화부에 체육 부문이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예술 전담과가 설치된 것은 2009년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 수립은 10년의 역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초기 주요사업은 '함께누리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와 장애 예술을 지원해 왔음. 사업 예산도 꾸준히 늘어 2013년 42억에서 2017년에는 70억이 되었으며, 그 중 2017년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예산은 45%에 달함
- 그러나 향수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수사업이며, 그런 점에서 전문예술가로서의 장애 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겠음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전국의 등록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향수와 동호회 수준의 문화 활동 참여를 파악하는 수준이었음

- 민간 단위에서 실시된 실태조사는 2005년의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와 2007년과 2011년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사)몸짓과 소리 등에서도 진행하였음
-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전체적으로 표본수가 적게는 57명, 많게는 591명에 지나지 않는 등 편차가 심하며, 실제로 누구를 어떤 기준에서 장애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늘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

●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개선 방안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의 움직임

-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실제 전체 문화 구도에 장애 예술을 범주화하려는 접근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주류화,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 등이 제시됨
- 이에 따라 예술인 파견사업, 생활예술센터 조성, 공연장 상주제도, 서울아트마켓,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제도,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 등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사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녹아들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문화기반시설 편의시설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예술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장애 예술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의미

- 무엇보다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탄생은 보다 본격적인 장애 예술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한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전제로,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창작활성화 / 문화예술향수지원 / 배리어프리 제작지원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 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국제교류 활동 등으로 구성
- 다른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역시 2018년 1월부터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진일보한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게 됨. 현재까지 완료된 예술활동증명이 된 예술인 수치는 49,500여명에 이름
- 절차는 비장애 예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며, 장애 예술인 해당 여부에 체크를 하고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장애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시 1점 가산점 부여함(그 외 타 사업에는 혜택 없음)

(2) 해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시사점

● 시민운동 및 장애인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장애 예술의 토대

- 해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술 활동이 장애 혹은 복지라는 관점에 갇혀 사회적 관점과 정치적 맥락을 살리지 못하는 지점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곧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와도 연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에서 장애인 운동은 1970년대 장애인이 중심인 풀뿌리 조직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정치적 행동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자산이 정책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원정책에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시민운동이나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장애인 예술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단위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

● 민간 단위의 다양한 포럼 개최 및 학자와 기업과의 협업

- 해외의 경우 민간 단위에서 장애인 예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왔으며, 학자와 기업, 비영리단체와의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탑다운 형식으로 일관되지 않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효과로 작용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브라이튼 대학의 앨리스 폭스(Alice Fox) 교수와의 협업으로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Tate Modern에서 개최한 장애 예술 포럼 및 워크숍과의 연계도 진행함
- 호주의 장애인예술 전문 지원기관인 AAV(Arts Access Victoria)는 멜번 대학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로 〈Beyond Access〉(2015)를 발간함으로써 포용적 예술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고, 영국과 미국, 호주의 정책 비교와 현황을 제시함

● 장애 예술 상품화 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도요타자동차와의 협업으로 〈도요타 에이블 아트 포럼〉을 1996년부터 시작하면서 에이블 아트라는 개념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장애 예술 관련 비영리단체도 탄생하는 등의 성과도 얻어냄
- 또한 2007년에는 장애인이 예술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에이블 아트 컴퍼니'가 설립되면서 장애 예술인의 작품이 산업적 차원에서 재가공되거나

기업과 콜라보 작업을 실천하면서 판매를 주도하게 됨

- 미국 오클랜드에 소재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Creative Growth)는 1974년에 설립된 아트센터로서, 장애 예술인의 전문성을 살리되 작품을 다양한 경로로 드러내기 위한 마케팅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 매년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패션쇼를 개최함에 따라 유명 의류브랜드 회사의 후원을 받아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패션 디자인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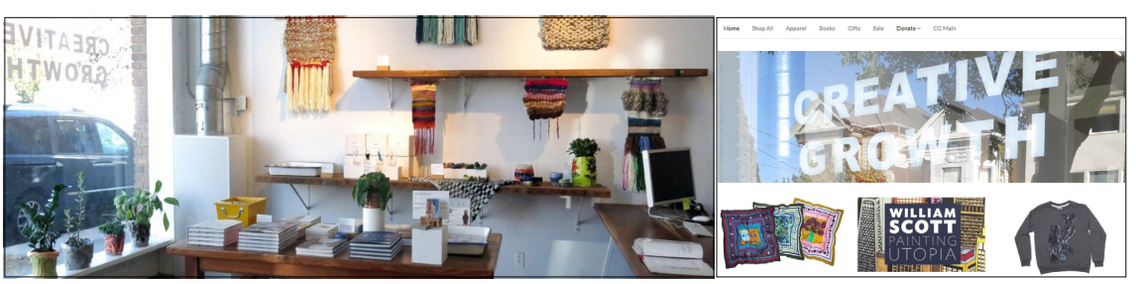
■ 에이블 아트 컴퍼니

- 등록된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공개하고 저작물 사용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광고, 디자인 연계, 일러스트 제작 주문, 작품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모션 담당
- 장애 예술인 선발 공모와 프로젝트 및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실행
- 각종 강연회 및 연구, 포럼 진행

〈그림 3〉 에이블 아트 샵, 자동차 콜라보, 웹사이트

■ 크리에이티브 그로스(Creative Growth) 아트센터

- 미국 오클랜드에 소재한 아트센터로서, 1974년부터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을 위한 아틀리에와 교육, 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제작된 작품은 아트센터 내 갤러리에서 전시되거나, 외부 미술관의 기획 전시에 참여하기도 하며, 또 아트센터 내 샵에서 판매도 가능
- 예술가들은 공동체 문화와 질서에 따라 예술활동을 이어가며, 작품 판매 시 판매 가격 일부를 센터 관리비로 기부하며, 참가자는 간호 조교와 케어 워커의 지원을 받아 작업



〈그림 4〉 작품 판매 샵 전경, 웹사이트

● 예술적 수월성에 따른 장애 예술인 단체와 이에 대한 지원정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장애 예술인 작품 제작 지원이 기본적으로 예술적 수준이 입증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의미의 사회 통합 차원에서 결성된 예술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미국의 Axis Dance(1987년 창립) 역시 예술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 작업하는 단체로서,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100회가 넘는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이사도라 던컨 댄스 어워즈(Isadora Duncan Dance Awards)를 일곱 차례나 수상하는 등 주류예술계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

● 장애 예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강조

- 호주의 경우 장애 예술을 현대예술의 한 범주로 간주하고,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장애 예술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을 호주 장애 예술 발전의 저해 요소로 간주함

(3) 소결

● 한국에서 본격적인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예술계에서의 인식 변화를 주도할 만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구도가 별도의 것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전체 문화예술정책 구도 속에서 전망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 정책 주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 부과
- 해외사례를 통해 민간 단위의 활동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애 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과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지원하는 정책 체계의 참조
- 기업을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업과 파트너십 실천의 강구
- 장애 예술인의 작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강구와 일본의 에이블 아트 컴퍼니가 던져주는 시사점 참조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 및 정의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기준

(1) 예술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서의 예술인 복지법

● 2013년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2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예술인 실태조사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예술관련 기초 통계자료임
- 198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예술인복지법의 개정 이후 2015년 명칭과 규모 및 방법 등을 전면 개편한 바 있음[4)]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복지 여건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2011년 법안 제정, 2012년 시행되었는데, 이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축적된 결과임
-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 1984년 영화인 복지재단 설립
- 2002년 한국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추진(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등)
- 2003년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출범
- 2004년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설립운영,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 2005년 연극인 복지재단 및 영화산업노조 출범
- 2007년 전국미술인 노동조합 출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4)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법」의 의의와 예술 활동 증명

- 예술인 복지법은 그 정책 대상인 예술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분야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으로 세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음[5)]
- 예술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함[6)]
-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 복지법의 대상으로 결정
- 예술 활동을 증명받기 위한 기준은 예술 활동 저작물이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일정 수 이상의 작품 또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자,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자 등

(2)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

● 예술 활동 증명의 한계

-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예술인 활동을 증명해야만 수혜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활동증명을 하기 어려운 예술인, 특히 신진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움(손윤석, 2015)
-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이 가능했으나, 실제로 최고은 작가가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 예술인의 사회보험 적용의 한계

- 예술인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월납임금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등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예술 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이루어진 계약에 제한되어 있고,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예술인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5)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구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적용하되, 산재보험에 한정함으로써 매우 협소하게 복지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 산재 보험의 조건, 즉 고용관계, 작업장에서, 규정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제한하는 점 등은 예술인의 조건과 맞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김태완 외, 2012)

● 복지사업의 한계

-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법률이나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에 의해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예술인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예술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적용 대상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장애 예술인 적용의 한계

-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술가의 복지를 위한 예술인복지법은 현재 모든 비장애인 예술가들을 포괄하는 데에도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장애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장애 유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요 등은 조사내용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음

2)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범주

(1) 협회 가입을 통한 장애 예술인의 활동

● 2005년부터 실시된 장애 예술인 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대부분 모집단은 장애인 예술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간주됨

-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장애 예술인 총람에 기재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민간단체 중 장애와 문화, 예술과 관련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및 협회의 회원 명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개 단체, 2,320명의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모집단으로 선정

-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관련단체의 회원 중 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장애 예술인 300~500명, 문화향유 경험이 있는 장애인 300~500명을 표본으로 추출
-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

● 비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경우도 대부분 모집단은 협회 회원으로 간주됨

- 2015년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예술인 실태조사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 5개 영역, 24개 항목으로 조사
- 조사 집단 선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으로'예술활동 경력증명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으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활용
- 문화예술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34개 예술관련 협회 및 단체의 회원 정보 수집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대상은 총 14개 예술분야 131,332명 중 표본 추출로 5,104명 선정하여 조사

(2) 장르별 활동 비교

●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행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은 국악, 대중예술,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으로 나타남

- 국악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33명이며 그 중 52%가 풍물 부문으로 답하였으며, 풍물로 응답한 예술인 중 지적 장애가 18%, 장애 등급 1등급이 30%으로 가장 많음
- 대중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37명이며 그 중 40%가 가수 부문에서 활동하며, 가수로 응답한 예술인들 중 지적장애는 16%, 장애등급 1등급이 27%로 가장 많음
- 무용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29명이며 그 중 45%가 한국무용 부문에서 활동하며, 한국 무용으로 답변한 예술가들 중 뇌병변장애가 28%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2등급이 21%로 가장 많음
-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64명이며 그 중 58%가 시 부문에서 활동하며, 시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지체장애가 34%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2등급이 36%로 가장 많음

-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182명이며 그 중 43%가 서양화 부문에서 활동하며, 서양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지체장애가 29%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1등급이 21%로 가장 많음
- 사진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12명이며 그 중 92%가 창작사진 부문에서 활동하며, 창작 사진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지체장애가 50%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1등급이 25%로 가장 많음
-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66명이며 모두 연기 부문에서 활동, 연기를 하는 예술가들 중 뇌병변장애가 33%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1등급이 47%로 가장 많음
-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33명이며 그 중 58%가 연기 부문에서 활동하며, 연기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지적장애가 52%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2등급이 36%로 가장 많음
- 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 예술인은 총 174명이며 그 중 28%가 성악 부문에서 활동, 성악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 시각장애가 24%로 가장 많고 장애등급 1등급이 23%로 가장 많음

● 비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경우 활동영역은 2012년 10개 분야에서 2015년 14개 분야로 확대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및 기타로 분류 조사
-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미술 23%, 문학 10%, 연극 10%, 음악 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분야에서의 주 활동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 화가/조각가 19%, 작가/평론가 12%, 음악 실연자 10%, 배우/성우 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문학의 특성 및 현황

-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문학 활동과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한 문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1990년 장애인문인협회가 창립되고 장애인 문학지「솟대문학」을 창간하는 등 장애인 문학에 담론을 형성
- 「솟대문학」은 2015년 100회 발간을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2017년 「솟대평론」을 창간하

여 장애인 문학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 구상솟대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160명,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은 371명, 신춘문예 12명 등 장애 문인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문학상에도 진출하는 등 성과가 있음(방귀희, 2017)
- 장애인문학의 특징은 독자들이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 예술가들에 의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다루지 않음. 그럼에도 장애로 인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이는 뛰어난 작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들이 한국문학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 필요(방귀희, 2017)
- 대부분의 장애문인들이 제도 교육의 틀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장애인 미술의 특성 및 현황

- 장애인 미술의 경우 주로 청각장애인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농미회를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1995년 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원 약 900여명)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 때문에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에 따라 구필화가나 족필화가로 나누며, 구필과 족필을 통틀어 구족화가라고 하며 2014년 현재 40여명의 구족화가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전병태, 2014)
- 엄정순 작가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비장애 예술인에 의한 예술 교육을 통해 장애 예술의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발하고 있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해온 엄정순 작가는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리들의 눈' 등 공공예술프로젝트 진행(엄정순, 2018)

● 장애인 음악의 특성 및 현황

- 장애인 음악은 청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 기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정신지체인으로 구성된 더불어합창단, 영혼의소리합창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등이 있음

● 장애인극단의 현황

- '휠'은 2017년부터 장애인 창작단막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극단'멋진 친구들', 시각장애인 극단 '춤추는 헬렌켈러', 청각장애인 극단 '난파' 등이 참여함
- 장애여성공감의 '춤추는 허리'는 여성주의의 분명한 관점을 지켜내며, 장애를 통해 정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위를 강하게 유지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및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증대

- 2016년부터 시작된 '예울림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장애문화예술교육축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
- 장애인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영화제의 상영작품 모두를 베리어프리(한글 자막 및 화면해설)로 상영할 예정
- 평창 패럴림픽에 맞춰 열린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폐막공연으로 초연된 안은미와 칸두코 댄스 컴퍼니의 '굿모닝 에브리바디'와 김보라와 마크 브루의 2인무 '공·空·Zero'로서 한국과 영국의 장애·비장애 무용수들이 협업해 만든 무용공연 2편임
- 안은미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안심땐스', 저신장장애인 무용수와 함께한 '대심땐스' 등으로 다른 인체의 미학을 탐구해온 안무가로서 "장애가 있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아름다운 차이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무용수들이 순서를 정해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면서 주제를 발전시키죠. 작품은 움직임을 엮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7]
- 아트프로젝트보라의 김보라 예술감독은 "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서로 다른 몸으로 성찰하듯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다"며 "다름 속에 존재하는 같음, 다름은 사실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되돌아봤다.[8]

7) 안은미 "굿모닝 에브리바디, 살아있는 순간 확인하세요" 뉴시스, 2018.3.16. http://ar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710.html
8) http://www.sedaily.com/NewsView/1RWZNO0639

■ 굿모닝 에브리바디와 공공제로(공·空·Zero)

-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폐막 행사로 2018년 3월,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을 개최, 예술이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
-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과 함께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기념 문화올림픽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한국과 영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진 무용 공연 2편을 아르코극장에서 개최함
- 〈굿모닝 에브리바디〉는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안은미와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영국의 무용단 칸두코 댄스 컴퍼니의 무용 신작이며, '공공제로(공·空·Zero)'는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예술공연단체 마크브루컴퍼니를 이끄는 마크 브루와 한국의 무용수 김보라가 안무하고 출연하는 신작
- 특별히 장애인 관람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는데, '굿모닝 에브리바디'는 저시력 관람객들을 위해 삼성전자가 개발한 시각보조 앱 '릴루미노'를 이용한 VR기기 관람 시스템을 실험함. '공·空·Zero'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러티브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는데, 이는 무용수 출신의 '오디오 디스크라이버' 에마 제인 맥헨리가 댄서들의 움직임을 언어로 실시간 통역하는 것을 관객이 헤드셋을 쓰고 듣는 방식임

〈그림 5〉 굿모닝 에브리바디

〈그림 6〉 공·空·Zero

(3) 소결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조사 필요

- 일반적으로 비장애 예술인의 경우 미협과 민예총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의 존재가 가능함
- 반면 장애 예술인은 장애를 가진 상태라는 점에서 협회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더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 다른 한편 장애를 가진 예술인일지라도 장애인예술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미협이나 민예총과 같은 협회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장르 기준의 새로운 접근 필요

-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은 국악, 대중예술,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함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장르 개념은 모더니즘 시기의 순수예술 개념에 준하고 있어, 21세기 혹은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는 시대에 맞지 않아 기존 장르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
- 그러나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대학교육 등의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고, 교육과 훈련에 의한 예술언어 구사를 넘어선 자생적이고 내발적 창작 동기에 따른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
- 특히 장애 예술인은 장애를 통해 비장애인과는 다른 감각과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 예술의 미학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전제할 경우, 장르적 제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장르에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화, 행위예술, 벌룬아티스트 등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범주의 폭을 넓혀가도록 함
- 다른 한편 자신의 창작 개념을 전통적인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활동, 그리고 그러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를 주도하는 창작활동의 범주도 조사할 필요 있음
-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문화적 권리 운동이나 단체 창작활동, 장애인 예술 축제 참여 등의 활동 유형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에 따른 장애 예술단체의 영역

- 해외의 경우 장애 예술단체로서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활발해지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장애 예술단체의 기준을 장애 예술인의 참여 비율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근거하여 비장애 예술인들의 장애 예술 활동을 범주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3) 장애 예술인의 정의

(1) 장애인 예술과 장애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규정

-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에 준하여 보면 장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9)]
- 그러나 장애 예술인의 경우 예술을 매개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장애인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예술창작을 생활의 본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비전통적인 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예술의 영역을 새롭게 넓히고 있는 장애 예술인을 기존의 범주로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비장애 예술인의 구도를 넘어서는 정의가 필요함

● 장애인 예술에 대한 정의

- 최근 문화복지 신장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통합의 역할이 강조되어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 활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술 활동으로 보는 장애인 예술이라는 용어로 사용됨
- 장애인 예술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로 한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전병태, 2014)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

- 장애 예술인을 전문적인 전업 작가로 규정할 때, 전문적인 작가라는 맥락에서 일반적인 비장애 예술인의 특성과 기준에 준하여 보게 됨
- 장애 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전병태, 2014)

9) 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7.11.23., 국회사무처

-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장애 예술의 예술적 의미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적 정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애 예술인이라는 직업적 맥락이나 지위와 연관된 내용이라 하겠음
-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제시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는데, 즉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와 같이 문화예술의 내용적 가치와 의미를 기술하지 않고 장르를 나열한 것과 유사한 기술 형식이라는 것임
- 그런 점에서 현재 수준에서 장애 예술인의 정의는 다분히 기능적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장 무난한 기술로 간주됨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자격 기준

- 한국장애예술인총람(2010)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 활동을 3년 이상'한 경우로 규정함. 그 가운데 문학 부문은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책을 출간한 경력이 있으며 『솟대문학』을 통해 추천 받은 사람이며, 미술 부문은 미술상 수상경력과 전시회 경력이 있으며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으로 한정함
- 다른 한편 2018년 2월부터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에서는 장애예술인수첩을 제작하고 있음. 이는 2017년 11월 23일 개최된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장애 예술인의 정의와 인구를 놓고 논란이 컸음을 감안하면서 법률 제정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 근거 자료로 '장애예술인수첩'을 제작하게 된 것임
- 장애예술인수첩은 개인 300명, 단체 100곳을 수록할 예정이며, 게재 조건은 개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예술인, 경력 3년 이상,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10회 이상. 단체는 장애 예술인 단원의 50% 이상, 경력 2년 이상, 작품 발표 10회 이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수첩 게재 대상자가 결정됨

(2) 전문가 면담에 따른 쟁점

● 장애 예술인의 정의나 기준과 관련하여 전문가 면담을 통해 쟁점을 도출

- 면담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담의 주요 요지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별로 정리함. 즉 장애 예술의 정의 및 미학적 가치와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 교육의 필요성, 장애 예술인의 정의,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의 맥락, 장애 예술인의 장애 정체성과 장애 예술 등

회차	일시 및 방법 (2018)	면담자	면담 요지
1차	3. 19 14:30-16:30 (대면 인터뷰)	A(우리들의눈 갤러리 디렉터, 시각예술가)	장애 예술의 정의 및 미학, 시각장애인의 예술활동, 장애예술교육
2차	3. 26 14:00-17:00 (대면 인터뷰)	B(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입주 작가 집담회	장애 예술의 현황, 장애 예술인의 정의, 입주 작가 특성, 장애 예술인의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정책
3차	3. 27 17:30-18:30 (대면 인터뷰)	C(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영국 장애인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 구도와 예술활동 현황
4차	3. 29 (서면 자문)	D(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장애 예술의 정의, 장애 예술의 분류와 전반적 연구의 방향
5차	4. 4 14:00-15:30 (대면 인터뷰)	E(장애인문화예술 '판' 대표)	장애 예술인의 장애 정체성, 장애 예술인 현황 및 정책 방향

● 장애 예술의 정의 및 미학적 가치

- "장애를 '결핍'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도구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중이 뒤따르지만, '결핍'의 경우에는 열등이 뒤따라온다. 이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예술이고, 사실 예술가도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다."
- "비장애 시각예술가로서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접근했다. 놀랍게도 예술이라는 것이 몸에 대한 재인식이자 보는 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라 할 때, 장애가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내게 장애예술은 현대예술이다."

● 장애인 대상 전문 예술교육의 필요성

- "장애인에게 정규 교육을 받게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 유형이나 중증 정도에 따라 활동 보조 도구나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도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이 정규 예술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취미로 배우다가 작가가 되겠다고 필요한 교육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 단체에서 작가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다. 일반인으로 지내다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 정규 제도 교육이 아닌 형태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장애인이 예술을 경험으로 접하게 하는 교육부터 중요하다고 본다. 창작의 경험을 가져야 예술가로서의 길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극단에서는 1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될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스스로 배우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 예술인의 정의

- "이제까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를 장애 예술인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술을 하는 것을 따로 '장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시혜적)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 같다. 그냥 예술을 할 뿐이다."
- "본인이 스스로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 예술인의 정의에 있어 개념적 정의와 행정적 정의로 볼 수 있다. 개념적 정의로는 예술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 요소 자체가 새로운 예술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 행정적 정의는 행정적 편의를 고려하게 될 경우, 장애 요소를 전제로 한 예술 활동이라는 것으로 기능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장애 예술인의 지원정책의 맥락

- "내 생각으로는 장애인 가운데서 다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사회 속에서 섞이기도 비교적 어렵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 “전문 장애 예술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비장애와 장애가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환경적 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여러 풀뿌리 장애 예술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동향으로 장애 예술단체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것이고, 단체들의 예술적 역량도 높아지리라 믿는다.”

● 장애 예술인의 장애 정체성과 예술

- “장애 예술인이 스스로 장애인임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술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장애인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분류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장애 정체성을 예술 창작의 입장에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3) 소결

● 장애 예술인의 정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 참조에 따른 시사점

- 장애 예술인은 ‘장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장애인 예술로 규정)와 달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갖는 경우로 통칭함
- 이에 따라 장애 예술인은 비장애 예술인에 준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며, 또 자격에 있어서도 제도적 관점으로 활동 경력을 제시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정의 외에 개념적 정의를 제안한 의견을 참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장애를 통한 예술적 면모와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리라 봄

Ⅲ

장애 예술 연구에 따른 장애 예술인 개념 및 정의

1. 장애 예술 연구의 흐름
2. 영국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3. 포용적 예술의 세계적 동향
4. 장애 예술인의 개념 정의(안)

Ⅲ. 장애 예술 연구에 따른 장애 예술인 개념 및 정의

1. 장애 예술 연구의 흐름[10)]

1) 장애에 대한 학문적 연구 모델

● 문화예술 작품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문학, 영화, 공연 등에서 '일탈자'(deviant) 혹은 '외부인'(outsider)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잠재적인 창의력에 초점을 맞추어 옴
- 최근에는 예술에서 장애 재현을 중심으로 윤리적이고도 예술적인 복합적인 이슈가 부각됨

● '타자성'(otherness)과 기형화 문화 담론

- 주류 예술의 오랜 전통 속에서 장애는 타자성을 구현한 메타포로서 차이를 드러내는 맥락에서 재현됨(Sontag, 1978; Davis, 1995)
- 1800년대 중반 P.T.버넘(Burnum)의 서커스 쇼에서 보여준 '기형인들'의 공연이나 미국의 사진작가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가 코니 아일랜드(Coney Island)[11)]에서 사이드쇼(서커스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따로 보여주는 소규모 공연) 공연자를 찍은 사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형적인 사람들의 쇼(freak show)라는 미학이 지속됨
- 이론가 로즈마리 갈랑 톰슨(Rosemary Garland-Thomson)은 장애를 가진 신체는 반복적으로 '기형화'(enfreakment) 문화 담론 내에서 논의되어왔다고 주장함(Garland-Thomson, 1997)

10) 이 절의 내용은 호주의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Arts Access Victoria, 이하 AAV)가 멜번 대학과 공동연구로 진행한 보고서(2015)의 일부(pp.16-19)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술한 것임
Austin, S., Brophy, C. Temle A., MacDowall, L., Paterson, E. and Roberts, W.(2015),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Literature Review,* Melbourne: Arts Access Victoria

11) 미국 뉴욕 시 브루클린 구의 남쪽 해안에 있는 위락 지구.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는 토끼가 많아 지명은 이와 관련하여 붙여졌는데 '토끼의 섬'이라는 뜻이다. 1840년대에 피서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20년 지하철이 맨해튼에서 연장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해수욕장, 공원, 유원지, 요트하버 등이 있다.(세계지명 유래 사전, 2006. 성지문화사)

● 장애에 대한 역사적인 재현에 대한 반발로서의 장애 예술 운동

- 장애를 가진 신체에 대한 역사적 재현은 '타자성'에 내포된 이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형식이었으며, 이는 장애에 대한 계몽주의적 의학적 모델을 강화해 옴
- 그리고 이는 영국에서 1970년대 일어난 장애 행동주의 운동(disability activism movement)이 출발하는 계기가 됨
- 이처럼 예술에서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혹은 규범화된 재현에 대항하여 펼쳐진 장애 예술운동(the Disablility Arts Movement)은, 비장애인이 장애를 연기하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장애인 문화와 장애인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것임을 빗대어 'disability drag'(장애를 질질 끌어내기) 또는 'crip drag'(불구를 억지로 가장하기)와 같은 용어를 만들어 냄
- 영화이론가 스콧 조던 헤리스(Scott Jordan Harris)는, 실제로 비장애 배우가 장애인 역을 맡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장애인이 모든 연기를 맡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면서 장애인 역을 장애인이 맡을 것을 주장함

  비장애 배우는 비장애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 배우는 그럴 수 없다. 만일 장애 배우가 장애인 역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떠한 역할도 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영화로부터 배제되는 셈이 된다(Harris, 2014)

2) 미학적 전략으로서 장애인의 신체(disabled body)

●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 학자들의 장애연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신체와 장애에 대한 재현에서 잠재된 힘을 드러내는 연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몸 이론은 신체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드러내며 전복하는 담론의 장으로 위상을 부여해 왔음(Grosz, 1994)
- 또한 장애를 가진 신체를 잠재적으로 전복적이고 규범을 벗어나는 장소로서,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가 문제 제기되면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지적함(Sandahl and Auslander, 2005)

● 정치적 미학적 전략으로서의 신체

- 페트라 쿠퍼(Petra Kuppers)는 장애를 가진 신체는 정치적 미학적 전략으로서 "움직임에 새로운 세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전복적이고 사적인 전략이 된다고 봄(Kuppers in Auslander and Sandahl(eds.), 2003; 43, 60).

- 그녀는 장애를 가진 신체가 공공공간에서의 비가시성, 그리고 초가시성과 즉각적인 범주화라는 두 개의 문화적 의미와 타협하여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함
- 또한 “장애를 가진 신체는 자연스럽게 장애에 관한 것이다”라고 관객들이 가정하는 태도를 문제 삼음(Kuppers, 2003: 26)
- 이에 대해 쿠퍼스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몸을 재탈환하여 공연 현장의 새로운 형식 안에서 그들의 의미를 재가동해야 한다”(Kuppers, 2003: 11)고 주장함
- 장애는 움직임에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는 초월적(transgressive)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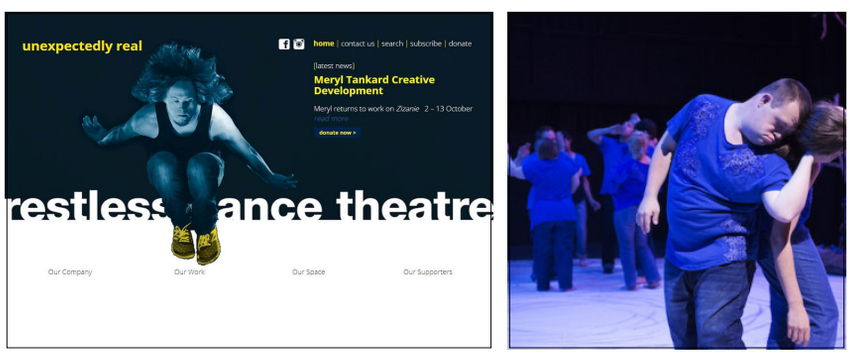
● 안나 히키-무디(Anna Hickey-Moody)의 쟁점

- 그녀의 저서 *Unimaginable Bodies: Intellectual Disability, Performance and Becomings* 에서는 호주 애들레이드의 레스트리스 무용극단(Restless Dance Theatre)의 작품과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정책 및 철학, 춤을 다루고 있음
- 그녀는 다문화와 다문화적 환경에서 장애와 장애를 가진 신체에 대한 생각을 맥락화함. 이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몸에 관한 통상적인 이해에 미학적·윤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적이고 윤리적 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의 몸, disabled body)는 권력 구조에 도전하여 감각을 구현하고 영향을 미치며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봄(Hickey-Moody, 2009).
- 몸과 지적 장애 공연자의 예술적 생성이 갖는 속성을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비장애, 지적 장애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을 넘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끊임없이...지적 장애인이 공연을 하는 동안 그는 단일한 개인의 결함으로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공포일 수 있으나, 공포를 밀어내려는 용기이며, 무용수로부터 뻗어 나오는 잠재된 힘일 수 있다. 공포를 떨어내는 것, 그것이 혁명의 기운일 수 있다.(Hickey-Moody, 2009: 55)
- 레스트리스의 작업은 지적 장애가 개인의 개별적인 결점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임

■ Restless Dance Theatre

- 1991년에 창립된 레스트리스 무용극단은 남호주의 주도 애들레이드에 소재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협업을 취하는 포용적 무용극단으로 알려져 있음
- 비전: 레스트리스는 호주 무용을 활성화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다양화한다.
  미션: 장애를 통해 협업을 주도하고 포용적이며 정보를 만들어내는 무용극을 국내외에서 누구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작하고 발표한다.
- 다양한 관객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무용극을 공연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함
- 본래 단체명은 레스트리스 무용단(Restless Dance Company)이었으나 2008년 지금의 무용극단으로 변경함



〈그림 7〉 Restless Dance Theatre

● 쿠퍼, 히키-무디, 산달과 아우스랜더의 연구에 따른 공통점

- 이들 모두는 장애인의 신체가 장애의 사회적·문화적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잠재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연예술 연구와 춤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함
- 하지만 주요 연구 대상이 장애인의 신체로 인한 창의적인 잠재력과 미학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무용 등 공연 분야에서 주된 논의가 주어졌으며, 반면 시각예술이나 음악, 글쓰기에서는 아직 많이 진전되지 못함

3)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

● 아웃사이더 아트 용어의 사용

- 아웃사이더 아트는 켄트대학교의 로저 카디널(Roger Cardinal)의 1972년에 출간된 저서명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 1998년 인터뷰에서 원래 책 제목은 Art Brut(아르 브뤼)였으나 출판사에 의해 영어 제목 아웃사이더 아트로 정해졌다고 설명함(Volkersz and Cardinal, 1998: 24)
- '아르 브뤼'(raw art)는 1945년 장 뒤뷔페(Jean Dubuffet)가 주류 아카데미나 제도화된 회화적 전통이나 관습과 무관한 형식을 일컫는데 사용한 말로, 좀 더 직관적이고 즉각적이며 환영적인 작업을 지칭함
- 디뷔페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작업의 독특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유래함(Murrell, 2005)
- 그럼에도 장애인 예술가들을 아웃사이더 아트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지적이나 소통 장애, 정신적 질병이 있어 작품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예술가들을 지칭함

● '아르 브뤼'나 '아웃사이더 아트'에 대한 다양한 논의

-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웃사이더 아트'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나,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됨
- 카디널(2009)은 '아르 브뤼'는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모든 학교예술 교육과도 상관없는, 그리고 전통을 의식하지 않거나 선험적 구조를 갖는 것이어서 돈을 번다거나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창작 유형"이라고 기술함(Cardinal, 2009)
- Tate Britain은 '아웃사이더 아트'를 "어떠한 사조나 학교에도 속하지 않고, 주로 독학한 예술가들로 다른 예술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신의 심리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정의한 바 있음(Tate Britain, 2005).
- 시드니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곡가 휴 니콜(Hugh Nichols)은 '아웃사이더 아트'를 '수상쩍은 영역'로 바라봄. 이 영역에 포함된 예술가들은 "상업적으로 전문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박탈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아웃사이더 아트를 비규범적 문화생산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관점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라는 것임(Nichols, 2012: 29)

● 아웃사이더 아트의 주류 예술계에 대한 논쟁

- 호주의 'Arts Project Australia'는 가장 오래된 장애인 시각예술 스튜디오로서, 2014년 멜번 대학과 〈현대 아웃사이더 아트: 전지구적 맥락〉(Contemporary Outsider Art: The global context)이라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장애인 시각 예술 스튜디오의 기능을 주제로 진행함
- 콜린 로즈(Colin Rhodes)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예술 스튜디오의 활동이 현대미술 바깥에 존재함에 따라, 장애 예술인들이 기존 예술가들의 예술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함
- 이들이 실제로 예술에 대한 토론, 다른 예술가들과의 토론이나 협업 등을 할 수 없어 성장하지 못한다고 진단함(Rhodes, 2008).
- 따라서 로즈는 장애인 예술스튜디오들이 새로운 아카데미로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하고, 다른 예술가들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 그러나 니콜은 다시 로즈의 견해, 즉 장애 예술인을 단순히 전문예술가의 또다른 형태로 바라보는 견해에 반박하며, 오히려 전문적인 아웃사이더 예술가라는 말이 용어상으로 모순된다는 점에 주목함(Nichols, 2012: 29)

■ Contemporary Outsider Art: The Global Context 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2014. 10.23-26, 멜번대학교
- 주제: 아웃사이더 아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의
- 배경: 아웃사이더 아트를 주제로 한 2103년 베니스 비엔날레(총감독 Massimiliano Gioni)의 성공은 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으로 아웃사이더 예술이 대두되고 있음을 입증
- Arts Enables, Creativity Explored, NIAD Arts Center(이하 미국), Project Ability(영국), Nanjing Outsider Art(중국), Studio ARTes in New South Wales, Arts Project Australia, NEAMI's Splash in Victoria(이하 호주) 등 참여
- 데이비드 로마스(David Lomas)는 1900년대 초기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과 혼종되면서 위대한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수 있었던 경험을 논하면서, 아웃사이더 아트의 현재적 의미를 논의함
- 이에 대해 스튜디오와 예술가와 동떨어져있는 이론가와 학자들, 서로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 콜린 로즈는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아웃사이더 아티스트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

〈그림 8〉 Arts Project Australia와 연계한 '아웃사이더 아트 컨퍼런스'와 스튜디오 장면

2. 영국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1)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

- 2006년 체결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을 자선, 의료적 치료나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활동적인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자유와 동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함
-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기능적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의학적 문제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력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제도화된 차별 등으로 나타나는'사회의 문제'로 인식함

● '사회적' 모델의 의미

- 장애의 문제는 의료적 조건에서 발생하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장벽은 사회적 참여에서 나타나며, 장애인의 이러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한 사회적 책임과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봄
- 장애는 의학적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 혹은 제도가 장애인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억압, 스테레오 타입 등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들에 대해 잘못된 추측과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임(Consilium Research & Consultancy, 2013)

● 장애인 인권운동의 의미

- 장애인 인권운동은 기본적으로 권리 운동으로, 장벽제거와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Shakespeare and Watson, 2002)
- 장애인을 사회적 모델로 인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의학적 모델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 남아있음
- 사회적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손상(impairment)은 여전히 의학적으로 유효한 개념이며, 특히 사회적인 참여가 보장된다고 해도 개별적인 장애는 남아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을 주류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함

■ 장애인에 대한 정의

1)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

-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12)]

2) 호주 통계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나 제약, 손상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스스로 보고한 자[13)]를 말함
- 이 때 장애란 의학적·사회적 장애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ICF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과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a Disability, 2006)의 정의를 참조
- ICFDH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손상, 활동에서의 한계, 참가에서의 제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과 각 개인의 맥락적 요인들(환경적·개인적 요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

3)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체적 장애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14)]

2) 문화다양성 구도에 따른 장애 예술

●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관점

- 문화다양성은 인류사회의 현상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뜻하는 동시에 사회 내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적성향, 장애, 언어,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동등함을 인정하는 것임(Obuljen, 2008; 천정웅 외, 2015)
-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때 소수집단의 상호 공존이 가능함
- 문화적 권리란 문화적 삶을 향유할 권리로 자유로운 문화적·예술적 표현이 가능한 권리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예술창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향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주체적 권리로 규정함(정연백 외, 2014)

12) 국가인권위원회,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1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 영국예술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문화다양성

- 평등법 제정에 따라 범사회적인 차별금지를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으로 전개, 실제로 다양성 실천이 영국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전제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을 미션으로 상정, 이는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고 이를 내재하는 예술 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드러남
- '모두를 위한 예술'에는 다양성(diversity)과 평등(equality)을 핵심개념으로 놓고, 모든 이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창의성을 끌어낸다**는 관점에 따라, 다양성은 예술적 수월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다양성(Creative diversity), 고용 평등에 기반한 노동현장에서의 다양성(Workforce diversity), 장애가 있는 관객이나 그렇지 않은 관객 모두를 포괄하는 관객 또는 시장 다양성(Audience or market diversity) 등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함[15)]
- 다양성은 인종, 민족, 신념, 장애, 연령, 성, 성적정체성,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제도적 장애 등 문화예술 참여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함
- 결국 다양성은 평등(Equality)과 인정(Recognition), 새로운 비전과 연동될 때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관점 역시 이에 따른 기준을 취하고 있음
- 평등(Equality)이란 창조 산업 종사자의 80%가 폐쇄적 네트워크에 의해 취업한다는 사실을 볼 때 장애 등의 요소를 가진 소수 집단은 창조산업에 종사하기 힘들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인정(Recognition)은 예술계 내의 차별적 구조로 인해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같이 특정한 집단의 작품들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외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됨
- 뛰어난 예술가가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가 준 어려움이 아니라, 장애가 그들의 작업에 예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접근, 혹은 사회적 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작가 발굴 등이 필요함을 인식

15) https://www.artscouncil.org.uk/how-we-make-impact/diversity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년 제정)에 근거한 다양성
- 영국은 1970년의 남녀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과 1975년 성차별금지법(The Sex Discrimination Act), 1976년의 인종차별금지법(The Race Relations Act) 등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기준에서 차별 금지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시행
- 장애인고용법(The Disabled Persons(Employment) Act, 1944)은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비율 할당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을 제정하게 됨
- 2000년 11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고용평등기본지침'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연령, 장애, 성적 지향성,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영국도 이를 받아들임
- 2010년 성, 인종, 민족, 국가, 성적 지향성, 종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Equality act로 통합

●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 실천〉(Creative Case for Diversity)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다양성 평가를 위한 틀을 마련하여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한 기관과 사업들을 다양성과 평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평가함
- 특히 기관의 고용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기관에 반영될 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실행됨
- NPO(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MPM(Major Partner Museums), 예술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양성을 2015년부터 매년 측정하고 있음
- 더불어 흑인 및 소수인종, 영국인이 아닌 백인, 장애인, 여성 등이 기관 종사자, 고위직이나 이사회 진출 등에 얼마나 진출했는지 조사함으로써 다양성 실천을 측정
- 2016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45%의 기관이 좋음(good)으로 평가됨
- 기금 수혜자 중 흑인, 소수인종, 장애인, 여성의 비율 및 기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흑인 및 소수인종이 11%,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이 아닌 다른 백인이 5%, 장애인 5%로 전년도에 비해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고, 소수 집단의 지원 자 대비 기금 수혜 비율도 모두 증가함
- 문화예술기관 종사자의 경우 흑인, 소수민족, 장애인 등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고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가능인구 중 장애인은 20%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기관에는 4%, 예술위원회는 6%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국공립기관은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함

■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 실천 평가' 세부사항

- Artistic programme (예술 프로그램에 다양성 개념 포함 여부)
- Talent development (다양한 예술가와 단체의 재능 개발과 역량 강화 지원 여부)
- Addressing barriers to artistic involvement (다양한 범주의 사람을 참여시키는지 여부)
- Resourcing and monitoring (다양한 작품 보급 위해 자원 관리와 자체 점검 여부)
- Self-evaluation (자기 평가와 지식 공유, 내적, 외적 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 여부)
- Sector leadership (문화예술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지, 여러 영역을 리드하고 참여 독려)

– 위의 6가지 항목을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45%가 좋음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히 장애와 관련한 사항으로 적용 시, 장애 예술의 예술적 수월성을 진작하고, 장애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 예술이 비장애 예술가와의 협업이나 예술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고무하게 되며, 장애 예술 발전을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기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함

● 장애인 예술과 문화다양성

- 장애인을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생산자, 소비자, 혹은 프로슈머로서 문화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러나 장애인에게 문화다양성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주류'와 '동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다른 실천 예술가들과 함께 폭 넓은 맥락에서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Brett, 2011)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DaDa Disability and Deaf Art는 1984년 설립된 장애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격년제 장애인 예술제 등을 실시함
- 장애인 예술을 자선이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예술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이라는 것 외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짐을 인식할 필요, 다른 소수집단들과 협업을 시도함
- 데시벨 공연예술 쇼케이스 (decibel Performing Arts Showcase)는 2009년 시작된 장애인 예술제로 2011년에는 다양한 장르와 함께, 흑인, 소수민족 등을 포괄하는 예술제로 발전하고 있음

■ 장애 내의 다양성

장애인은 다양하다. 그들은 결코 장애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성이고 남성이며, 흑인이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으며, 레즈비언 · 게이 · 바이섹슈얼 · 트렌스젠더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노인이고 아동이며 청(소)년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며,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이고, 자원 활동가이며,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주며, 사회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기여한다.

'장애평등계획'의 맥락에서 장애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그것은 누군가를 특정한 역할이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거나 그 안에 가두려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의미 있는 인구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장애인이 겪게 되는 장벽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장애인을 위해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장애인에게 좀 더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면, 예술이 모든 사람에게 더욱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모두를 위한 예술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문화적 평등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많은 농인과 장애인에게 있어 농과 장애라는 용어가 문화적 정체성과 경험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는 농인과 장애인이 예술을 창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방식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전통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예를 들자면 소닉아트(sonic art)를 하는 농예술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시각예술을 하는 시각장애인들 역시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할은 장애인과 농인이 어떻게 혹은 무엇을 창조해야 한다거나 참여해야 한다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영받고 포용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출처: 〈장애평등계획 2010-2013〉(Disability Equality Scheme 2010-2013),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3) 포용적 예술의 개념

●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개념의 탄생

- 2006년 신노동당(New Labour)의 '창의적 파트너십 정책' 기조에 따라 포용적 예술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문화 활동에서의 경제적 중요성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의제에 기반한 결과임(Hall and Thomson, 2007: 13)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론 연구 및 뛰어난 예술적 수월성을 갖는 예술가 및 단체를 발굴하게 됨
- 이에 따라 포용적 예술은 학교 예술교육에서 사회적 포용을 옹호하고, 사회 비판의 형태로 사용하기 보다는 모두를 위한 문화 향유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됨

● 포용적 예술 개념의 적용

- 포용적 예술은 기본적으로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창의적 활동과 미학적 전략의 범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영역을 의미함
- 또한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장애 예술의 언어 자체를 존중하고, 장애 정체성과 장애인의 삶을 반영하는 예술적 성취로서의 의미를 부각함
- 영국에서 최고의 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장애 예술가와 함께 작업을 하는 공연단체, 일테면 치킨 셰드 시어터(Chicken Shed Theatre)[16], 칸두코(Candoco), 렁하 시어터(Lung Ha Theatre) 등에게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태도로서 영향을 미쳤음
- 동시에 포용적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관들은 장애가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용이성을 위한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공연 시 음향이나 조명 조절 등) 운영하도록 함
- 박물관에서는 장애유형별 관람객의 작품 감상의 어려운 요인이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해 소장품을 복제하여 만질 수 있도록 하며, 학습 장애를 가진 관람객을 위한 작품 설명을 달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앨리스 폭스(Alice Fox)의 포용적 예술 개념 및 활동[17]

- 앨리스 폭스 교수는 브라이튼(Brighton) 대학에 포용적 예술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장애 예술 활동을 위해 협업을 기획, 운영하는 전문예술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특별히 학습장애 시각예술인들이 작업하는 로켓 아티스츠 스튜디오(Rocket Artists Studio)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수업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
- 특히 폭스교수는 영국에서는 '포용적 예술 활동'을 학습장애자와의 창의적 협업 모델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 폭스교수는 한나 맥퍼슨(Hannah Macpherson)과 함께 2015년에 포용적 예술의 이해를 위한 〈포용적 예술의 이론과 실제, 비판적 마니페스토〉(Inclusive Arts Practice and

16)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치로 '모든 이'에 의한 예술을 지향하는 연극단체로서 '모든 이가 참여할 때 가장 풍요로운 결실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특별히 '포용적 연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다양한 형태와 프로그램으로 실천함
https://www.chickenshed.org.uk/inclusive-theatre

17) Fox and Macpherson(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의 내용을 요약함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를 발간함

- 포용적 예술은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으로서 '모든 예술가들이 상호간 학습이 가능한 쌍방형 창의적 교류'로 의미 있고, 참여한 비장애 예술인 역시 '가치 있는 도우미'의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제도적 의미의 '전문'예술가로서의 개념을 털어냄으로써 학습장애 예술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수행함
- 포용적 예술은 현대예술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협업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 후반 루시 리파드(Lucy Lippard)가 사용한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와 유사한 지점을 갖는다고 봄
- 그러나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과 일상을 반영하고 투사하는 것이 예술 창작의 주요 계기가 됨. 이에 따라 포용적 예술은 학습장애인들의 고된 현실을 재규정하고, 그에 따라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충격과 괴기스러움, 혼란과 혐오스러움의 정서도 포용적 예술에서 담아낼 미적 요소로 간주함
- 포용적 예술이 협력적 과정을 중시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협력자(비장애 예술인, 매개 인력 등)과 관객과의 관계 형성을 주요 요소로 다루게 됨. 특히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에 따라 배우는 관객과 수동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결과적으로 포용적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 아니라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을 중시함에 따라 그에 따른 다양한 효과 연구가 가능함

● 기존의 장애 예술과 포용적 예술의 차이점

- 포용적 예술은 아웃사이더 아트와 일정하게 다른 지점을 갖는데, 아웃사이더 아트가 제도적 예술세계를 의식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여김에 따라 예술가를 신화적 측면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실제로 포용적 예술은 기본적으로 작품 생산자의 전 인류애, 다양한 배경의 사람뿐 아니라 현대미술 세계와의 협력 및 창의적 교류와 잠재력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아웃사이더 아트와 다르다는 것임(Fox & Macpherson, 2015: 11)
- 또한 포용적 예술은 예술치료(Art Therapy)와도 다른데, 무엇보다도 포용적 예술의 주된 동기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창의적 교류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예술치료는 예술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작품 결과를 대중에게 전시할 목적을 주된 의도로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용적 예술과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The Rocket Artist Group

- 2002년 창립.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후원을 받으며, 브라이튼 소재 피닉스 예술가 스튜디오에 있음
- 학습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숙련된 예술가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도움으로 고도의 예술적 수월성을 지닌 예술가로 양성되는 것을 목표로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브라이튼 대학교의 앨리스 폭스 교수와 석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스텝진이 작업을 돕고 있음
- 1년에 12주 단위의 4개 학기로 운영하며, 스튜디오 입주자들은 5명의 비장애 예술가와 2명의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게 되고, 12주에 660파운드(약 99만원)이며, 강좌당 50파운드(약 7만4천원)를 선지불해야 함
-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과정 교육, 새로운 창작 기술 습득, 재료에 대한 이해, 전시회 개최 방법, 작품 판매 기술 등으로 구성됨
- 특히 2008년 이후 테이트모던 미술관과의 협업 하에 퍼포먼스와 전시를 비롯한 포용적 예술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홈페이지는 https://www.rocketartists.co.uk/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스튜디오 활동과 앨릭스 폭스 교수의 포용적 예술 개념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uKgnfbfs0Pk

https://www.youtube.com/watch?v=x7E1HSK7DbA

〈그림 9〉 로켓 아티스트 그룹의 창작 활동

■ Rocket Artists와 브라이튼 대학의 Tate Modern 미술관에서의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

• 2008년 퍼포먼스〈Smudged at Tate Modern〉(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얼룩 그리기)

- Rocket Artists와 Corali Dance Company, 그리고 브라이튼 대학의 폭스 교수 및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퍼포먼스
- 얼룩 그리기 프로젝트는 시각예술가들의 모임인 로켓 아티스츠들이 코럴리 댄스 그룹으로부터 퍼포먼스 기술을 익히면서 진행되었고, 얼룩 그리기의 소재는 테이트 모던의 소장품을 매개로 이루어졌음. 이 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퍼포먼스를 새로운 예술언어로 알게 되면서 그들만의 표현을 진행함에 따라 표현 영역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됨

〈그림 10〉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얼룩 그리기

• 2015년 퍼포먼스(6월 1일 테이트 모던 미술관 6층 East Room)

- 브리튼 대학의 폭스 교수와 한나 맥퍼슨(Hannah Macpherson)박사가 주도한 『포용적 예술, 이론과 실제: 비평적 마니페스토』(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 출간을 계기로 진행된 퍼포먼스

〈그림 11〉 테이트 모던 미술관 퍼포먼스

• Tate Exchange 프로그램에 따른 브라이튼 대학의 워크숍 2017년-2018년

- 2017년에는 5일간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포용적 예술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감
- 2018년 프로그램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창의성,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하며, 특히 시각예술의 확장된 영역의 기술을 익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진과 퍼포먼스, 빛과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비디오아트, 3D 모델링 등의 영역에서 재료와 물질의 의미를 새겨보는 작업으로 진행됨

4) 포용적 예술계(Inclusive Arts Field)에 대한 정의[18)]

● 포용적 예술계의 구성

- 작품의 창작과 제작 모델이나 틀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 예술과 장애(arts and disability),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장애인 예술가(artists with disability)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짐

● 예술과 장애(arts and disability)

- 예술과 장애는 보통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와의 협업을 일컬을 때 사용됨
- 영국에서는 주로 학습 장애인과 전문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작업을 일컫는 것으로(Perring, 2005), 즉흥극이나 참가자들이 함께 만드는 형태가 많으며, 감독이 원고나 드라마투르기(dramaturgie)[19)]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호주의 대부분 장애인 예술 단체들이 이 분류에 속하는데, 이들 중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Real Time[20)] 등에서 예술과 장애 관련 단체나 장애인 예술가들이 주류 예술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평적으로 다루는 등 미학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 장애 예술은 장애인 예술가가 장애의 경험을 다룬 예술을 말함
- 장애 예술과 장애인 정책의 관계는 쌍방향의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장애 예술은 장애인 정책에 의해 가능해진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장애 예술이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줌.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간에 공통된 문화를 인식하고, 나아가 장애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Sutherland, 1997)
- 장애 예술은 장애가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미학적으로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장애인의 시민권 운동과 장애인 문화와 장애인 커뮤니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하며, 나아가 장애 예술을 새로운 예술형식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Sandahl, 2008)

---

18) 이 절의 내용은 Austin et al.(2015) 일부(pp.11-14)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술한 것임
19) 희곡을 공연화하는 과정, 방법 및 기법을 말하며, 희곡에 대한 연출자의 해석과 구성, 연출 등의 주관적 과정을 포함함
20) *Real Time*은 호주의 컨템포러리 예술을 다룬 비평지

●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

- 장애 예술운동은 주류적이거나 미학적인 작업이 아니라, 아방가르드적이거나 주변적이고 독립적인 맥락에서 정치적인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영국의 장애 예술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에서 시작한 반면, 호주는 커뮤니티 예술을 넘어서 예술적 작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에서 장애인 예술이 발전했으며, 만약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측면만 본다면 장애 예술이라고 할 수 없음(Hambroo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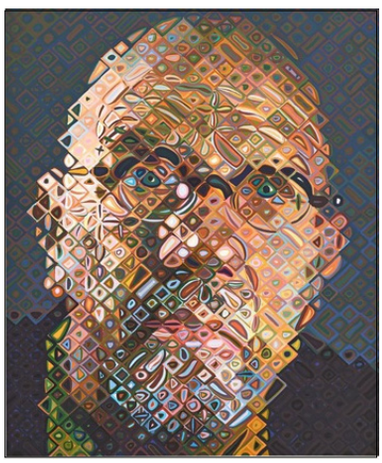
● 장애인 예술가(artists with disability)

-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업은 장애인에 관련된 예술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예술가는 주류 예술계와 장애인 예술계를 포괄하여 활동함
-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 UK), 처크 클로즈(Chuck Close, US), 제인 트렌고브(Jane Trengove, Australia)는 현대미술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시각 예술가들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작품이 젠더, 성과 권력 등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련되며 장애만을 다루지는 않음
- 터너상 후보에 오른 잉카 쇼니바레는 장애인 예술가이자 나이지리아 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식민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를 많이 다루며, 그의 장애로 인해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 작업함.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장애인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인정하나,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이며 육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함(Mullan, 2008)

〈그림 12〉 쇼니바레, 〈How to Blow Up Two Heads at Once〉(2006)

〈그림 13〉 쇼니바레의 아틀리에 전경

- 처크 클로즈는 환상이나 극사실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태와 장식적 양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 그의 작업은 명백히 장애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의 장애가 창조적 과정과 초상화 작업에 영향을 줌(The Art Story, n.d.)



〈그림 14〉 처크 클로즈 〈Self-Portrait〉(2017)

〈그림 15〉 전시장의 처크 클로즈

- 제인 트렌고브는 사회정치적 논쟁과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의 권력관계 등에 대한 작업을 주로 하며, 그녀의 장애가 그녀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좀 더 강렬하게 관찰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함[21]. 장애로 인한 한계 때문에 그녀의 스타일이나 예술적 형식이 변화하면서 이를 예술적으로 발전시킴

〈그림 16〉 제인 트렌고브〈E/Sensual Fragments series〉(1993)

〈그림 17〉 전시장의 제인 트렌고브

21) http://www.suttongallery.com.au/artists/artistprofile.php?id=31

● 포용적 예술계 내에서의 창의적이고 미학적 전략

- 페링(Perring, 2005)은 학습장애자와의 협업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포용적 예술을 주류 예술담론에서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함
- Normalising(정상화 혹은 주류화): 장애인 예술가들을 주류예술계의 작품 프로덕션과 담론의 대상으로 다룸. 예술 플랫폼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대중적인 미학적 관점과 공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예술의 규범을 포함함
- Post-therapeutic(포스트 예술치료): 치료적 관점에서 개인적 표현이나 사회적 포용 의제를 예술적 방식으로 소화함.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적 수월성과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Countercultural(반문화운동): 주류 예술이나 미학적 관점,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장애가 있는 신체에 대한 수준 높은 과감한 표현, 소외의 문제 등을 담은 작품들을 의미함. 과거 서커스나 프릭쇼 등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체를 체험하고 바라봄에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든 시도를 포함함
- 페링의 'normalising'은 정치적·미학적 전략으로 장애를 가진 신체를 정의한 페트라 쿠퍼의 개념과 유사함. 즉 장애를 가진 신체가 아니라 'normalised'된 신체(정상적인 신체)로서, 그것에 잠재된 전복적 요소는 '타자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러함

3. 포용적 예술의 세계적 동향

1) 영국

● 영국 장애인 예술의 발전사

- 초창기 영국의 장애인 예술은 건강이나 치료가 목적인 예술 활동과 예술 요법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 1970년대부터 장애인들도 워크숍에서 창작자로서, 공연예술에서 예술 지도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1977년 셰이프(Shape), 1980년 그레이아이(Graeae), 1987년 하트 엔소울(Heart 'n' Soul), 1991년 칸두코(Candoco) 설립- 장애 예술인들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서, 참여자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평등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연관
-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따라 극장과 미술관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 현재 시행 중인 영국 평등법 2010(Equalities Act)으로 장애인 평등 기조 지속
- 이를 통해 공연이나 행사에서 수화 통역이 일반화되었으며, 공연에 자막을 도입하고 오디오 가이드와 촉각 투어들이 도입되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임
- 더욱 여유 있고 편안해진 공연들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됨
- 토니 히튼(Tony Heaton)이 두 개의 휠체어로 제작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모양의 조형물 〈휠체어에서 본 영국〉(Great Britain from a Wheelchair), 학습장애 연기자 제즈 콜번(Jez Colborne)과 케빈 프링클(Kevin Pringle)이 출연하고 마인더갭(mind the gap)이 재구성한 고전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칸두코 무용단(Candoco)이 발굴한 다리 없는 댄서 데이비드 툴르(David Toole), 타냐 라아베(Tanya Raabee)의 〈후즈후〉(who'S whO?) 초상화 컬렉션 등 많은 작품과 퍼포먼스들은 문화 아이콘의 반열에 오름
- 2012 하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개막식 프로그램 언리미티드(Unlimited)를 계기로 장애인 예술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됨
- 장애인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와 층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대표성과 교차성, 권리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그림 18〉 데이비드 툴르의 2012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그림 19〉〈휠체어에서 본 영국〉

●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의 '국제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영국 문화원은 탁월한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주도 예술단체, 그리고 포용적 예술단체의 작품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2013년에 '국제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사이트를 개설
- 여기에는 단체만이 아니라 관객과 방문객으로서의 장애인도 포함되며, 특별히 유럽연합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포르투갈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2013년에는 아시아 지역과의 협업으로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for Inclusive Arts Programmes) 워크숍을 홍콩 예술경영 협회(Hong Kong Arts Administrators Association)와 함께 개최한 바 있음. 여기서는 포용적 예술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래밍, 마케팅과 재원 조성, 자원 배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 기획 등을 학습하도록 준비되었음.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예술 행정 및 경영인들이 관객과 참여자, 예술가들에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기술을 익힐 수 있음
- 또한 2018년 3월 28일에는 '우리 홍콩 재단'(Our Hong Kong Foundati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 예술의 힘을 기리며'(Celebrating the Inclusive power of arts)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22] 이 보고서는 예술과 포용에 관한 홍콩 최초의 정책적 권고 사항을 담는 것으로, 예술의 '포용적' 역할과 기능을 주목하게 함.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영국 문화원과 홍콩 측 전문가의 세미나를 개최함

22) https://www.ourhkfoundation.org.hk/en/media/34/arts-innovation/ohkf-urges-government-promote-arts-participation-tool-forge-more-inclusive

- 특별히 영국문화원이 평창 패럴림픽에 맞춰 '한영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마련한 〈굿모닝 에브리바디〉와 〈공·空·Zero〉, 언리미티드 수석 프로듀서 조 베렌트(Jo Verrent)와의 정책 간담회와 마크 브루 컴퍼니 현대 무용 워크숍 등은 포용적 예술의 개념과 문화 다양성을 실천한 경우라 할 수 있음

■ **영국문화원의 한영 장애 예술인 교류**

• 언리미티드: 장애인 예술활동과 정책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5. 6. 29, 이룸 센터
  - 언리미티드 수석 프로듀서인 조 베렌트(Jo Verrent)를 초청하여 언리미티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영국 장애인 예술활동을 소개하고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가 참여하여 한국 장애인 예술 활동 현황 소개
  - 조 베렌트는 언리미티드 수석프로듀서로서 영국 예술위원회의 북부 자문위원회 위원(Northern Advisory Panel), 노 바운더리(No Boundaries) 심포지엄(영국 예술위원회의 State of the Arts Conference)의 장애인 접근성 자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코스모폴리탄 지 선정 올해의 성공한 여성상(Woman of Achievement Award) 수상

• 마크 브루 컴퍼니(Marc Brew Company) 현대 무용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15. 11.24, 월드컬쳐오픈 W스테이지
  - 마크 브루 컴퍼니의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마크 브루(Marc Brew)를 초청
  - 마크 브루는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극장 발레단, 뉴욕 인피니티 댄스 시어터, 칸두코 댄스 컴퍼니 등과 작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깃발 전달식과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 객원 무용가, 공동 연출 및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스코틀랜드 댄스 시어터 협력연출가
  - 2001년도 빅토리아 예술상(Victorian Arts Award) 오스트레일리아 청년상을 수상, 2002년 멜버른 프린지 페스티벌 최우수 솔로 창작 작품상 수상

〈그림 20〉 마크 브루 컴퍼니 현대 무용 워크숍(출처. 서울문화재단 BLOG)

● 에픽 아츠(Epic Arts) 캄보디아

- 에픽 아츠는 영국 레스터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가 캄보디아에 자선단체 형식으로 건립한 국제 포용적 예술기관[23]
- 에픽 아츠는 2001년 중국 난닝의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춤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영국의 학교와 병원, 지역사회에 포용적 예술 프로젝트를 보급하게 됨
- 2009년 캄보디아 캄포트 타운에 에픽 아츠 캄보디아를 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의 장애인을 위한 퍼포먼스 중심의 다양한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션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청각 및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과 지역의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년 코스의 '포용적 예술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춤과 연극, 미술, 영화, 음악과 문해력을 배울 수 있음
- 학생들은 매년 1회에 한해 '포용적 예술 투어'에 참가하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공연 현장을 방문하고 예술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됨. 또한 1년에 네 차례 춤과 연극, 음악 공연을 위한 '에픽 아츠 쇼케이스'를 운영함으로써 작품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대중과 만나고 시장 개척에도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음

〈그림 21〉 에픽 아츠 캄보디아

23) http://epicarts.org.uk/our-history/

● 언리미티드 페스티벌(Unlimited Festival)[24]

- 현재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장애 예술인 커미셔닝 프로그램으로, 언리미티드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연계한 문화올림픽의 한 부분으로 영국 문화원과 영국예술위원회들이 모두 참여하여 만듦. 이에 총 29개의 작품이 제작 의뢰되었으며, 그 가운데 수 오스틴(Sue Austin)의 〈수중 휠체어 인스톨레이션〉[25]은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으며, 이 작품은 8백만 명이 넘는 조회 수를 얻음.
- 첫 번째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이 2012년 런던 사우스뱅크센터에서 열렸으며, 2013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전략적 다양성 기금'을 운용하여 2016년까지 지속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후 기획과 진행은 셰이프(Shape)와 아츠어드민(Artsadmin), 조 베런트가 맡게 됨
- 2012년 문화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폴 커민스(Paul Commins)는 난독증 장애를 가진 예술가로서 2014년에 "피가 휩쓴 땅과 붉은 바다(Blood Swept Lands and Seas of Red)"라는 작품을 런던 타워에 설치하여 4-5백만명의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함
- 2015년 11월에는 제스 톰(Jess Thom)의 〈비스켓나라의 백스테이지〉(Backstage in Biscuitland) 퍼포먼스를 최초로 BBC에서 상영하고, 이외의 지적 장애인의 회화작품도 소개됨. 회화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대표적 회화 이벤트인 글래스고 국제 페스티벌에 소개되면서 작품 배급의 확산을 봄과 동시에 TV 콘텐츠로서의 활용이 가능해 짐
- 2016년 축제 이후 예술위원회의 노력으로 2020년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런던만이 아니라 글래스고에서 트램웨이(Tramway)에서 동시에 열리게 됨

〈그림 22〉 오스틴의 〈수중 휠체어 인스톨레이션〉

〈그림 23〉 커민스의 〈피가 휩쓴 땅과 붉은 바다〉 설치

24) https://weareunlimited.org.uk/about-unlimited/our-history/
25) https://www.youtube.com/watch?v=6IIBTTXEt7M

■ 런던 문화올림피아드 프로젝트로서의 언리미티드(Unlimited)에 대한 평가

-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장애인 예술인과 예술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술가들 개인과 예술 분야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Rodenhurst, 2013)
- 2012년 언리미티드는 장애인 예술지원 기금을 멘토쉽, 훈련, 협동 등에 사용할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영국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에 공적 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장애인 예술을 지원하는 것의 일차적 목표가 사회적 포용만이 아니라 예술적 성취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작품 제작의 지원은 예술적 수준이 입증된 예술가들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포용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술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함
- 2012 언리미티드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현재 브라질과 카타르 등으로 순회 공연할 수 있도록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문화올림픽과 포럼에서 언리미티드를 소개함으로써 2016년 브라질 패럴림픽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그림 24〉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

〈그림 25〉 2013 리오데자네이루 문화올림픽 포럼

● 다양한 장애를 가진 관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영국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관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시도로 인해 작품 프로덕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함
- 2013년 런던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편안한 공연〉(relaxed performances)의 경우 학습장애, 다운증후군, 자폐 등을 앓고 있는 관객들을 위해 관객들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이나 음향을 이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공연 시작 전 시각적 스토리를 제공함. 현재 이 공연은 영국과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예술적으로 뛰어난 예술과 장애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극단인 그레이아이(Graeae, Gray-eye로 발음)[26]는 객의 접근을 가장 핵심에 두고, 오디오 묘사, 수화, 사운드 라이트나 영화 등을 통해 관객의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접근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

26) 1979년 설립된 그레이아이는 전문극단으로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지향함과 동시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대중적 태도와 잘못된 개념, 신화 등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둠. 극단명은 괴물, 이상한 생물체, 기이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보는 것을 사회적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 속 괴물 중 하나의 눈과 하나의 이를 공유하는 세 자매를 가리키는 이름을 따서 지음

2) 미국

- 미국에서의 '포용적 예술'
  - 미국에서 포용적 예술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하는 단체들을 포괄하는 방법론으로서 무용 분야에서 신체적 통합 활동(physical integrated practice) 혹은 통합적 무용(integrated d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때로는 '포용적 예술'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단체도 있지만, 대체로 '포용'과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을 보유함
  - 영국 문화원이 운영하는 '국제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플랫폼에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Axis Dance[27)]
  - 1987년 휠체어를 타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 하는 단체로 알려짐
  - 호주의 Restless Dance Theater, 영국의 Candoco와 같이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체들이 상징이나 안무에 있어 장애의 경험을 주로 다루는 예술을 일컫는 말로 사용함
  - 설립자겸 예술감독인 다이 메이저(Thais Mazur)는 춤의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없는 무용수들을 모아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까지 주디스 스미스(Judith Smith, 1997-2016)가 예술감독을 맡아오다가 창립 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감독을 맞이하게 됨. 그녀는 Axis의 작업에 대해, "우리는 춤이 무엇이고, 누가 춤을 출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함
  - Axis는 새로운 운동감각에 대한 탐구와 휠체어나 목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감각을 바꾸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며(Male, 2005), 신체적 한계를 장벽이 아니라 안무적 경계를 넘어서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Donohue, 2013)
  - Axis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00회가 넘는 순회공연을 했으며, 이사도르 던컨 댄스 어워즈(Isadora Duncan Dance Awards)를 일곱 번이나 수상하는 등 주류예술계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신체적으로 통합된 춤'(Physically Integrated Dance)의 리더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모임을 2016년 개최한 바 있음

27) http://www.axisdance.org/

- 주디스 스미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통합적 무용(integrated dance) 학위 과정을 만들었으며, 이외에도 춤교육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레크리에이션에서 전문적인 훈련까지 모든 연령의 장애와 비장애인들을 위한 춤 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을 돕고 있음

〈그림 26〉 Axis의 통합적 무용

● 아틀란타의 풀 레디우스 무용단(Full Radius Dance Company)[28]

- 1990년 예술감독 더글라스 스콧(Douglas Scott)이 댄스 포스(Dance Force)라는 이름의 무용단체를 설립, 초창기는 비장애인 전문 무용수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무용단체로 시작함
- 1993년에 조지아주(GA) VSA 아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인 대상 무용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단체의 성격이 바뀌게 됨. 그는 '치료적' 목표가 아니라 엄격하게 예술 그 자체에 기반한 포용적이고 도전적인 무용 기법과 기술, 양식을 창안하게 됨. 지금의 Full Radius Dance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1998년 아다스 프렌더게스트(Ardath Prendergast)가 이끄는 E=Motion 무용단체와 합치면서 이루어짐
- Full Radius는 '신체적으로 통합된 무용을 통해 인간의 체험을 새롭게 함에 따라 현대무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진흥한다.'는 미션을 천명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레지던스나 워크숍, 실기 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며, 장애 예술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작품은 장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예술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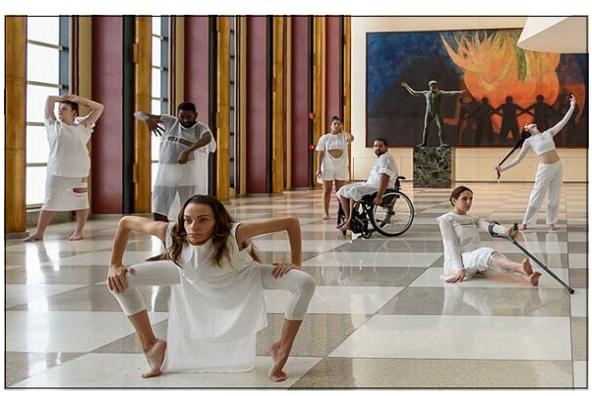
〈그림 27〉 풀 레디우스 무용단의 작품 활동

28) https://www.fullradiusdance.org/

● 하이디 레츠키 무용단(Heidi Latsky Dance, 이하 HLD)[29]

- 2001년 뉴욕에서 창립하여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지속해 온 단체로, 장애인권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뉴욕 장애 무용 테스크 포스(Disability Task Force for Dance/NYC)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옴
- 2015년 미국장애인협약(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체결 25주년 기념을 계기로 뉴욕 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이나 타운과 타임 스퀘어, 하이 라인,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등에서 인간 조각 게릴라전을 재현함
- 이러한 시도는 HLD와 보스턴 현대미술대학이 장애를 가지거나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무브먼트 인스톨레이션 〈ON DISPLAY〉[30]를 제작, 공연한 것으로 발전하면서 정점을 이룸
- 〈ON DISPLAY〉는 특별한 안무와 춤 기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나의 인스톨레이션으로 포함시켜 집중과 정지된 상태, 그리고 구조화된 즉흥성을 해석함. 궁극적으로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움직이는 갤러리'(living gallery)로서 각각의 무용수들은 인간 조각으로 배치되어 정지 상태와 서서히 움직이는 상태, 급작스런 움직임 등을 보여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상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과감하게 던져줌으로써 마치 파괴된 패션쇼 혹은 파괴된 전시회를 연상케 함
- 특별히 이 작품은 12월 3일 국제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UN빌딩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킴

〈그림 28〉 ON DISPLAY YOUTH



〈그림 29〉 UN에서 공연된 ON DISPLAY

29) http://vsamass.org/pivotx/2016-04-20/ica-seeks-performers-for-on-display-a-movement-installation
30) https://www.youtube.com/watch?v=6P5ellY90OI

3) 호주

● 호주에서의 '포용적 예술'

- 호주에서는 2006년 장애인 복지법(Diability Act 2006)의 시행과 함께 포용적(inclusive)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소외된 그룹의 예술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관객, 예술가, 참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 포용적 미학이란 선택받은 혹은 피상적인 것이 아닌 인간 존재의 경이로운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으로(Powell, 2010), 멜번의 푸츠크레이 커뮤니티 아트 센터(Footscray Community Arts Centre)[31], 뉴사우스웨일즈 뉴캐슬의 빅토리아 앤 옥타포드(Victoria and Octapod)는 포용적 미학을 이 기관의 미션 및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Arts Access Victoria)[32]는 1974년 설립, '예술과 장애인'(arts and disabilit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주정부 기관으로, 2015년에는 멜번 대학과의 협업으로 〈접근성을 넘어: 포용적 예술의 창의적 사례〉(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라는 보고서를 출간, 포용적 예술의 개념과 다양한 이론적 양상을 다루고, 영국과 미국, 호주의 정책 동향과 예술단체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음
- 〈Beyond Access〉에 참여한 제인 트렌고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이슈는 포용적 예술 활동이 주류의 일부분이거나 문화 및 예술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느냐에 있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그 곳에 도달하였는가와 어떻게 그들을 지지하여 이처럼 빛나고 놀라운 모습일 수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리라."라고 토로함
- 그러나 호주 장애 예술계 전문가들은 호주가 영국에 비해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함

31) 푸츠크레이 커뮤니티 아트 센터의 예술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와 더불어 참여(engagement)와 협업(collaboration), 그리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며, 여기에는 모든 연령과 성, 원주민, 소외된 지역주민, 장애인을 포함하며, 지역과 전국, 국제적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다. http://footscrayarts.com/

32) https://www.artsaccess.com.au/

■ Arts Access Victoria의 미션 및 비전

- Vision : 예술. 모두를 위한(Art. For Every Body)
- Mission : 누가 예술가이고, 어떻게 예술이 만들어지며, 무엇을 위하여 만드는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도전하면서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적 염원을 실현한다.
- Values
  - 공명(Resonance) : 우리는 작품을 제작하고, 보여주고, 옹호하면서 장애인의 염원을 반영하고, 독창적이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도전하고 전달되고자 하는 보다 더 광범한 커뮤니티의 욕구에 반응한다.
- 용기(Courage) :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으며, 비평으로 단단해지며, 최고 수준의 포용적 과정과 결과물을 낳는다.
- 정의(Justice) : 우리는 장애인 권리 운동의 승리자이고, 실제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실천을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추동한다.
- 연결성(Connectivity) :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가치 있게 만들고 발전시키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성을 연결한다.

〈그림 30〉 Arts Access Victoria

● 레스트리스 무용극단(Restless Dance Theatre)

-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주도 애들레이드에 소재한 레스트리스는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장애로 촉발된 포용적 작업과 문화 다양성 실천을 추구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작품과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호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함(Hickey-Mooday, 2011)
- 특별히 레스트리스는 장소 특정적 예술(site specific art)을 시도함으로써 포용적 예술의 국면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이는 '친근한 공간'(intimate space)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결국 애들레이드 힐튼 호텔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2017년 애들레이드 축제에서 완전 매진을 기록할 정도였음[33]

- 10명의 단원이 힐튼 호텔 로비에서 짐을 옮겨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객실까지 들어가는 등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작품으로 구성되며, 작품의 장소 특정성이 갖는 자연스러움으로 인해 호텔 지배인은 이런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임

〈그림 31〉 레스트리스의 〈친근한 장소〉를 위한 힐튼 호텔 공연

● 백투백(Back to Back) 극단

- 1987년에 창립한 빅토리아 주 멜번 서남쪽 항구도시인 질롱(Geelong) 소재 백투백은 호주의 대표적인 지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 예술단체로서 수준 높은 예술적 컨셉과 다양한 실험, 매체 활용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설립 초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로 인식되었으나, 1999년 이래 브루스 골드윈(Bruce Gladwin)이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놀라운 예술적 성취를 얻어냄에 따라 예술단체로서의 명성을 얻어냄
- 백투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극에 대한 선입견,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작품의 몸통으로 간주하며, 관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들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탐험을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34]
- 특히 이들은 작품을 위한 무대 디자인과 조명, 사운드를 중시하며, 작품의 이야기는 개인사와 정치, 그리고 우주의 방대한 세계가 서로 얽혀드는 맥락에 집중함.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매 순간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순간 속에서, 그리고 순간의 사이를 파고드는 형태를 취함

33) https://www.limelightmagazine.com.au/reviews/review-intimate-space-restless-dance-theatre-adelaide-festival/
34) http://backtobacktheatre.com/about/about-us/

- 이들은 2000년대 이래 탁월한 기획으로 멜번 축제를 기반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별히 빅토리아 주정부와 호주 정부는 이 단체의 국제 투어를 적극 지원함
- 〈가네샤와 제3제국〉(Ganesh and the Third Reich), 〈아들랜드〉(Oddlands), 〈푸드 코트〉(Food Court) 등의 작품을 통해 많은 수상을 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됨. 특히 〈민주주의 세트〉(The Democratic Set〉[35]는 좁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른 채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음악을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민주주의의 여러 국면을 보여줌

〈그림 32〉 백투백 극단의 〈민주주의 세트〉 한 장면

● 여성 장애인의 작품 〈당신의 침대를 치우고 걸어가라〉(Take Up Thy Bed and Walk)[36]

- 호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춤과 연극 연출자이자 예술에서의 접근성과 다양성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가엘 멜리스(Gaelle Mellis)가 2012년 Vitalstatistix를 위해 만든 작품으로 포용적 연극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
- 장애를 가진 여성의 일상을 담은 작품으로 장애와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만 결코 교훈적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여성 장애를 바라보게 함
- 이 작품은 수화, 오디오 묘사, 캡션, 애니메이션, 사전 쇼 등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에서는 최초로 온존하게 접근 가능한 작품으로 기록됨

35) http://backtobacktheatre.com/projects/democratic-set/
36) https://www.youtube.com/watch?v=Fpyay-IdlNI

〈그림 33〉 〈당신의 침대를 치우고 걸어가라〉의 장면과 배우들

4) 홍콩

● 홍콩 장애인 예술협회(Arts with the Disabled Association Hong Kong, ADAHK)[37]

- ADAHK는 1986년 홍콩 최초의 〈홍콩 장애인 예술 축제〉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창립
- 1988년 미국의 Very Special Arts(2010년에 VSA로 개명)와 협약을 맺어 '예술을 통한 포용적 사회를 옹호한다'는 이념 아래 1986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모두를 위한 예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활동 목표를 설정함
- ADAHK는 다양한 장애 예술활동을 장려하며, 특히 홍콩의 장애 예술가의 작품이 갖는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 기본적으로 장애 예술인들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예술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일반인과도 협업을 함
- 장애 예술 발전을 위해 수평적, 수직적 발전 방향을 취하는데, 수평적 발전 개념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장애, 비장애)에게 장애 예술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칭하며, 수직적 발전 개념은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적 수월성을 증진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제공을 의미함
- 협회 활동은 'Artlink', 'Open Studio', 'People with Disability Studio', 'Artists with Disability Training', 'Trainer's Training', 'Annual Festival'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히 Artlink'는 '포용적 예술 프로젝트'(Inclusive Arts Project)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VSA 텍사스 지점과 사우디아라비아 헬프 센터와의 교류 프로그램

37) http://www.adahk.org.hk/?a=group&id=about_adahk

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간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됨[38]

- 또한 영국 문화원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의 협력사업으로 포용적 예술 이념을 구현할 다양한 워크숍과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음
- ADAHK 로고는 두 개의 조각 그림 퍼즐로 구성되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와 상호 협력을 상징하며, 예술과 창의를 통해 모두의 삶이 무지개처럼 풍요롭고 컬러풀하게 될 것을 희망하는 의미

香港展能藝術會
Arts with the Disabled
Association Hong Kong

〈그림 34〉 ADAHK 전시회 및 로고

● '포용적 예술 페스티벌'(Inclusive Arts Festival)

- ADAHK는 2006년부터 복지부와 함께 '포용적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 이 행사는 사회적 포용과 예술적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장애 예술 축제라 할 수 있으며, 영역 간 협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연예술과 전시, 워크숍, 심포지엄과 카니발 행사 등이 펼쳐지고 있음
- 특별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홍콩 조키 클럽 자선재단'의 기금을 후원받아 포용적 예술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35〉 홍콩의 포용적 예술 축제

38) ADAHK, Annual Report 2016-2017, p.23

● 포용적 예술 이념에 따른 iStampGallery의 장애 예술인 디자인 우표 수집

- iStampGallery는 오래된 우표를 수집하는 온라인 아카이브로서 우표 컬렉션을 통해 우표 연구(philately) 진흥을 추구함
- 신체장애 예술인들이 우표를 위해 디자인한 작품 가운데 4개를 선별하여 홍콩 우정국에서 예술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함. 예술 우표는 포용적 예술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사업임

〈그림 36〉 홍콩의 장애 예술인이 디자인한 우표

4. 장애 예술인의 개념 정의(안)

1) 장애 예술의 이해

(1) 장애 예술의 구도로서의 문화 다양성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다양성 기조의 이해와 시사점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영국예술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을 기조로 장애 예술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 있음
- 문화 다양성은 창의적 영역, 작업장 영역, 관객 및 시장 영역 등으로 그 적용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장애 예술 지원과 다양성을 고용 문제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다양성을 실천하는가 하면, 관객 및 시장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문화 향유 증진과 예술시장 형성에 전략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여건에 비추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특별히 차이의 정치학에 따른 〈장애평등계획 2010-2013〉에서 기술하고 있는 '장애 내의 다양성'은 장애인 내에서도 다양한 배경의 삶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규정을 둔 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됨
- 따라서 문화 다양성 구도에서 장애 예술을 바라볼 경우, 장애 예술 자체를 고유한 예술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전제와, 장애인의 다양한 삶을 배경으로 한 예술 활동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의 다양성 기조와 시사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것과 병행하여 장애인예술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음
- 제3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기술되어 있음
-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장애를 문화다양성 구도에서 고려한다는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임.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를 보면, 문화다양성은 다원문화와 커뮤니티, 다국적 문화를 표방하면서 이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무지개 사업'[39]을 대표하고 있어, 장애 예술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 장애 예술을 문화 다양성 구도에 둘 경우, 무엇보다도 장애 예술의 고유의 언어로서 독자적 예술로서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리함. 이는 단순히 장애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점에 감탄하거나 비장애인 예술가들처럼 작품이 좋다거나 하는 점이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표현을 통해 기존의 비장애 중심의 예술 창작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다른 한편 다양성 구도가 실질적인 다양한 삶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포용적 예술 개념과 장애 예술의 이해

● 영국의 포용적 예술에 따른 시사점

- 영국의 포용적 예술 개념은 일차적으로 학습장애와 비학습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광범위하게는 전반적인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예술로 보는 관점임. 그리고 폭스 교수는 포용적 예술이 본질적으로 현대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 아래, 장애와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에 따라 프로세스 아트로서의 면모를 갖는다는 점과, 협업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 미학적 이론과 개념을 제시함
- 따라서 포용적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내린다면, **'포용적 예술은 문화 다양성 구도에서 장애 예술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지우고,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과정과 관계를 형성하며, 현대예술의 실험과 언어 개발에 기여하면서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해 낸다'**는 정의가 가능함
- 단지 여기서 포용적 예술이 칭하는 장애 예술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39)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http://www.cda.or.kr/rainbow

● 포용적 예술에서의 장애 예술 범위와 장애 예술계

- 폭스교수는 포용적 예술을 대하는 장애 예술인의 태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판단을 열어놓고 있음
- 일테면 공동작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포용적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장애 예술운동의 내면적 요구로부터 멀어져 역사적으로 주변부에 머무는 모든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Fox & Macpherson, 2015: 23).
- 이에 따라 장애 예술에 대한 관점을 장애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성격을 집중하는 경우와,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창작 활동의 다양한 주제로 녹여내는 방식 등의 폭을 가질 수 있음
- 결국 장애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 장애 예술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장애 예술계는 곧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열망을 가진 장애 예술 활동의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예술과 장애'(arts and disability)
    :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협업하는 형태
  -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제작하는 모든 활동'으로 간주하는 부류
    : 특별히 장애를 매개로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장애 요소가 그들의 창작 활동에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장애 예술의 면모로 포함시킴. 이 경우 주류 예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장애 예술인도 포함함
  - 장애인의 d를 대문자 D로 사용하면서 장애인의 정체성과 정치적 의식을 중시하는 입장(Sutherland, 2005)
    : 장애 예술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갖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서의 잠재력'(Barnes and Mercer, 2001: 529)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창작 활동의 기조나 방향으로 설정한 경우
    : 장애 예술 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 차원의 장애 예술인을 총칭하며, 장애 예술 운동 내에서 '장애인 예술가'(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는, disabled people doing art)와 '장애 예술인'(disability artists)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Barnes and Mercer, 2001). 이 구분은 장애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의식과 문제제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내리는 장애 예술의 정의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장애평등계획〉에 의거하여 장애 예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 장애 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애라는 경험을 반영하는 것(Disability Equality Scheme, 2007-2010)
  - 제2차계획(2010-2013)에서는 "장애 예술은 장애에 대한 삶의 경험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작품을 나타내는 특정 장르이다. 장애 예술은 특정 장르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창조한 모든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앨런 서덜랜드(Allan Sutherland)가 온라인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Online, DAO)에서 말한 다음의 내용은 유용하면서도 간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40]

    "장애 예술에 대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장애 예술운동 내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 는 그것이 '장애의 경험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 창조된 예술'이라는 것이다. 장애 예술은 예술이다. 그것은 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지한 의도로 만들어진 창조적 작품 – 시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코미디이든 연극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 이다. 그것은 불구자들(cripple)의 소일거리를 위한 취미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료도 아니다."(Sutherland, What is Disability Arts?, DAO)

2) 장애 예술인의 정의(안)

(1) 기존 장애 예술인의 정의

● 기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쟁점

- 장애 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전병태, 2014)으로 제시됨

-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 예술인을 장애인 예술(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전병태 2014)과 구분하면서 제시된 정의로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일정하게 1980년 유네스코가 권장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를 적용한 것이라 하겠음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40) 〈Disability Equality Scheme 2010-2013〉, pp.7-8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유네스코가 권장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 다른 한편 『한국장애예술인총람』(2010)에서 규정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기준이나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제작하는'장애예술인수첩'(2018년)에서는 경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장애 예술인의 전문성을 판별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장애 예술 개념의 삽입 필요성

- 현재의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만 기술되어 있고, 장애 예술의 면모는 표현되지 않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 예술의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 예술 자체가 비장애 예술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으며, 장애 요소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 예술의 성격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 포용적 예술 개념에 따른 장애 예술인의 요건

● 장애 예술인의 정의의 전제 조건

- 장애 예술인의 정의를 개념적 정의와 법체계에 따른 정의로 나누어 제시하며, 기존의 정의에서 빠진 장애 예술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삽입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장애 예술인이 장애인 예술과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함
  - 장애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순히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기능적 맥락을 벗어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도록 함
  - 장애 예술의 예술적 수월성: 앞서 제시된 장애 예술 정책이나 사례 연구를 통해 장애 예술 자체가 현대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맥락을 적시함
  - 장애 예술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장애 예술을 '장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서덜랜드의 정의를 수용하여 장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로 인해 정상성에 대한 기존 가치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음

● 장애 예술인의 정의(안) - 개념적 정의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 장애 예술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

● 장애 예술인의 정의(안) - 법체계에 따른 정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3) 포용적 예술 연구에 따른 실태조사에의 적용

● 장애 예술 연구의 쟁점과 실태조사에의 적용의 한계

- 앞서 연구된 장애 예술의 이념과 관점의 내용을 실태조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실태조사란 현장의 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장애의 경험을 반영하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기에 어렵고, 또한 장애 예술인의 기준 역시도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장애 예술의 정의를 명확히 함에 따라 장애 예술이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장애 예술인의 의미를 자리 잡도록 노력함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의 부여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이해를 예술적 수월성에 기준을 두고 이해하며, 그 결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실천적 맥락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관점을 부여함

● 장애 예술인의 장애 유형의 구분 문제

- 현재 장애 유형 구분은 복지부 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나,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일정하게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특별히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정책상 유형 분류를 큰 범주에서 하고 있어 참조의 근거가 됨
- 일례로 영국은 학습장애와 청각장애, 신체장애 등의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사하게 구분을 부여함

● 장애 예술인의 장르적 구분의 확대

-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대학교육 등의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고, 교육과 훈련에 의한 예술언어 구사를 넘어선 자생적이고 내발적 창작 동기에 따른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장르에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화, 행위예술, 벌룬아티스트 등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범주의 폭을 넓혀가도록 함

● 장애 예술인의 활동 방식의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장애 예술의 프로모션을 위해 유튜브나 SNS 활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장애 예술인이 활동하는 장르와 활동 방식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창작 개념을 전통적인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활동, 그리고 그러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를 주도하는 창작활동의 범주도 조사할 필요 있음
-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문화적 권리 운동이나 단체 창작활동, 장애인 예술 축제 참여 등의 활동 유형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장애 예술인의 활동 영역 추가

- 전 세계적으로 장애 예술 활동에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영국 문화원의 포용적 예술과 문화 다양성 보급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이나 미국 VSA의 지부 확보 활동, 호주의 장애 예술의 국제 투어 증진 등을 감안하면 국제교류가 장애 예술 정책에서 주요 사업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 이에 따라 국제교류 활동이 실태조사 항목으로 추가 가능함

● 장애 예술인의 대상 확대

- 기존의 실태조사 시, 대체로 장애 예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모집단을 구했으나, 장애를 가진 예술인일지라도 장애인 예술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미술협회나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과 같은 협회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함
- 따라서 장애 예술계만이 아니라 주류예술계를 포괄하여 활동하는 예술가를 모두 포함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장애 예술인을 별도로 등록하고 있어 모집단 수집 시, 활용이 가능함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실태조사에서의 항목 제안

- 해외 장애인 문화향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의 구도에서 평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지 및 수용능력에 준하여 문화향유 지원정책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보조 장치에 대한 필요성 내지 경험 빈도나 비율을 설문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작품을 감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공연장에서의 수화나 자막 제공, 사운드 라이트나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미술관에서 작품 배치 높이를 조절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각 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장애인을 위해 작품 설명을 다양한 형태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나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을 수 있음

Ⅳ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지표 및 설문문항 개발

1.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방향성
2.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지표 설정
3.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모집단 파악 및 통계 타당성

Ⅳ.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지표 및 설문문항 개발

1.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방향성

1) 장애 및 비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41] 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제반 여건을 파악하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매 3년마다 진행됨. 2015년 기준 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의 조사(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조사대상 및 모집단, 조사규모 등에 차이를 보임

- 조사 대상에서는 기존 10개 하위 장르에 공예, 만화 및 기타가 추가되었으며 대중예술 분야는 대중음악, 만화 등으로 분리 적용됨

〈표 2〉 2012 2015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비교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 분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장르	조사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

- 예술인 실태조사로 변경되면서 기본 인구통계와 관련한 조사항목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유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현황, 창작공간 보유현황 등이 추가되었음. 복지와 관련해서는 4대 보험 외에 실업급여, 업무상 상해 발생 경험, 예술활동 경력단절 등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41) 2012년까지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전면적인 수정을 통해 예술인 실태조사로 조사명이 변경됨

〈표 3〉 2012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비교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문항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문항수
응답자 일반특성	12	응답자 일반특성	5
성별, 연령, 학력, 예술계 고등학교/대학교 전공 및 졸업여부, 최종학력 전공과 활동분야 일치성, 현 거주지, 주 활동지, 직업유무 및 취업상태, 생활수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및 지출, 가계 수입 및 지출, 4대 보험 가입여부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및 활동지, 학교 및 전공, 가구 구성 등	
장르별 활동현황	6	예술 활동 분야	8
주 활동부문, 활동기간, 첫활동(데뷔)방식, 창작활동 현황, 타부문 활동여부		주 활동분야, 예술작품 횟수, 입문(데뷔)년도 및 방식, 종사 분야(복수응답), 주 활동 직업, 저작권 보유 여부, 해외 활동 여부, 교육활동 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여부 등	
창작여건과 만족도	8	예술 활동 내용	5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외부규제, 지원, 경제적 보상, 예술적/경제적 능력에 대한 한계(회의), 활동 만족도 등		활동분야 내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개인 창작공간 보유, 가구 총 수입/지출, 예술활동/비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 관련 지출, 예술분야 학습 및 훈련 관련 지출, 예술 수입의 주 수입원, 관객으로서 향수실태	
디지털 환경과 예술활동	4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3
디지털 매체이용, 홈페이지여부, 인터넷 발표 경험, 인터넷 접속시간 등		전업예술인 여부, 고용형태, 예술활동 직업 투입시간, 비예술활동 직업 투입시간, 겸업 선택 이유	
단체활동 및 예술 창작활동	5	생활 및 복지	4
정관이 있는 단체 참여여부, 자원봉사 경험 및 의향, 예술활동 투자 시간, 활동 관련 정보 경로 등		4대보험 가입여부, 형태 및 수급여부, 실업급여 수혜 경험, 업무상 상해 경험, 예술활동 포기/무직 경험(경력 단절)	
창작지원금 수혜	1	예술정책 및 만족도	4
공공 및 민간 지원 수혜 여부 및 액수		창작활동 관련 공공, 민간지원 수혜 여부,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정부 정책 역점 활동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 교육	2	-	-
교육 수혜 경험에 따른 예술능력 도움정도 및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등			
문화정책	6	-	-
성공을 위한 조건, 문화예술과 사회가치에 대한 태도,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문화예술계의사 반영 정도,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 역점 정책 등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가 많음. 기존 조사의 조사항목 중 응답자 특성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각 조사별 차이를 보임

● 응답자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기본 인구통계 항목과 함께 장애 관련 항목(장애 유형, 장애 기간, 장애 발생 시기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2012년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예술 창작활동에 있어 보조기구의 이용현황을 항목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개인별 장애유형에 대한 분류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고 각 조사마다 장애 구분에 차이를 보임

〈표 4〉 2005년 이후 주요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명	년도	시행기관	모집단	조사방법	표본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2005	(사)한국장애인 문화협회	-	우편 (이메일,전화 보조이용)	79명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7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우편	361명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조사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음악협회 솟대문학	현장방문 우편, 인터넷	123명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2011	(사)몸짓과 소리	-	우편, 방문 이메일	57명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201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총람 관련 민간단체 개별조사 2,320명(54단체)	면접, 우편 메일	591명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애예술인총람(206명) 장애 예술인 전문법인 및 단체	우편, 이메일	170명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시행한 2005년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국 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몸짓과 소리 등을 통해 진행되었음. 또,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한국장애인예술협회가 발행한 한국장애예술인총람에서 장애 예술인의 활동 및 장애 예술인단체 등을 조사한 바 있음

● 기존 장애 예술인 관련 주요 조사 및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5〉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조사명	년도	설문 조사 대상 장르 및 조사항목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2005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연극, 무용, 영화, 기타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창작활동 경력 및 빈도, 예술활동 관련 수입, 학력, 창작 지원금 수혜, 장애 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마련에 필요사항 등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7	문학, 미술	
		공통	창작여건과 만족도, 단체활동 및 예술창작활동, 디지털 환경과 예술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분야	활동 실태, 기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조사	2010	미술, 음악, 문학	
		창작여건과 만족도, 단체활동 및 예술창작 활동, 창작지원금 수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정책, 경제적 조건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2011	문학, 미술, 기타, 음악, 연극, 영화, 대중예술	
		예술활동 만족도, 창작활동 빈도(예술활동 투자시간), 경제활동(비예술활동 수입 포함), 학력,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정부 역점 정책(욕구), 창작지원금 수혜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2012	국악, 대중예술,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공통	창작여건, 대외채널 및 교류,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 장애인 예술인 복지,
		선택	예술분야별 창작활동(주 창작활동 부문 및 경력, 데뷔방식, 활동 건수, 주 창작활 동 외 활동, 장애 예술계를 빛낸 장애 예술인 유무 및 이름)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2014	문학, 미술, 연극, 음악, 기타	
		장애 예술가에 대한 평가 및 기회부여 정도에 관한 의견, 장애 예술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한계 정도,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개인별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요구사항 등	

● 기존의 조사들은 조사항목 뿐 아니라 장애 예술인에 대한 규정 및 범주 역시 각 조사별로 상이함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2005)〉에서는 별도의 모집단 범주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문학(11명), 미술(39명), 연극(7명)을 제외하고는 장르별 응답수가 3명 이하로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성임

- 〈장애 문화예술인 활동 실태조사(2007)〉의 경우 한국 장애인문인협회와 한국 장애인 미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함. 조사시점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들의 협회들이 부재하거나 활동이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두 협회를 모집단으로 진행함. 우편을 통한 설문 진행으로 회수율은 문학 189부, 미술 172부였음
-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음악협회, 장애인문학단체 솟대문학 등의 회원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 자료의 기초는 〈한국장애예술인총람(총 200명)〉을 통해 확보함. 조사대상은 매년 1회 이상의 창작활동 발표를 하고 있는 예술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조사규모는 123명으로 각각 문학(24명), 미술(52명), 음악(18명), 공연(24명), 다원예술(5명)의 분포임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2011)〉의 경우 별도로 모집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문학(18명), 미술(27명), 기타(사진1명, 음악3명, 연극2명, 영화1명, 대중예술5명) 등 57명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2012)〉의 경우 모집단을 '장애를 가진 예술인(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 회원이면서 전국 16개 광역시 · 도에서 창작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자'로 규정함. 조사규모는 591명으로 국악(29명), 대중예술(31명), 무용(26명), 문학(60명), 미술(176명), 사진(9명, 연극(62명), 영화(32명), 음악(166명)으로 구성됨
-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2014)〉에서의 모집단은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 활동을 3년 이상 한 장애 예술인이며, 예술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규모는 170명으로 미술(112명), 문학(21명, 연극(10명), 기타(22명)임

● 이상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각 조사 연구의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항목의 구성이 각기 다르며, 장애 예술인에 대한 범주와 규정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장애 예술인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예술인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한다고 할 때 예술인 실태조사의 항목을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공통 항목을 통해 장애/비장애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자료로서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응답 회수율이 높지 않고, 장르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조사 항목과 문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함

- 그러므로 설문 항목의 구성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틀을 수용하되 장애 예술인의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함
  - 해당 항목은 기존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항목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정교화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 구성의 경우 자칫 응답회수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각종 정책 요구나 실행에 있어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장애 예술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 시각이 다분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논의된 부분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즉, 예술활동 주체에 대해 말 그대로 “disabled”혹은 “handicapped”의 제한을 두어 불편이 아니라 불가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삼고 있음
  - 장애 예술인의 일련의 활동을 쌍방향 창의적 경험, 교류 등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예술창작, 실연 등의 활동은 또 다른 하나의 범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혜가 아닌 예술의 다양성 논의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는 기초적인 정보의 확충과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정책 자료의 제공이 기본 목적인만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념적 틀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설문 문항의 구성과 변수 설정은 기초 데이터 수집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실태조사의 방향성 및 내용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환경을 중심으로 묻는 경우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향유 형태의 하나로 창작을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됨. 후자의 경우는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문화복지적 접근이 대부분임

-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은 향유의 확대 및 편의성 증진의 측면 뿐 아니라 예술창작의 욕구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문 예술인으로서, 미학을 실천하는 존재로서의 활동을 핵심요소로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장애 예술인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되, 정책 근거의 마련, 순차적 실행을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심화 확대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활동의 제약, 예술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난관 등에 대한 부분은 장애 예술인에 대한 필요지원 항목 추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한편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장애 예술인 인식, 비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관점에서의 인식 등은 추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조사의 실행가능성과 신뢰도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한 방향성이라 할 수 있음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항목 중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으로 부합성이 높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부합성이 높은 조사항목과 함께 기존의 조사항목 중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디지털 환경 활용, 개인활동/단체활동, 예술활동 장애요인, 예술교육 접근성 등

〈표 6〉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장애 예술인 조사항목 부합도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범주 및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특성	예술활동 분야	예술활동 내용	고용형태/ 근로환경	생활/복지	예술정책/ 만족도
성별	◎					
출생연도	◎					
거주지 및 활동지	◎					
학교 및 전공	◎					
가구 구성	○					
주 활동분야		◎				
예술활동 횟수		◎				
입문(데뷔)년도 및 방식		◎				
종사 분야(복수응답)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범주 및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특성	예술활동 분야	예술활동 내용	고용형태/ 근로환경	생활/복지	예술정책/ 만족도
주 활동 직업		◎				
저작권 보유 여부		◎				
해외 활동 여부		○				
교육활동 여부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여부		△				
활동분야 내 자원봉사(재능기부) 경험			○			
개인 창작공간 보유여부			◎			
가구 총 수입/지출			○			
예술활동 수입			◎			
비예술활동 수입			◎			
예술분야 학습 및 훈련 관련 지출			◎			
예술활동 관련 지출			◎			
예술 수입의 주 수입원			◎			
관객으로서 향수실태			○			
전업예술인 여부				◎		
고용형태(전문예술인)				△		
예술활동 직업 투입시간				◎		
비예술활동 직업 투입시간				◎		
겸업 선택 이유				○		
4대보험 가입여부, 형태 및 수급여부					◎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업무상 상해 경험					△	
예술활동 포기/무직 경험(경력 단절)					○	
창작활동 관련 공공, 민간지원 수혜 여부(장애인 지원기관 포함)						◎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
정부 정책 역점 활동에 대한 의견						◎

2.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지표 설정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지표 설정을 위해 기존 선행 연주 조사를 취합,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함

- 장애 예술인으로서의 사회 기여도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는 양적인 수준이나 질적 조합이 중요함. 따라서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는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장애 예술인의 현황과 함께 창작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 예술인의 생태환경을 포함해야 할 것임

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 및 범주

- 실태조사는 크게 공통영역과 장르별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며 세부 장르는 각 장르별 주요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함

- 공통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정보(장애유형 포함)와 예술활동 관련 소득 여부와 4대보험 적용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대한 항목, 활동연혁 및 주요 특성, 창작여건 및 교류활동, 문화예술 향수실태, 지원정책과 관련한 의견, 문화예술 교육 경험 및 시설활용, 연습 및 작업 공간 이용의 장애요인 등을 포함함
  - 세부영역의 경우 각 개별 장르에 따른 창작활동 실태와 활동 장애요인, 장르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향후 포용적 예술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기초단계로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 간의 협업 여부와 함께 국제교류 및 장르간 교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함
  - 실제 비장애 예술인들이 '장애 예술'을 주력활동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역시 보다 면밀하게 시행되어야 함. 개별 장애 예술인을 조사대상으로 할 경우 비장애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예술활동과는 상관없이 모집단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장애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장르의 구분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유형을 따름. 이전 연구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장르분포가 시각예술과 문학 등에 치우쳐 편차가 있고, 해당 예술인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제한적이긴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의 장르구분과 문항 개발을 비장애 예술인 조사의 구분과 같이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함

●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 및 범주는 다음과 같음

〈표 7〉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영역 및 범주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영역		범주
공통	인구통계	인구통계 및 장애관련 정보
	사회경제	예술활동 수입 및 4대보험
	창작여건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여건
	문화향수실태	문화예술관람실태, 문화예술시설 이용실태, 문화예술 교육경험
	지원정책	장애 예술인 관련 정책
	교류 및 협업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경험 국제 교류 경험 및 형태, 장르간 협업 경험
세부	창작활동 실태	장르 세부 활동
	장애요인	활동 장애요인
	장르별 지원정책	지원정책 중요도

●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향수실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준비, 혹은 창작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 향수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현재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는 부재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조사항목과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향수관련 항목에서 필요 항목추출 적용하고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의 경우 새로 추가하도록 함

〈표 8〉 문화예술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조사항목	문항수	2012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및 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중 향수실태항목	문항수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42	예술관람	10
예술행사 관람실태, 복합문화예술 관람실태, 직접관람실태, 매체이용(예술행사 관람실태), 예술행사 관람실태, 문화예술 관련 지출		예술행사 관람실태, 관람지역, 참석 예술행사에 대한 평가/의견, 향후 관람의사, 관람 기준, 정보경로, 참여 어려움	
문화예술교육	16	시설이용	25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예술교육실태		문화시설 이용 실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문화시설 만족도, 참여 문화행사의 시설/편의시설 및 환경 만족도, 자원봉사자 도움 수혜여부, 향후 참여의향, 참여기준, 참여 장애요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17	-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문화예술활동 공간방문의향			
문화관련 활동	13	-	
문화자원봉사 활동,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	5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축제관람실태			
일반적 특성	10	-	
가구원수, 성별, 연령, 장애등록여부, 혼인상태, 동거자녀,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사항	5	-	
경제활동 상태, 월평균소득			

2) 장애 예술인 조사 지표 설정 및 예시

● 기존에 진행된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기본 조사항목은 3년마다 시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진행한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의 경우 기존의 문항을 보다 세분화 하여 진행함

-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 예술인에 대해 공통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대상이 되는 장르 역시 상이함
  - 예를 들면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매년 1회 이상의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예술인, 혹은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 활동을 3년 이상 한 장애 예술인으로 예술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로 한정하기도 함

- 기초자료로서의 안정성과 정책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변수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수준 및 개선, 활동범주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해야 함
  - 실제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뿐 아니라 예술창작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실태를 포함하여 좀 더 종합적인 데이터의 구축이 요구됨

- 현재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조사에서 장애 예술인의 문화향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진행한 것과, 장애인 문화예술 센터 건립과 관련된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이 전부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 예술인의 예술 창작을 다양성 논의, 혹은 포용적 예술로 연계할 때 창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향수는 주요한 변인임
  - 어떠한 문화예술적 자극과 노출이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실행되는 실태조사에서는 창작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향유 실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에서의 문화향유에 관한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의 틀을 유지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창작활동에 초점을 두어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실제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의 설문으로 응답을 회피하거나 설문에 대한 피로도를 덜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장애 예술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설문 항목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관련 시설 이용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경험을 포함함으로써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전반적인 환경과 예술인으로서의 입문 경로, 네트워킹의 범주 및 특성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임

〈표 9〉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안)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 항목		세부 내용
공통	인구통계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장애유형 및 발생시기
	사회경제	문화예술활동 주업여부, 예술활동 관련 소득, 법적혜택, 4대보험, 주업의 고용형태(부업일 경우)
	창작여건	활동분야 및 기간, 데뷔/입문 방식, 디지털 매체 활용,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보유 여부, 창작공간 실태, 발표공간 실태, 단체 및 작품 교류활동, 보조도구 및 보조인력 필요여부
	문화향수실태	문화예술행사 관람, 문화예술 관련 시설 이용, 문화예술 행사 참여 장애요인
	지원정책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수혜경험,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	예술교육 경험여부, 예술교육 필요성, 장애요인 등
세부	창작활동 실태	주 활동분야, 활동 내용
	장애요인	창작 및 발표활동 장애요인
	장르별 지원정책	해당 장르 필요지원

3) 장애 유형 및 예술장르별 설문 문항

-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는 향후 정책 제안 및 실행에 기초자료로의 역할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데이터 수집과 보존, 그에 따른 다각적 해석이 필요함
  - 기존의 조사의 경우 ① 모집단의 규정 ② 조사를 시행하는 기관 ③ 조사장르 ④ 조사 시행의 정기성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단일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존의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모집단의 형태나 구성이 상이했던 부분을 통일할 수 있으며, 기초통계로서의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덧붙여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다수의 장애 예술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의 현황은 2차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데이터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조사방법의 정교화와 전체적인 응답율의 상승, 개별 장르의 유효 표본수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예를 들면,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한 조사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장애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한 조사원의 투입으로 응답 회수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르별 표본수 편차를 줄여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한정된 표본수를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설문응답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장애유형에 따른 조사에 있어 등급에 대한 분류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의 분류 유형을 조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시행된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장애유형 분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유형분류와 차이를 보이는데, 장기적 관점으로는 생활문화 차원에서의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로 실태조사의 범주를 확장한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장애유형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분류를 수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다층적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장애유형의 구분은 장애 예술인이라는 한정된 모집단과 기초통계 자료의 수집을 고려할 때 장애유형의 세분화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중분류로 외부 신체 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표 10〉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장애유형 분류

조사명	년도	응답자 특성 조사항목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7	지체/ 뇌병변/ 시각(시력, 시야결손)/ 청각(청력, 평형기능)/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 발달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미등록**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전신마비/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이민경)	2015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정신적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아애, 심장아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42]

- 장애 유형에 따른 조사의 경우 유형별 분류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보조기구이용이 아닌 예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 어떤 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추가도 요구됨
  - 예를 들어 보조인력, 보조기구 및 장치의 필요여부, 필요할 경우 예술 활동에 있어 각각의 보조 정도(%를 기준으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장르별 설문문항의 구성에 있어서는 개별 활동에 대한 세부 구분과 창작활동의 유형 등을 포함하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장르구분을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인 향후 자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까지는 명확한 모집단의 구성과 파악이 불가하여 세부 장르 장애 예술인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 없는 장르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술인의 범주에서 접근한다고 할 때 비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장르구분을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42)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5개 장애유형의 중분류 채택

● 세부구분의 경우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에서의 세부 구분을 수용하되 공예, 대중음악, 방송, 건축, 만화, 기타 등은 기존 세부 구분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여 추가함

〈표 1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장르 유형 및 세부구분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장르 유형 및 세부 구분						
예술인 실태조사 장르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					
문학	① 시	② 소설	③ 수필	④ 희곡	⑤ 아동문학	
	⑥ 시조	⑦ 시나리오	⑧ 번역	⑨ 평론, 이론	⑩ 기타 ( )	
미술	① 서양화	② 한국화/동양화		③ 판화	④ 조각	⑤ 서예 (문인화 포함)
	⑥ 뉴미디어/설치		⑦ 디자인	⑧ 평론, 이론	⑨ 기타 ( )	
공예	① 도자공예	② 목칠공예	③ 페이퍼크라프트		④ 유리공예	⑤ 기타 ( )
사진	① 창작사진	② 보도사진	③ 상업사진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건축	① 설계	② 건축사	③ 건축기사	④ 기타 ( )		
음악	① 성악	② 피아노/건반	③ 현악	④ 관악	⑤ 타악	
	⑥ 오페라	⑦ 지휘	⑧ 작곡	⑨ 평론, 이론	⑩ 기타 ( )	
대중음악	① 작곡	② 작사	③ 보컬	④ 연주	⑤ 제작/기획	⑥ 기타 ( )
국악	① 국악(독주, 관현악, 실내악, 작곡 등)			② 창극/가무극/소리/마당극		③ 전통연희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무용	① 한국무용	② 발레	③ 현대무용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연극	① 연출	② 연기	③ 무대기술	④ 제작/기획	⑤ 평론, 이론	⑥ 기타 ( )
영화	① 감독/연출	② 연기	③ 기술	④ 제작/기획	⑤ 평론, 이론	⑥ 기타 ( )
방송	① 감독/연출	② 연기	③ 작가	④ 방송기술	⑤ 제작/기획	
	⑥ 디자인	⑦ 평론, 이론	⑧ 기타 ( )			
만화	① 시사만화	② 유머만화	③ 극화	④ 제작/기획	⑤ 평론, 이론	⑥ 기타 ( )
기타						

3.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모집단 파악 및 통계 타당성

1) 모집단 파악을 위한 방법론

- 기존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중 2012년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가 가장 큰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2,320명)
  - 해당 조사의 경우 모집단을 장애예술인총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및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회 회원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 시행기관에서 별도로 단체의 성격 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 장애예술인총람의 경우 206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전체 장애 예술인의 모집단으로 보기에는 규모와 현황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협회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민간단체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기관이 일일이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은 조사의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장애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집단에 대한 가장 최선의 접근은 장애예술인 총람의 활용과 (사)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협조를 통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연합회의 경우 11개의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할 경우 모집단 파악에 효과적일 것임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빛소리친구들
    -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 (사)꿈틔움
    - (사)우리들의 눈
    -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 관련단체의 총 연합회를 통한 모집단의 파악은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협조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 협회 단체만을 모집단으로 삼을 경우 회원 리스트의 최신성, 정확성의 한계 역시 모집단 구성에 있어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으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성화,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43]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재단 및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이나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센터 등 공공기관의 사업신청 예술인 리스트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저촉 요인을 최소화하고 협회 회원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최대한 현실성을 대표하면서 향후 지속적 접근이 가능한 모집단 확보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의미, 중요성에 대한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별도로 받거나 위임장 등을 수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단체들의 개인 회원의 경우 다수의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협회회원을 모집단으로 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오류로는 현재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거나 회원 리스트의 최신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이전 연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모집단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협회를 통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일 것임

- 2018년 1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장애여부를 택하는 문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향후 해당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해당 리스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3) 장애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 및 발표 지원사업과 같은 공모형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트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이나 장애인 문화예술 대표축제 지원 등의 비공모형 사업의 경우 역시 모집단 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임

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통계 타당성

-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애 예술인에 대한 모집단이 일정 수준에서 확인되었다고 할 때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의 표본 추산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모집단을 1,000이라고 할 경우 표본오차 5% 내에서의 신뢰수준 9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78개의 표본이 필요함(모집단이 500일 경우 218개의 표본)
  - 그러나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통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통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장애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위한 최소 표본은 300명 이상이 요구됨

- 기존 실태조사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조사에 대한 분석이 단선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빈도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장르별 분석은 제한적으로 제시됨
  -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전체 응답자 수가 적고, 두 번째, 개별 장르로 구분할 경우 장르별 편차로 인해 하위집단의 표본 크기가 교차분석이나 집단별 평균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통계의 결과가 의미 있게 해석되고 실제 정책개발이나 제안에 효과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표본의 확보와 함께 장르별, 장애유형별 분류에 따라 최소의 표본크기를 개별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할당의 기준 역시 최초 조사가 시행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를 삼아야 하며 체감적인 편차를 임의로 배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임

V

장애인 대상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구성 방향

1.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2.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3.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제안

Ⅴ. 장애인 대상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구성 방향

1.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1) 조사 목적 및 내용

-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문화향유의 필요성과 인식 상승에 따른 문화향유 경로, 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문화향유 진흥을 도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횟수, 참여경험 및 의향의 추이, 지출 등을 포함함. 또 별도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과 축제 관련 문항이 함께 제시되어 있음

2) 쟁점

- 2016년 조사에서는 장애등록 여부(해당사항 없음/등록/등록하지 않음)를 묻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44)]
- 2018년부터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에서 장애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애 예술인 파악을 진행함에 따라, 추후 이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12〉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및 세부 구성

조사구분	주요항목	세부내용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예술행사 관람실태, 복합문화예술 관람실태, 직접관람실태, 매체이용(예술행사 관람실태), 예술행사 관람실태, 문화예술 관련 지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경험, 문화예술교육실태 및 의향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문화예술활동 공간방문 의향
	문화관련 활동	문화자원봉사 활동,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축제관람실태
	일반적 특성	가구원수, 성별, 연령, 장애등록여부, 혼인상태, 동거자녀,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사항	경제활동 상태, 월평균소득

44) 조사결과는 성별 및 연령별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유효표본 10,716명 중 장애인의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분석 및 쟁점

1) 현황 및 내용

-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장애인 실태 조사 내에서 개괄적으로 묻는 문항 외에 별도로 조사된 경우는 2007년의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와 2012년에 시행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및 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등이 있었음

- 기존의 장애인 문화향수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항목과 유사하나, 항목의 구분과 문항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구성됨. 이는 실제 응답자의 어려운 물리적 환경과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2) 쟁점

- 원칙적으로 장애인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기존 문화향수실태조사와 항목의 구성을 참조하여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장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함

- 지금까지의 향수실태 조사의 흐름은 장애인들이 문화소비를 하는데 있어 물리적 접근성(시설 이용, 경제적 한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향유를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 향수 진작을 위한 정책 실행을 염두에 둔 문항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감상을 위한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지원으로서 수화 서비스 및 자막 제공과 각종 무대기술의 적용, 장애인을 고려한 작품 배치의 변화,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품 만져보는 체험 제공 등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또한 생활예술 분야에서 누구나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 향유 구분이 모호해 지는 관계를 고려하되, 이를 적극적 향유 개념으로 간주하여 장애 예술과는 구별되는 향유 영역으로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음. 비교하자면 관람 등의 향유를 소극적 향유로 본다면, 본인이 직접 실연, 제작, 기획을 하는 경우는 적극적 향유의 틀을 적용해서 볼 수 있음[45)]

● 이런 흐름에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심리적 간극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표 13〉 기존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조사 주요 조사항목

조사구분	주요항목	세부내용
2012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예술관람	예술행사 관람실태, 관람지역, 참석 예술행사에 대한 평가/의견, 향후 관람 의사, 관람 기준, 정보경로, 참여 어려움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 실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문화시설 만족도, 참여 문화행사의 시설/편의시설 및 환경 만족도, 자원봉사자 도움 수혜여부, 향후 참여의향, 참여기준, 참여 장애요인
2007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여가활동 생활	여가시간, 여기비지출, 여가활용, 여가활동 걸림돌
	예술관람	관람횟수, 관람지역, 관람방법, 관람동행자, 관람결정자, 보완점, 관람의향, 관람 걸림돌 및 정보출처, 문화예술 관련 지출
	문화시설 이용	이용실태 및 횟수, 행사참석 횟수,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만족도, 자원봉사 도움, 참여의향, 걸림돌
	문화활동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문화관광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지역축제 관람
	사이버문화활동	인터넷 이용,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 관련 사이트 내용 만족도, 사이트 유료 이용여부
	문화예술 교육	교육 경험, 분야, 장소, 만족도, 수강자구성, 보완점, 문화예술교육 의향 및 교육 희망분야, 걸림돌
	문화복지 관련 의견	정부의 문화복지 시책 인지여부, 정부정책 요구사항, 분화시설 및 문화복지 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 문화활동 자원봉사제도 필요성

45) 이러한 접근은 2017년 〈제주의 문화생태계 연구를 위한 문화생태조사〉에서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한 연구로 진행된 바 있음. 해당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람 등의 소극적 참여 형태로 향유하고 있었으나 문학, 클래식음악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장르에 비해 본인이 실연, 공연, 제작, 창작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소극적 관람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약 10% 이상이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장르의 경우 실제 다른 장르에 비해 관람참여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실제 적극적인 참여비율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3.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제안

1) 기본 방향

-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접근성의 문제와 예술 감상에서의 제한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관람에서의 장애 요인을 포함하도록 함
- 이는 단순히 문화시설까지 가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공연이나 전시, 축제 등에서 관람객/참여자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및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포용적 예술 개념에 따른 추가사항 제안

- 포용적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포용 개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문화 향유에 대한 정책이 재검토될 수 있음
-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장애 요인만을 묻기 보다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공연장에서의 수화나 자막 제공, 사운드 라이트나 영상 등의 필요성을 묻거나, 미술관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여 작품 배치 높이를 조절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각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장애인을 위해 작품 설명을 다양한 형태로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리라 봄
-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생활예술의 논의를 포함하기 위해 문화향유의 정도를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추가사항을 고려하면서 기존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주요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한 향후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14〉 장애인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항목 안

주요항목	세부내용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 관심 정도, 관심 분야 예술행사 참여/관람실태(빈도), 축제 참여/관람실태(빈도) 동반/보조인력 현황, 보조기구 사용 현황 문화예술 참여정도(장르별) : 소극적/적극적(관람위주, 직접 참여 등) 예술행사/축제 직접관람 및 직접참여 장애요인 직접참여(관람 등)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경험(인생주기별/장애발생 시기 구분), 문화예술교육실태, 선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형태, 교육프로그램 참여시 인력/도구 보조 필요성 및 현황, 문화예술교육 관련 장애요인
문화시설 이용	이용실태 및 횟수, 행사참석 횟수,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만족도, 도움인력/기구 필요성, 참여의향, 장애요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주 이용 공간 및 이용 이유 공간이용 장애요인, 공간 접근성
문화예술활동 정보인지 경로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 이용, 디지털 접근성
장애인 문화향수 관련 의견	주요 정책사업 인지여부, 정부정책 요구사항
일반적 특성	가구원수, 성별, 연령, 장애종류, 장애발생시기

VI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방귀희, 2014, 『장애인문화예술의 이해』, 도서출판 솟대
엄정순, 2018,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샘터
천정웅, 남부현, 김태원 외, 2015,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이해』, 양서원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7,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사회평론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07,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사업 추진(안)〉
박영정 외, 2010,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실, 2012, 〈한국장애인예술백서〉
이영규 외, 2012, 〈한국장애인예술정책연구〉, (사)장애인문화진흥회
전병태 외, 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2010,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윤정 외, 20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연구〉,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2011, 〈한국장애예술인총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논문

방귀희, 2017, 장애인문학의 특성과 과제, 국제한인문학 21집, 5-40
이민경, 2015,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6: 61-73
이문화, 2014,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67-274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2014,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91-116

학위논문

방귀희, 2013,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방지윤, 2016, 장애인 접근 가능성 재고를 위한 미술관 정책 비교 : 국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학술대회 자료

김태완, 정희선, 2012,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83: 66-75
전병태, 2017, 장애인문화예술 실태 및 진흥 정책 방안,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기사 및 기타자료

김미림, 2010, 일본의 장애인 문화정책과 민간의 활동, 해외동향분석: 장애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지은, 2010, 프랑스의 장애인 문화정책, 해외동향분석: 장애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윤석, 2015,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논단
윤자혜, 2010, 미국의 장애인 문화정책, 해외동향분석: 장애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혜경, 2010, 영국의 장애인 문화정책, 해외동향분석: 장애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자료

Albright, A. C., 1998, "Strategic abilities: Negotiating the disabled body in dance." *Michigan Quarterly Review* 37(3): 475-501.
Arts Council England, 2010, *Disability Equality Scheme 2010-2013*.
Arts Victoria, 2014, *Challenging perceptions: Geelong's Back to Back Theatre.*
Barnes, C., and Mercer, G., 2001, "The politics of disability and the struggle for

change." Disability, Politics and the Struggle for Change: 10-33.

Benjamin, A., 2002, *Making an entrance*. London: Routledge.

Brett, J., 2011, The Appendix of Everything, London: The Museum of Everything.

Cardinal, R., 2009, Art brut. [online] MoMA.org. Available at: http://www.moma.org/collection/details.php?theme_id=10053

Consilium Research and Consultancy, 2013, Equity and diversity with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in England: Evidence and literature review

Davis, L., 1995,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London: Verso

Donohue, E., 2013, Hancher celebrates physically integrated dance with AXIS Dance Company, Iowa Now.

Fax, A. and Macpherson, H., 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Garland-Thomson, R., 1997, Extraordinary bod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rozs, E.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poreal feminism, Bloomington and Indianapois: Indiana University Press.

Hall, C. and Thomson, P., 2007, "Creative partnerships? Cultural poicy and inclusive arts practive in one primary school."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3): 315-329.

Hambrook, C., 2009, "Art of Difference."Disability Arts Online, available: https://www.disabilityartsonline.org.uk/editorial-blog?item=403

Harris, S., 2014, Able-Bodied Actors and Disability Drag: Why Disabled Roles are Only for Disabled

Hickey-Moody, A., 2009, Unimaginable bodies. Rotterdam: Sense Publishers.

Kuppers, P., 2003, Disability and contemporary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Male, J., 2005, Wheels Welcome: Axis Dance Company. Dance Magazine. [online] Available

Mullan, K.(2008), An artist with a lot of bottle. Disability Now, [online](14), 66-67, http://www.yinkashonibarembe.com/resources/content/articles/26/47/DISABILITYNOW_2008.pdf

Murrell, K., 2005, History of SELF-TAUGHT & OUTSIDER ART. [online] Petulloartcollection.org.

Nichols, H., 2012, The Scaffolded artists: professionalism in the supported studio. Un Magazine, [online] (6), pp.29-32.

Obuljen, N., 2008, Principles of Cultural Pluralism,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Reference to UNESCO'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such as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ulticultural Policy Forum

Perring, G., 2005, The Facilitation of Learning Disabled Arts: A Cultural Perspective. in Sandahl, C & Auslander, P. (eds) Bodies in Commotion: Disability and Performan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75-189.

Powell, M., 2010, "The inclusive aesthetic: inclusion is not just good for our health, it is good for our art.", Local-Global: Identity, Security, Community, 7, pp. 198-208.

Rhodes, C., 2008, "An Other academy: creative workshops for artis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rts in Society, 3(1), pp.129-134.

Rodenhurst, K., 2013, London 2012 Cultural Olympiad and Tourism Development, Culture @ the Olympics, 15(6): 145-154.

Sandahl, C., 2008, Performing Disability, Performing Gender: Mark Medoff's Children of a Lesser God and Joan Schenkar's Signs of Lif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Sandahl, C. and Auslander, P. (2005). Bodies in commo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hakespeare, T. and Watson, N., 2002.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 outdated ideology?" Research in Social Science and Disability 2: 9-28.

Sontag, S., 1978,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Sutherland, A., 1997, "Disability arts, disability politics." Framed: Interrogating Disability in the Media : 182-183.

http://www.suttongallery.com.au/artists/artistprofile.php?id=31

Tate Britain., 2005, Outsider Art. [online] Tate.org.uk. Availa ble at: http://www.tate.org.uk/whats-on/tate-britain/exhibition/outsider-art

The Art Story,(n.d.), Chuck Close Biography, Art and Analysis of Works, https://www.theartstory.org/artist-close-chuck.htm

Volkersz, W. and Cardinal, R., 1998, Roger Cardinal on Outsider art, London: Raw Vision

Woodhead, C., 2011, Ganesh vs the Third Reich. The Age. [online] http://www.theage.com.au/ entertainment/ganesh-vs-the-third-reich-20110930-1l1ba.html

VII

부 록

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안)
2. 장애인 예술단 및 장애 예술인 전문그룹
3.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인 문화예술 법인
4. 장애인 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5. 장애 예술 관련 축제

[부록 1]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안)

공통항목

I. 문화예술 활동

1. 활동분야

① 문학 ② 시각예술 ③ 공연예술
④ 전통예술 ⑤ 영상/미디어 ⑥ 기타 ( )

2. 귀하는 해당분야에서 총 얼마간 활동하셨습니까?

( )년 ( )개월

2-a.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입문(데뷔)하셨습니까?

(신춘문예, 오디션, 단체전시 등 구체적으로 기입)

3.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창작 ② 교육(3a로 이동) ③ 연구/비평
④ 기획/경영 ⑤ 기술(스텝 등) ⑥ 기타 ( )

3a. 교육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대학교수 ② 대학강사 ③ 초중등 교사/강사 ④ 기타생활문화프로그램강사(민간)
⑤ 학원강사 ⑥ 개인교습 ⑦ 사회문화예술교육강사[46] ⑧ 기타( )

4. 귀하가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가지고 있다 ② 없다 (4a로 이동)

4a. [4에서 ②번 응답자만]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 없음 ② 기술적 어려움 ③ 생각해 본 적이 없음
④ 기타 ( )

5. 귀하는 본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십니까?

(SNS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때때로 활용한다 ③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④ 기타 ( )

46)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파견강사 등

6. 귀하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작권	① 있다	② 없다
저작인접권	① 있다	② 없다

II. 문화예술 창작여건

7. 귀하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별도의 작업 공간(자택 외 공간으로 작업실, 연습실 등)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있다 (7a로 이동) ② 없다 (8번으로 이동)

7a. [7에서 ①번 응답자만] 작업 공간은 어떤 형태입니까?

소유 형태	① 자가(소유 및 임대)	② 지원공간
사용 형태	① 독립공간(개인작업실/연습실)	② 공유공간(공동작업실/연습실)

8.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공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창작 공간(창작/제작, 연구, 사 공간 등)
② 연습 공간(창작/제작을 위한 연습 공간 등)
③ 발표 공간(공연장, 전시장, 발표장, 교육장 등)
④ 자료 공간(문화예술 아카이브 등)
⑤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친목, 교류 목적의 공간 등)
⑥ 기타 ( )

9. 귀하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발표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충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음
④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9-a. 귀하가 문화예술활동 관련 창작 및 발표기회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논의 필요)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9-1	장애 예술인 쿼터제	①	②	③	④	⑤
9-2	장애 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9-3	장애 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9-4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①	②	③	④	⑤

9-b. 귀하가 문화예술활동 관련 발표 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대관경쟁률 높음 ② 대관비용이 높음 ③ 장애인 관련 시설 부재
④ 공간구조 및 형태의 다양성 부족 ⑤ 어려운 점 없음 ⑥ 기타 ( )

III. 단체 및 작품/교류 활동

10. 귀하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몇 군데 단체(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정관/조직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가입단체 있음 (10a로 이동) ② 가입단체 없음 (10c로 이동)

10a. 귀하께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 주십시오.

종합예술단체[47]	① 가입 ( ) ② 가입단체 없음
장르단체(협회)	① 가입 ( ) ② 가입단체 없음
장애인 단체	① 가입 ( ) ② 가입단체 없음
기타 문화예술 소집단	① 가입 ( ) ② 가입단체 없음
합계	( ) 개

10b. [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단체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활동 장르에 대한 정보 교류 ② 협업, 공동발표 등의 활동교류 ③ 단체 소속감
④ 단체 내의 지원프로그램/사업 ⑤ 기타 ( )

10c. [9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가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못 느낌 ② 정보 부족 ③ 적합한 단체 없음 ④ 기타 ( )

11. 귀하는 최근 3년간 작품 발표/공연/전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1a로 이동) ② 없다 (12번으로 이동)

11a. [11에서 ①번 응답자만] 작품 발표/공연/전시의 지역과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사항을 전부 표해주십시오)

국내	**개인**	( )회
	단체	( )회
국외	**개인**	( )회
	단체	( )회

47) 예총, 민예총 등

12. 귀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보조도구가 필요하십니까?

① 필요함 (12a로 이동) ② 필요 없음 (13번으로 이동)

12-a. 보조도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3. 귀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① 필요함 (13a로 이동) ② 때에 따라 다름 ③ 필요 없음 (14번으로 이동)

13-a. 도움을 주는 분은 주로 누구입니까? ( )

14. 귀하는 현재 하고 계시는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술교육(학교, 개인레슨/1:1지도, 사설학원, 그룹지도 등)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14-a로 이동) ② 아니오

14-a. 귀하께서 받으신 예술교육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예술교육(학교, 개인레슨, 사설학원, 그룹지도 등)을 받으셨습니까?

	경험여부		교육비용 부담		
			개인부담(자기부담)	공공지원	기타지원
예술전문학교	① 있음	② 없음			
개인레슨(1:1지도)	① 있음	② 없음			
사설학원	① 있음	② 없음			
그룹지도	① 있음	② 없음			
기타(_____)	① 있음	② 없음			

15. 귀하는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6.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기관의 부재 ② 전문교육인력 부재 ③ 정보부족
④ 시설 및 기자재 부족 ⑤ 기타 ( )

Ⅳ. 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및 정책 인식

17. 귀하는 지난 3년간 (2015. 01. 01~2017. 12. 31)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17a로 이동, 없다면 18번으로 이동)

(지원사업 명칭 기재)	① 있음 ( )회 ( )원 ② 없음
	① 있음 ( )회 ( )원 ② 없음
	① 있음 ( )회 ( )원 ② 없음
	① 있음 ( )회 ( )원 ② 없음
	① 있음 ( )회 ( )원 ② 없음

17a.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해당사항은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① 창작활동 지원(기금 등) ② 창작 공간 지원 ③ 창작관련 인력 지원
④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 지원 ⑤ 기타 ( )

※ 다음은 장애 예술인 정책 및 인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보통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8	장애 예술인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19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①	②	③	④	⑤
20	예술창작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	①	②	③	④	⑤
21	창작발표의 기회확대	①	②	③	④	⑤
22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장애 예술인과 관련한 주요 문화예술 정책 내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보통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23	장애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확대(기금지원)	①	②	③	④	⑤
24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제고(다양성 관점으로)	①	②	③	④	⑤
25	장애 예술인 활동 관련 시설 확충/ 정비	①	②	③	④	⑤
26	장애 예술인 복지제도 확충	①	②	③	④	⑤
27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및 재교육)	①	②	③	④	⑤

28. 귀하께서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다음은 귀하의 협업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29. 귀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 비장애 예술인과 같이 협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협업 단체/예술인: _____) ② 없다

30. 귀하는 예술 활동이 주가 되는 국제교류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국가: _____, _____, _____) ② 없다

31.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르 외에 타 장르와 협업하여 창작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장르: _____, _____, _____) ② 없다

VI. 문화향유 실태

32. 귀하께서 지난 1년간 문학/공연/시각/전통/다원예술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 30으로) ② 없다 (문31로) ③ 모르겠다/기억이 나지 않는다 (문31로)

33. 지난 6개월 동안 관람한 문화예술 행사 및 횟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람여부		관람횟수
33-1	문학행사(북콘서트,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시화전, 도서전 등)		예	아니오	( )회
33-2	시각예술(미술,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등)		예	아니오	( )회
33-3	공연예술	클래식 음악(기악, 성악 등)	예	아니오	( )회
		연극	예	아니오	( )회
		뮤지컬	예	아니오	( )회
		무용	예	아니오	( )회
		대중음악	예	아니오	( )회
		기타 (서커스, 쇼 등)	예	아니오	( )회
33-4	전통예술		예	아니오	( )회
33-5	다원예술		예	아니오	( )회
33-6	영화		예	아니오	( )회
33-7	기타 행사명(_____)		참여횟수( )회		

34. 귀하께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시간 ③ 교통
④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⑤ 기타 ( )

35.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하신 문화시설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재이용의사
35-1	문화예술회관(공공공연장/공공전시·미술관)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2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3	문화원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4	도서관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5	장애인시설(복지회관 등)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6	지역문화센터(주민센터)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7	사설 문화센터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35-8	기타	예	아니오	( )회	① 있음 ② 없음

※ 아래의 문항들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구분	내용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① 19세미만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거주지	( )도 ( )시		
교육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재학/수료	⑥ 석사/박사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시력, 시야결손)장애
	④ 청각(청력, 평형기능)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장애 발생시기	① 선천	② 후천 (발생시기: _____년)	

※ 다음은 귀하의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문항입니다.

귀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주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문항 a로) ② 아니다 (문항 b로)

a.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일 경우

소득48) (2017년 기준)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	( )만원 (없을 경우 0원으로 표시 바랍니다)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	( )만원 (없을 경우 0원으로 표시 바랍니다)
예술활동 투입시간	1주일 평균 예술활동 투입시간	( )시간 ( )분
(예술활동을 통한) 법적 혜택	① 법정퇴직금 ② 시간외수당 ③ 상여금 ④ 휴가(연월차) ⑤ 유급출산휴가 ⑥ 유급병가 ⑦ 기타 ( ) ⑧ 없음	
(예술활동을 통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본인기준)	건강보험	① 사업장 ② 지역 ③ 피부양자
	국민연금	① 사업장 (직장) ② 지역 ③ 기타 연금 ④ 가입안함
	산재보험	① 가입함 ② 가입안함 ③ 잘 모름
	고용보험	① 가입함 ② 가입안함 ③ 잘 모름

b. 문화예술활동이 주업이 아닌 경우 귀하께서 문화예술활동을 주업으로 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49) (2017년 기준)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	( )만원 (없을 경우 0원으로 표시 바랍니다)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	( )만원 (없을 경우 0원으로 표시 바랍니다)
고용형태	주업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4대보험 가입여부	예술활동 외에 별도 직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①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지역) (피부양자)
		② 국민연금 (가입) (가입되어 있지 않음)
		③ 산재보험 (가입) (가입되어 있지 않음)
		④ 고용보험 (가입) (가입되어 있지 않음)

48) 월평균 소득은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예술활동 소득은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임(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음)

49) 월평균 소득은 예술활동/비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예술활동 소득은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임(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음)

분야별 설문 : 문악 분야

1. 문학분야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① 시 ② 소설 ③ 수필 ④ 희곡 ⑤ 아동문학
⑥ 시조 ⑦ 시나리오 ⑧ 번역 ⑨ 평론, 이론 ⑩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단행본/개인작품집 발간 ② 단체작품집 참여 ③ 서적, 잡지 게재
④ 문학행사 기획 ⑤ 비평 ⑥ 기타 ( )

3. 문학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발표공간/지면 부족 ② 독자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인맥/학연 중심활동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타( ) ⑧ 어려운 점 없음

4. 문학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확대 ② 발표지면 및 공간 확대
③ 저작권, 심의기준, 출판 계약관련 자문시스템 ④ 전자출판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문학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문학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미술 분야

1. 미술분야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① 서양화 ② 한국화/동양화 ③ 판화 ④ 조각 ⑤ 서예 (문인화 포함)
⑥ 뉴미디어/설치 ⑦ 디자인 ⑧ 평론, 이론 ⑨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전/단체전/기획전 ② 평론 ③ 전시기획 ④ 기타( )

3. 미술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전시공간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인맥/학연 중심활동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타( ) ⑧ 어려운 점 없음

4. 미술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발표공간 확대 및 시설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창작발표 홍보 지원(작가 프로모션)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시각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미술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공예 분야

1. 공예분야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① 도자공예 ② 목칠공예 ③ 페이퍼크라프트 ④ 유리공예 ⑤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전/단체전/기획전 ② 평론 ③ 전시기획 ④ 기타( )

3. 공예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전시공간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인맥/학연 중심활동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타( ) ⑧ 어려운 점 없음

4. 공예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발표공간 확대 및 시설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창작발표 홍보 지원(작가 프로모션)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예분야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공예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사진 분야

1. 사진분야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① 창작사진 ② 보도사진 ③ 상업사진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전/단체전/기획전 ② 평론 ③ 전시기획 ④ 기타( )

3. 사진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전시공간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인맥/학연 중심활동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타( ) ⑧ 어려운 점 없음

4. 사진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발표공간 확대 및 시설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창작발표 홍보 지원(작가 프로모션)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사진분야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사진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건축 분야

1. 건축분야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활동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① 설계 ② 건축사 ③ 건축기사 ④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작품/단체작품 참여 ② 평론 ③ 기타 ( )

3. 건축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전시공간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인맥/학연 중심활동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타( ) ⑧ 어려운 점 없음

4. 건축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발표공간 확대 및 시설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창작발표 홍보 지원(작가 프로모션)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건축분야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건축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음악 분야

1. 음악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성악 ② 피아노/건반 ③ 현악 ④ 관악 ⑤ 타악
⑥ 오페라 ⑦ 지휘 ⑧ 작곡 ⑨ 평론, 이론 ⑩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음원/음반 출간 ⑤ 기타 ( )

3. 음악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공연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연습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공연시설 및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음악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연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음악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대중음악 분야

1. 대중음악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작곡 ② 작사 ③ 보컬 ④ 연주 ⑤ 제작/기획 ⑥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음원/음반 출간 ⑤ 기타 ( )

3. 대중음악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공연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연습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공연시설 및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대중음악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연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대중음악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국악 분야

1. 국악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국악(독주, 관현악, 실내악, 작곡 등) ② 창극/가무극/소리/마당극 ③ 전통연희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1a. 다음에 해당사항에 표해 주십시오.

□ 무형문화재 □예능 □ 기능 □ 해당사항 없음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기타 ( )

3. 국악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공연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후학/제자/전수자 양성의 어려움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공연시설 및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국악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전통예술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전통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국악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무용 분야

1. 무용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한국무용 ② 발레 ③ 현대무용 ④ 평론, 이론 ⑤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안무참여 ⑤ 기타 ( )

3. 무용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공연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연습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공연시설 및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무용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연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무용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연극 분야

1. 연극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연출 ② 연기 ③ 무대기술 ④ 제작/기획 ⑤ 평론, 이론 ⑥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기타 ( )

3. 연극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공연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연습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공연시설 및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연극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연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연극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영화 분야

1. 영화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연출 ② 연기 ③ 무대기술 ④ 제작/기획 ⑤ 평론/이론 ⑥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작 ② 평론 ③ 연기
④ 연출 ⑤ 기타 ( )

3. 영화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작업공간 및 시설 부족 ② 관람객 부족 ③ 장애 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부족 ⑤ 촬영기자재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기 낙후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영화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공연시설 확대 및 수준 개선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우수작품 유통 지원 ⑥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장비 지원(4-a)
⑦ 공연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영화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방송 분야

1. 방송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감독/연출 ② 연기 ③ 작가 ④ 방송기술
⑤ 제작/기획 ⑥ 디자인 ⑦ 평론, 이론 ⑧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행사기획
④ 기타 ( )

3. 방송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참여기회 부족 ② 관련 기반시설/기자재 미비 ③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 부족 ⑤ 작업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술인력 부족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방송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영상미디어 센터 확충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저작권, 심의기준, 제작투자 관련 자문시스템 ⑥ 지역관련 콘텐츠 발굴
⑦ 영상/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방송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만화 분야

1. 만화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시사만화 ② 유머만화 ③ 극화 ④ 제작/기획 ⑤ 평론, 이론 ⑥ 기타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품 연재/출판 ② 평론 ③ 작품 기획
④ 기타 ( )

3. 만화분야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참여기회 부족 ② 관련 기반시설/기자재 미비 ③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 부족 ⑤ 작업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기술인력 부족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만화분야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영상미디어 센터 확충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홍보/마케팅 등 프로모션 지원
⑤ 저작권, 심의기준, 제작투자 관련 자문시스템 ⑥ 지역관련 콘텐츠 발굴
⑦ 영상/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⑧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⑨ 기타 ( )

4-a. 만화분야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야별 설문 : 기타 분야

1. 귀하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분야 ( ) ② 기본장르 ( )

2. 다음 중 지난 3년간 (2015년~2017년) 귀하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연(개인/단체) ② 평론 ③ 공연/전시/행사기획
④ 기타 ( )

3. 기타 활동분야에서 예술인으로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택2)

① 발표기회/공간 부족 ② 장르간 교류 부족 ③ 관람객/독자 부족
④ 지역(행정당국)의 관심 부족 ⑤ 창작공간 부족 ⑥ 관련 정보 부족
⑦ 관련분야 전문인력 부족 ⑧ 기타( ) ⑨ 어려운 점 없음

4.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문화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2)

①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 ② 시설 확대 및 기자재 확보
③ 지원사업 관련 자문시스템(행정,세무,계약 등) ④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⑤ 지역관련 콘텐츠 발굴 ⑥ 기타 ( )

4-a.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예술인에게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장애인 예술단 및 장애 예술인 전문그룹

구분	단체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①	장애인 문화예술판	2008	장애인극단	• 장애인 창작공연 활동 및 교육사업 • 장애인 종합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카페 「별꼴」 운영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지정번호 제2012-6호)
②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2013	장애·비장애 아동 발레단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	서울발레시어터 운영
③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휠	2001	한국 최장 장애인 극단	• 정기공연 및 연극워크숍 공연 • 장애인연극 아카데미 • 2017 장애인창작단막페스티벌 • 장애 인식개선 교육연극 〈옥상 위를 부탁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제997호 사회적기업 (노동부 인증), 전문예술단체 (서울시 허가)
④	한빛예술단	2006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야제 오프닝 무대공연 • 2011년 워싱턴D.C. 케네기센터 공연 •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폐회식 참가	
⑤	에반젤리 합창단	2005	장애청소년 합창단	• 국내 최초 장애어린이 합창단	
⑥	춤추는 헬렌켈러	2009	시각장애인 명상교육& 공연예술 네트워크	• 장애인 호흡명상&무 교육 • 호흡명상&무 강사 양성 워크샵	
⑦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2006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 영 아티스트 육성, 장학지원, 음악콩쿨, 음악캠프, 마스터클래스, 위드콘서트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진행	
⑧	비츠로	2010	청각장애인 창작무용팀	• 2014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장려상 수상 • 2016년 일본동경골드콘서트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 2017년 청각장애인무용가로서 최초로 창작뮤지컬 The Last Concert의 전체 안무 담당	

구분	단체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⑨	땀띠	2003	장애인 사물놀이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다운증후군 등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5명의 청소년이 모여 만든 팀	
⑩	멋진 친구들	2010	발달장애인 교육인형극단	•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상황에서 올바른 성예절 및 성지식과 성폭력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인형극을 중심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음	
⑪	난파	2009	청각장애인 극단	• 현존하는 청각장애인극단 중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극단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창단
⑫	다함께 청소년 합창단	1991	정신지체 합창단	• 서울시립 정신지체인복지관 소속의 합창단	
⑬	무지개예술단	2010	장애인 종합 예술 단체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있는 경북 영광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장애인 예술단체	
⑭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실로암시각 장애인복지단)	2011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연주자에게 전문음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시각장애인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⑮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	2008	장애인예술단	• 음반을 기획·제작 •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사업 •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가지고 전국순회 공연 • 프랑스 파리 초청 공연 • 창작뮤지컬 one&one 기획·제작	
⑯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2007	시각장애인 민간 실내관현악단	•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극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꿈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⑰	다니엘보이즈	2003	공연단	• 장애아동시설인 사단 복지법인 다니엘의 공연단	
⑱	보리수 아래	-	비영리모임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불교의 자비와 수행을 실천	

구분	단체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⑲	실로암 소노레 앙상블	2008	혼성 중창단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중창단 • 여러 기관 및 단체행사, 정기연주회 등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마련하고자 노력	
⑳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	1999	장애인예술단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각종 문화공연 • 국제문화예술교류 • 장애인무용가 양성과 활동	
㉑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	2007	비영리 단체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예술매체로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사회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목적에서 조직 •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표현무용 등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㉒	극단 다빈나오	2005	장애·비장애 극단	• 장애인을 예술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대중에게 소개하는 장애인연극단체 • 기존의 공연창작집단과 유사하지만 장애인·비행청소년과 같은 소외계층은 물론 배우·감독·디자이너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실험적인 무대구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듦	
㉓	로사이드	2008	비영리예술단체	• 창작자 발굴 • 잡지 발간 및 다큐멘터리 제작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창작자 연결 • 전시 및 상영회를 개최 • 로사이드 창작 멤버와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아트상품을 제작 • 국내외 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구분	단체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㉔	극단 애인	2007	장애인 극단	• 장애의 경중이나 유무를 떠나 연기에 재능이 있고 장애 예술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극으로 풀어내기 위해 창설 • 극단 애인은 지체 장애인들의 특징인 언어장애와 다양하지 못한 표정을 장애인들만의 호흡과 리듬으로 바꿔내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극단이 다양한 공연 흐름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유성을 살리고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㉕	케인 앤 무브먼트	2017	장애·비장애 무용단	• '케인 앤 무브먼트 Cane & Movement'의 Cane 은 Contemporary Art Natural Extension 의 약자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확장을 추구하는 현대예술'이라는 의미 •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 〈TWO Be TO One – 두리새로 서로하나〉	(사)트러스트무용단 소속
㉖	춤추는 허리	2003	장애·비장애 여성극단	• 장애여성의 문제와 그들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장애여성의 몸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연극을 하자는 의도에서 결성. • 장애여성의 몸과 언어로 장애여성 삶과 독립, 섹슈얼리티 등을 주제로 한 정기공연 • 장애인생활시설 연극 워크숍 •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 여성영화제, 안티페스티벌 초청공연	

[부록 3]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인 문화예술 법인

구분	기관명 / 협회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①	(사)한국장애 예술인협회	2009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및 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목적	• 장애예술인수첩 제작중 • 솟대평론 창간 •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 문학지 '솟대문학' (현재 폐간)	
②	(사)우리들의 눈	1996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예술가들이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ART_Lab	• 맹학교 미술교육 • 미대 진학 프로젝트 – 가지 않는 길 part1 • 작가 인큐베이팅 – 가지 않는 길 part2 • 코끼리만지기 프로젝트	
③	(사)빛소리 친구들	2000	장애인무용단	• 2018 MADE EDUCATION: Mixed Ability Dance Ecosystem • KIADA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 2015 [한-핀 동서대륙을 잇다] 핀란드 초청 공연	2018 MADE는 문화체육관광부 / KSPO의 후원으로 진행
④	밀알복지재단	1979	한국 밀알 선교단이 모태인 장애인재활사업 중심의 사회복지법인	• 샘물밀알의집: 발달장애인의 창작지원을 위한 그룹홈 • 인블라썸: 미술에 재능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발달장애인 미술교육지원 사업 • 밀알콘서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기원 • 201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봄(seeing&spring)의 날개'	사회복지법인 인블라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
⑤	(사)한국 아르브뤼	2008	정신장애인의 예술적 가치구현과 일반시민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전국 아르브뤼·아웃사이더 아트 공모전 및 국회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사업 • 인식 개선사업 • 작가 발굴사업	비영리법인단체

구분	기관명 / 협회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⑥	(사)한국 아르브뤼·아웃사이더 아트협회	2010	정신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전시사업을 진행하는 정신장애인 예술단체	• '고통속에서 피어나는 꽃: 아르브뤼 미술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 • 아르브뤼·아웃사이더 아트 전시회	비영리민간단체
⑦	(사)꿈틔움	2011	장애인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가능케 하며, 자립심 고취와 자활 기반 조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함께 사는 사회의 풍토 조성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	• 재능발굴 및 역량 증진 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추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단체 JW Art Awards는 문화체육관광부와 JW그룹의 후원
⑧	(사)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2006	장애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장애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	• A+ Festival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스페셜K: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 장애인창작아트페어 • 국제장애인미술교류 • FDCA 아카데미 • A+ Culture Market • SDAF: 서울장애인문화예술축전	
⑨	(사)한국장애인 문화협회	1982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들에게 밝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 나눔연극제 •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 지역문화축제체험대회 • 장애인문화예술지원 • 희망의문화예술도구나눔운동 교육사업 • 월간나눔과문화 • 사회공헌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제426호 전국장애청소년 예술제; 2018 함께 누리 지원사업(국고)
⑩	(사)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1987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국내 및 국제간의 교류를 주도하며 각종 장애인 문화사업을 조성하여,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 전국장애인합창대회 •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 사랑의 음악회	

구분	기관명 / 협회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⑪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1996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 개발하여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및 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후원사업 • 장애인들의 전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 장애인 문화학교 운영사업	비영리법인단체
⑫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1997	시각장애인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전국맹학교에 미술전공 자원봉사자를 파견 • 맹학교의 미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 지원 • 매년 시각장애학생 작품공모전 개최	
⑬	(사)수레바퀴재활 문화진흥회	1992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중도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립	• 월간지 '수레바퀴'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⑭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2002	청각장애를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고 자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참여의 길로 이끌어 한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이 목적	•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및 전시회 사업 • 청소년 작가 육성 사업 • 청각장애작가 작품교류 사업	비영리법인단체
⑮	(사)열린세상 국민문화운동본부	2003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세상 구현함이 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진흥사업 • 문화체육 공간 확충 및 활용 극대화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운동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전문적인 협력체제 구축 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운동 • 장애인 IT교육 및 지원사업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 장애인 해외 문화탐방사업 • 도우미 시스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영리법인단체

구분	기관명 / 협회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⑯	(사)한국장애인 미술협회	2008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전시발표 사업	
⑰	(사)장애인문화 진흥회	2009	애인의 문화향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소비주체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능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	• 문화예술의 향수와 창작 관련 장애인의 주권 신장 • 장애인 문화 향수 지원을 위한 공연·전시·교육 등 문화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발굴·육성 및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⑱	(사)사랑 나눔위캔	2010	장애인, 사회적 소회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참여를 통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립심 고취와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의 풍토 조성이 목적	•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음악·미술·연극 등 각종 공연 관람 및 직접체험기회 제공 • 장애인 및 가족에 때한 스포츠·레저활동 체험기회 제공 • 사회참여를 통해 과심과 재능을 보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습득할 학습기회 제공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염두에 둔 예술·스포츠·레저 전문가그룹과의 멘토링지원 결연 장애인을 보조할 전문서포터그룹 육성 •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각종 교류사업 등	
⑲	(사)한국장애인 서예협회	2004	문화적 소외와 배제의 그늘 속에 있는 유망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소외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장애인서예대전 • 한중일장애인서화교류전	

구분	기관명 / 협회명	설립 연도	장르 및 성격	주요사업	비고
⑳	(사)한국장애인 방송연기자협회	2009	장애연기자의 발굴·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방송문화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연기자의 일자리를 창출이 목적	•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에 관한 상담 및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방송연기자의 발굴 양성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 및 공연활동, 뮤지컬, 영화 등 에 관한 사업	
㉑	(사)한국장애인 관광레저진흥회	2009	장애인 관광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레저 활동활동을 진흥 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	• 장애인 관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 관광레저시설의 장애인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계몽사업 • 장애유형별 관광안내종사자 양성 교육 및 관광레저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관광레저진흥센터' 설치 운영사업	
㉒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2011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예술활동 기회 제공이 목적	• 전문가 재능연계와 장애예술지원,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장애예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비영리법인단체
㉓	(사)트러스트 무용단	1995	소수의 사람들만 춤을 배우고 또 공연하기 때문에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춤은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점점 외면당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춤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추구	•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비장애 무용단 '케인 앤 무브먼트 Cane & Movement'임 • Cane 은 Contemporary Art Natural Extension의 약자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확장을 추구하는 현대예술'이라는 의미	

1.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장애인 예술의 주체인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장애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및 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예술인수첩〉 제작
  - 개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예술인, 경력 3년 이상,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10회 이상
  - 단체: 장애 예술인이 단원의 50% 이상, 경력 2년 이상, 작품 발표 10회 이상

- '솟대평론' 창간
  -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 문학지 '솟대문학'를 폐간한지 2년 만에 장애인 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솟대평론'을 창간했다. '솟대평론' 창간호는 장애인 문학 평론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장애인 문학을 총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애인 문학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 문학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 나타난 장애인 문학을 살펴보았으며 시, 소설, 영상문화 분야에서의 장애인문학 작품론을 실었다.
  - 또한 장애인 문학을 대변하는 '솟대문학' 25년을 재평가하는 솟대문학 평론 코너가 장애인 문학 평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2017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인 김대원 시인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2. (사)우리들의 눈

- 우리들의 눈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예술가들이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ART_Lab으로, 시각장애를 단순한 결핍이 아닌 또 다른 창의적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시각장애인과 예술가들이 함께 융·복합적인 미술교육을 실천해나가는 단체이다.

-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가들이 맹아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미술교육,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APP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맹학교 미술교육

-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미술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한다. 전국 맹학교를 대상으로 유치부에서 초, 중, 고등부 수업에 이어 미술대학 진학과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까지, 한국 사회에 이전에 없었던 시각장애인 들의 미술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미대 진학 프로젝트 - 가지 않는 길 part1

- 미대 진학 프로젝트는 길이 없어서 꿈조차 갖지 못했던 맹학교 학생들에게 미술대학의 진학을 시도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혼자 하기엔 어려운 이 도전을 위해 우리들의 눈은 좀 더 체계적인 진학 준비 과정을 마련하여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지원한다.

● 작가 인큐베이팅 - 가지 않는 길 part2

- 가지 않는 길은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는 맹학교 학생과 예술가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이다.

● 코끼리만지기 프로젝트

- 코끼리만지기는 시각장애 학생들과 예술가들이 '본다는 것에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코끼리를 통해서 탐색해 보는 프로젝트이다.
-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땅 위의 가장 큰 동물 코끼리를 보고 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코끼리를 만나보는 추억도 갖고 부족한 스케일 감각에 도전해 보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이 필요 없다는 세상의 편견을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프로젝트이다.

● 프리즘 프라이즈

- 프리즘 프라이즈는 우리들의 눈에서 주최하는 전국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미술상이다. 국내 시각장애 어린이,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미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Art & Busin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으로 시상하며 공모전 입상작은 우리들의 눈 정기전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러 전시를 통해 소개된다.

- 힘! 프로그램
  - 힘! 프로그램은 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예술적 경험을 향유하기 어려운 성인 시각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아트프로그램이다.
  -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수준 높은 경험을 쌓고 오감을 활용한 미술로 자기표현과 자기발견의 기회를 마련하고 취미활동과 더 나아가 전문직 진출의 가능성도 기대한다.

3. (사)빛소리친구들

- 빛소리 친구들은 2006년 장애인 예술봉사 목적으로 출발, 2009년 아마추어 무용단으로 재정립되어 춤추고 싶은 사람들, 다양한 춤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 및 지원하는 단체이다.

- 빛소리 친구들은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및 공연을 개최하는 단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6년 창단 이후 매년 전국장애인무용축제는 물론 SIDANCE(서울세계무용축제) 공연, 부산국제무용제, 일본 초청 공연 등을 비롯해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 〈빛소리 친구들〉은 2015년 3월 핀란드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해외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4. 샘물밀알의집; 밀알복지재단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건립된 '샘물밀알의집'은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미술적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룹홈이다.

-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작가는 개인의 역량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기술훈련 등의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입주작가는 3개월간의 입소적응기간을 가지며, 이후 선택에 따라 입소 기간이 정해진다. 입주 작가가 될 경우 작업공간과 미술교육, 자립생활교육, 사회재활훈련, 전시회 및 아트 페어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 재단은 이들이 전문 직업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5. (사)한국아르브뤼

- 비영리법인단체로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교 교수가 정신장애인의 예술적가치 구현과 일반시민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사)한국아르브뤼를 설립했다.

-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르브뤼 작가를 발굴하여 그 작품을 보존하고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직업재화사업 및 사회참여의 기회제공하고 아르브뤼를 알리고 일반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신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아르브뤼 국내외 전시기획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예술적 가치를 사회에 알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 직업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전시사업과 일반시민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학교 및 교육기관들과 연계 및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를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아르브뤼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작가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작가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작가군이 정신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 소속작가: 주영애, 김정명, 김용안, 곽규섭, 이종우, 김동기, 박제우, 이미연, 이연승, 중광, 이재현, 공민우, 김대로, 김하종, 정상진, 박웅진

6. 한국 아르브뤼, 아웃사이더 아트 협회

- 2010년 5월 비영리민간단체로 시작되어 2013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거쳐 2016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제주에 본부를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정신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전시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단체이다.

7. 꿈틔움

- 사단법인 꿈틔움은 사회적으로 기회가 적은 다양한 계층들의 꿈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재능발굴 및 역량 증진 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추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 꿈틔움 공모전
  - 장애인 문화예술작업을 취업 및 산업화 작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발굴하고 장애인 예술작품으로서 작품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신의 재능발굴과 역량증진방법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추구와 동시에 자립생활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온라인)의 포토 갤러리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장애인과 예술작품을 많이 접하지 않는 계층에게도 장애인 예술작품을 알리고 있다.

- 꿈틔움 전시회
  - 전시대: 꿈틔움 공모전의 각 부문별 수상 작품 및 멘토링 작가 작품
  - 일시 및 장소: 오프라인 - 전국 갤러리 및 행사장 9월 ~ 11월
  - 온라인: 매년 10월경, 네이버 및 해피빈 사이트

- 장애를 마주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회적 글쓰기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최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창작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문학여정을 통해 가족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장과 변모를 도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강화를 하고자 한다.

- JW Art Awards
  - 장애 예술인들의 인재 발굴 및 활동 우수성을 전파하여 대중과 향유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문화체육관광부와 JW그룹의 후원으로 JW ART AWARDS를 진행한다.

-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가치향상과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대중과의 향유를 도모하고자 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우리는 하나'

- 장애인 인식개선 인형극,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수업 및,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 미니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8.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o 장애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장애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장애예술인협회와 장애인미술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1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있다.

o 주요 사업으로 A+ Festival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스페셜K;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창작 아트페어, 국제장애인미술교류, FDCA 아카데미, A+ Culture Market, 서울장애인문화예술축전 등이 있다.

9.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문화를 통해 장애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문화의 혜택을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이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들에게 밝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신체 장애인들이 문화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 문화 프로그램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매체들을 활용하여 밝고 건강한 장애인들의 참 모습을 재인식시키는데 기여함이 목적이다.

10.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본 협회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국내 및 국제간의 교류를 주도하며 각종 장애인 문화사업을 조성하여,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87년 창립 하여 25년간 다양한 문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장애인이 함께하는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문화예술 캠프 및 문화세미나 및 예술제, 장애인합창단을 육성 발전을 위한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등이 있고,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문화학교 및 해외 장애인예술단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11.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장애인 문화복지를 이루어 내고, 문화를 통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복지의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장애인들의 창의적 재능을 발굴, 개발하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과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환경을 조성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꾸준히 문화예술 활동의 협업하는 기획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발전시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의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 주요 사업으로 국내 최초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국창작무용 공연하는 융복합공연, 장애인의 예술에 대한 능력 발굴 및 양성함이 목적인 비욘드예술단 등이 있다.

12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자 1997년에 결성되었다.

- 시각장애인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 예술가, 화랑관계자, 큐레이터, 미술언론 및 출판, 운송 등 미술분야의 전문인들과 기타 전문분야 및 사회단체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사업으로 전국맹학교에 미술전공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미술교육을 돕고 있으며, 맹학교의 미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시각장애학생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기획, 전시하는 것도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13.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1992년 1월에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중도장애인을 돕기 위해 '수레바퀴선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2002년 1월 31일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생활과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중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찾아 계발해내어 많은 사람들이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를 통해 '음악'도 하게 되고, 장애인 농구나 론볼과 같은 '체육활동'까지 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미술활동과 전시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특수버스를 이용한 여행과 같은 '실제적인 활동'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 장애인들의 자립과 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4.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 청각장애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고 자질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참여의 길로 이끌어 한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요 사업으로 청각장애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및 전시회 사업, 청소년 작가 육성사업, 청각장애 작가 작품교류사업 등이 있다.

15. (사)열린세상 국민문화 운동본부

- 열린세상 국민문화운동본부는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세상 구현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9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제도상의 규제·조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전문적인 협력체제 구축 사업, '무장애 공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 확보 운동 전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집이나 생활 편의시설 개 · 보수 작업, 문화·체육 공간 확충 및 활용 극대화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운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운동,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캠프' 등을 통해 시민과 장애인의 만남의 장 마련, 장애인 IT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장애인 해외 문화탐방사업, 장애인 스포츠 문화사업, 장애인 음악회 및 콘서트 개최, 도우미 시스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현장 및 일반 시민 참여의 교육시민운동 사업 등이 있다.

16.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 한국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장애인 미술인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조직화사업, 장애인 미술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유관단체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 연대사업, 장애미술인의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등이 있다.

17. (사)장애인문화진흥회

- 장애인문화진흥회는 장애인의 문화향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소비주체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능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7월 8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요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향수와 창작 관련 장애인의 주권 신장, 장애인 문화 향수 지원을 위한 공연·전시·교육 등 문화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발굴·육성 및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인식 개선, 장애인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등이 있다.

18. (사)사랑나눔위캔

- 사랑나눔위캔은 장애인, 사회적 소회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참여를 통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립심 고취와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1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음악·미술·연극 등 각종 공연 관람 및 직접체험기회 제공, 장애인 및 가족에 때한 스포츠·레저활동 체험기회 제공, 사회참여를 통해 과심과 재능을 보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습득할 학습기회 제공,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염두에 둔 예술·스포츠·레저 전문가그룹과의 멘토링지원 결연, 장애인을 보조할 전문서포터그룹 육성,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각종 교류사업 등이 있다.

19.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 문화적 소외와 배제의 그늘 속에 있는 유망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소외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으로 대한민국장애인서예대전, 한중일장애인서화교류전 등이 있다.

20. (사)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는 장애연기자의 발굴·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방송문화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연기자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9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장애인 자신의 자신감 도모와 연기를 통한 치유효과, 장애인의 자율적이며 활발한 사회활동 도모 및 방송연예인이란 새로운 직업군 개발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방송인 발굴, 양성을 통한 정직하고 실력있는 장애인 스타를 배출하고 21세기 글로벌 미디어시대에 발맞추어 장애인 전문방송인력 개발과 새로운 "패러다임"형성, 차별화된 교육컨텐츠 확보와 훈련을 통한 새로운 장애재활프로그램 개발로 인재양성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향상 등이 설립목적이다.

-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에 관한 상담 및 조사·연구사업, 장애인방송연기자의

발굴, 양성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 및 공연활동, 뮤지컬, 영화 등 에 관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송연기직업군 개발사업, 국내·외 장애인방송,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예술인 교류 협력사업 등이 있다.

21. (사)한국장애인관광레저진흥회

-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는 장애인 관광레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레저활동활동을 진흥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7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관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관광레저시설의 장애인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계몽사업, 장애유형별 관광안내종사자 양성 교육 및 관광레저활동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관광레저진흥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이 있다.

22.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 등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기금 조성 릴레이 콘서트, 장애인 생활지원 및 예술 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지역 맞춤형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있다.

23. (사)트러스트 무용단

- (사)트러스트무용단은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케인 앤 무브먼트 Cane & Movement'의 Cane 은 Contemporary Art Natural Extension의 약자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확장을 추구하는 현대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케인 앤 무브먼트는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중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 강화사업에 (사)트러스트무용단이 선정되어 창단된 단체이고, 서류접수 및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장애인 무용수들을 중심으로 트러스트 무용단의 보유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과정

을 거쳐 쇼케이스 공연 무대에 서게 될 예정이다.

-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이었던 〈TWO Be TO One - 두리새로 서로하나〉로 장애인과 위기청소년, 그리고 프로무용수가 만나 춤으로 빚어내는 공연이 있다.

- (사)트러스트무용단은 소수의 사람들만 춤을 배우고 또 공연하기 때문에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춤은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점점 외면당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춤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록 4] 장애인 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건립하였고, 현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 이음센터는 장애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고, 하는 일은 장애 예술 업무 조사, 국제 교류, 장애 예술의 교육 활성 등이다. 그러나 장애 예술이라는 것은 꼭 장애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이음의 정체성이다.

2.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1) 설립목적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유일의 장애 예술가 창작레지던스로 서울문화재단에서 2011년부터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9기 입주작가까지 77명의 장애 예술가를 발굴 및 창작 공간 지원을 해왔다.

2) 주요사업

- 매년 입주공모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장애 예술가 12명을 선발하며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굿모닝 스튜디오〉를 통해 입주예술가 대상으로 크리틱과 개별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전시와 오픈스튜디오 등 다양한 창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 〈프로젝트 A〉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 2018년은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메세나협회 후원의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지원사업 〈누에 꿈;틀〉을 통해 장애인 예술창작 및 교육환경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3. 에이블아트센터

1) 설립목적

-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인 문화권리실현 및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전문 장애인문화예술 공간이며, 장애인들이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대안예술공동체이다.

- 기독교 영성인 생명, 사랑, 평화를 바탕으로 장애, 예술, 영성의 조화와 진화를 진지하게 모색하며,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참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2) 에이블아트란?

- 에이블아트는 '가능성의 예술', '장애의 예술'이란 뜻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한,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able)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불가능(disable)이라는 단어를 내포하는 장애(disabled)를 역설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3) 주요사업

- 에이블아트센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예술을 즐기며 예술적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전문예술강사와 아트서포터즈가 참여자들 안에 숨겨진 예술적 표현능력을 끌어내도록 돕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에이블아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활동 기간 동안 제작한 작품들을 기획·전시하고 교육 기간 이후엔 에이블아트센터의 구성원으로 등록하여 작가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4. 벗이미술관

- 아시아 최초의 아르브뤼(art brut) 전문 미술관으로 2015년 개관한 'art museum VERSI'는 의료법인 용인병원 설립 이후 소외계층, 장애인, 비전문가, 영세민 등을 위해 설립됐다.

- 벗이(VERSI)는 한글로는 벗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우리와 곁에 있는 친구, 소중한 벗이 되고자 하는 한편 영문으로는 'VERSI'라는 의미로 쓰여져 'diversity(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드러내고 있다. 관 내의 어떤 차별도 배제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꾸며나가는 회사의 바람을 담고 있다.

- 장애 당사자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기초로 정신장애의 요소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발전시켜 대중에게 장애의 편견을 깨고 미술과 문화의 한 장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이고 적절한 장애인 직업 재활 전문가를 개입하여 장애인 대상 교육, 인턴 등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최초 아웃사이더 아트를 전문적으로 전시 홍보 나아가 아웃사이더 아트를 매개로 하는 학술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의미를 둔다.

- 벗이미술관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학습된 주류 예술과 ‘다른’ 아르브뤼은 모두 인간과 예술이라는 근원에서 비롯한다”며 “이번 the ORIGIN 전은 정신의학과 아르브뤼의 역사를 통해 근원(orgin)을 탐구하고,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리하는 우리 사회에 질문을 해본다”고 말했다.

[부록 5] 장애 예술 관련 축제

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는 장애인이 단순히 관객으로 참여하는 수동적인 이벤트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의 주도적인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의 중심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 국내의 현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장애 문화예술인을 항시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009년 최초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한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능력 있는 장애 문화예술인을 항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 해외의 유명 장애문화예술인의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통해 국내 장애 문화예술인 및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이 당당한 문화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국내 장애·비장애 문화예술인과의 협동 공연 등을 통해 국내외 장애·비장애 문화예술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문화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마련한다.

- 수준 높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장애인이 당당한 문화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창조권,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

2. 예울림 페스티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며, 장애인들이 무용, 음악, 미술, 영화, 국악, 연극 총 6개 분야 창작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작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상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의 작품과 공연이 행사에서 발표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행사이다. 축제에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와 그 가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그 간의 성과와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예울림 페스티벌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예술적 경험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장애인영화제 (PDFF)

-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비영리 영화제이다.

- 장애인영화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영화제의 상영작품 배리어프리(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버전으로 상영하고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 국내 상업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웠던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장애인영화제가 시작되었다. 현재 장애와 관련 된 주제의 모색,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배리어프리 문화콘텐츠 제작하고 활성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앞장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장애인 영화제는 다음의 내용들을 지향하고 있다.
  - 사회적 측면 :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편견 없는 분위기 확산, 다양한 삶에 대한 낙관적 관심과 표현/즐거운 사회 지향
  - 문화적 측면 : 장애인과 일반인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개성 영화제로 행사의 보장과 부대행사의 다양화로 대중화 추구
  - 복지적 측면 : 장애인들이 영상을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로 정책개발 및 법률마련과 기타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고민의 장

4. 장애인 창작단막 페스티벌

- 장애인창작단막페스티벌은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이 올리는 장애인 연극 축제이다.

- 장애를 매개체로 연극을 만들어 가는 작가, 배우들이 활동하는 극단의 단막 작품을 모아 한

자리에서 선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진 페스티벌은 이번에는 장애인극단이 손을 잡고 무대에 선다.

-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극단 휠, 멋진친구들, 춤추는 헬렌켈러, 극단 난파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표현으로 소통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장애인 단원들이 직접 쓴 대본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배우들의 솔직한 연기가 펼친다.

5.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공통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고, 사단법인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발 행 일 2018년 5월

발 행 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I S B N 979-11-964529-0-2

연 구 기 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오비스홀 105호

Tel. 02-961-921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